靑陽의 民俗演戱

임동권, 정형호, 임장혁 공편

靑陽文化院

■ 편자소개

임동권 충남 청양 출생
문학박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저서 ≪한국민족문화론≫ 외

정형호 충북 보은 출생
문학박사
안양대학교 겸임교수
저서 ≪양주별산대놀이≫ 외

임장혁 서울 출생
문학박사
중앙대학교 조교수
저서 ≪기우제의 비교민속학적 연구≫ 외

靑陽의 民俗演戱

임동권, 정형호, 임장혁 공편

靑陽文化院

발 간 사

안종일 청양문화원장

현대사회는 서구문물의 영향을 받아 우리의 오랜 생활 의식과 양상이 나날이 급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상들이 이룩한 오랜 전통문화가 변절되고 소멸되고 있어 애석하다.

우리 문화원에서는 이와 같은 현실에서 우리 고장에 전승되어 있는 향토문화를 조사·기록하여 후세에 길이 전하고자 작업을 시작하여 ≪청양의 구비문학≫, ≪청양의 세시풍속≫, ≪청양의 민간신앙≫에 이어 ≪청양의 민속연희≫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작업은 지금 우리의 과제이고 사명이다. 즉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조상들이 남긴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이다.

청양에는 탈춤이나 인형극 같은 연희는 없으나, 많은 민속놀이가 전승되고 있다. 춘하추동 계절따라 명절따라 여러 놀이들이 있어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료들을 발굴하는 일, 즉 향토민속을 발굴하고 집대성하는 작업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이번 이 고장 청양 출신의 민속학자 임동권 박사에게 그 조사를 의뢰하여 조사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한다.

이러한 조사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향토문화를 이해하고 더 많은 관심이 모아지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서 문

임 동 권

청양은 군(郡)의 한 복판에 숲이 우거진 칠갑산(七甲山)이 자리하고 있으며, 지천(之川)의 맑은 물이 흐르고 있어 산자수명(山紫水明)한 곳이다. 그래서 근래에는 스스로 충남의 알프스라 자랑하고 있다. 개발되지 않은 것이 산업쓰레기로 인한 오염을 피하고 자연을 그대로 유지 할 수 있어 오히려 다행한 일이다.

사람은 살다보면 때로는 흥(興)이 나고, 그 흥을 풀고자 하는 충동을 느끼게 되며, 그 흥을 풀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몸짓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 종합예술(綜合藝術)로서의 놀이와 연희(演戱)가 형성된다.

우리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해서, 농경민족(農耕民族)임을 스스로 자칭하며 살아 왔다. 즉 농사를 생존의 근본으로 삼아 가장 소중히 여겨 왔다. 따라서 우리의 생활양식은 농경위주로 형성되어 전승되었다.

중국(中國)의 여러 동이전(東夷傳)에 의하면 우리 조상들은

이 천년 전후의 시대에는 오월에 파종하고 하늘에 제사했으며, 시월에는 농사일을 마치고 하늘을 제사했는데, 이 때에 술을 마시고 배불리 먹고 춤을 추었는데, 손은 위로 올리고 발로 땅을 굴렀다고 했다. 곡식의 씨를 뿌리고, 잘 자라 가을에 풍년들기를 기원했으며, 소원이 이루어져서 가을에 많은 수확을 거두었으니 하늘의 덕이라 믿어 그 고마움에 감사하기 위하여 하늘을 제사했던 것이다.

제사란 신에게 맛있는 음식을 바치고 정성을 다 하는 의식을 말한다. 신의 은덕으로 소원이 성취된 데 대하여 올리는 제사이니 정성을 다하며, 신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하여 공손하며,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노래와 춤, 즉 가무(歌舞)가 있었으니 오신(娛神)이며 신명풀이였다. 사람은 흥이 나면 스스로 노래를 부르게 되고, 흥이 고조되면 손과 발이 움직여 춤을 추게 된다.

우리는 농경민족(農耕民族)임을 스스로 자처하여 〈농자천하지대본〉을 생활화하였다. 그래서 농사의 계절과 명절에 따라 노래하고 춤추고 놀았다. 놀이가 발전해서 줄거리를 가지게 되고, 사건을 꾸며 놀이하면 연희가 된다.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거의 마을마다 풍장, 즉 농악(農樂)이 있었다. 새해를 맞아 설을 쇠고 대보름까지는 한가하다. 한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니 배불리 먹고 농악을 치며 마을을 돌면서 걸립(乞粒), 즉 지신밟기를 한다. 농악대 일행을 맞이한 집에서는 음식을 차려 대접을 한다. 이 때에 농악을 치고 집

안을 한 바퀴 빙 돌아 부정과 재앙을 몰아내고 다음 집으로 옮긴다. 이렇게 며칠을 축제 분위기를 이루어 즐기고, 또 마을의 수호신(守護神)인 산신(山神)을 제사하며, 마을은 온통 축제를 이루게 되니, 이 때에 온갖 놀이와 연회가 있게 된다.

놀이와 연희의 조사는 아동에서 노년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세시놀이인 경우 그 현장을 확인하려면 2년은 걸려야 하는데 정해진 기한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려니 단시일 안에 조사를 실시해야 했으므로 불충분하고 어려움이 있었다.

청양문화원에서 향토민속을 발굴·기록하여 후세에 전하고자 하는 의지에 고맙게 여겨 동참하게 되었다.

청양에 전승되는 놀이에 대해서는 그 동안 ≪칠갑문화≫을 비롯하여 '향토지지(鄕土紙誌)'와 보고서, 논문 등에 소개가 있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성과를 수용하고, 이번에 실시한 조사 자료를 합해서 편성했다.

조사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조사자

임동권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정형호　안양대학교 겸임교수

임장혁　중앙대학교 조교수

♣ 조사자 보조자

① 2001년 현지조사

김선숙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4학년

김혜연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4학년
서종원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4학년(고려대 대학원 재학)
이동아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4학년(전국문화원연합회 근무)
홍정모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4학년(일본 유학중)
송지영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3학년

② 2002년 현지조사

이동아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졸(전국문화원연합회 연구원)
최지연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4학년 재학
송지영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4학년 재학
김현정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2학년 재학
류재인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2학년 재학
오애정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2학년 재학

차 례

1. 청양의 풍장 13

(1) 청남면 인양리의 풍장 14
(2) 정산면 송학리의 풍장 20
(3) 청양읍 적누리의 풍장 24
(4) 목면 본의 1리 무수동의 풍장 26
(5) 남양면 매곡리 1구의 풍장 27
(6) 비봉면 신월리 1구의 풍장 28
(7) 청남면 상장 1리의 풍장 29
(8) 장평면 미당리 풍장 30
(9) 대치면 대치리의 풍장 32
(10) 화성면 용당리의 풍장 34
(11) 운곡면 후덕리 대동마을 풍장 35
(12) 대치면 탄정리 풍장 37
(13) 화성면 장계리의 걸립 39
(14) 비봉면 녹평리의 풍장 40
(15) 정산면 남천리의 풍장 41
(16) 청남면 왕진리 1구 원왕진의 풍장 41
(17) 정산면 용두리의 풍장 41
(18) 장평면 낙지리의 풍장 42

2. 청양의 두레와 두레놀이 43

(1) 대치면 대치리의 두레와 두레싸움 44
(2) 청남면 인양리의 두레와 두레싸움 46
(3) 정산면 남천리의 두레와 두레 싸움 49
(4) 목면 본의 1리 무수동의 두레싸움 50
(5) 장평면 미당리의 두레싸움 51
(6) 정산면 송학리의 두레와 두레싸움 51
(7) 화성면 용당리의 두레싸움 55
(8) 청양읍 송방리의 두레싸움 56
(9) 정산면 덕성리의 두레싸움 57
(10) 정산면 대박리의 두레싸움 57
(11) 대치면 탄정리의 두레놀이 57
(12) 청양읍 적누리의 두레와 두레싸움 58
(13) 남양면 매곡리 1구의 두레와 두레싸움 59
(14) 청남면 천내리의 두레와 두레 놀기 60
(15) 목면 본의 2리의 두레와 두레놀이 .. 61

3. 청양의 집단놀이 63
(1) 청양의 쥐불놀이 64
(2) 장치기 71
(3) 걸 립 76
(4) 범놀이 79
(5) 꼬댁각시놀이 84
(6) 노적봉(노적가리) 세우기 92
(7) 동화놀이 94
(8) 천 렵 99
(9) 회류놀이(꽃놀이) 100
(10) 기세배(용대기) 103
(11) 백중놀이(머슴날, 호미씻이) 104
(12) 줄당기기 107
4. 청양의 개인놀이 109
(1) 교니(고누) 110
(2) 돈치기 놀이 114
(3) 비석치기 116
(4) 지게(상여)놀이 120
(5) 공놀이 123
(6) 엿치기 125
(7) 윷놀이 126
(8) 자치기 131
(9) 튕기바리(땅따먹기) 136
(10) 연날리기 138
(11) 빠지(딱지)치기 141
(12) 공기놀이 142
(13) 고무줄놀이 144
(14) 소꿉장난 147
(15) 숨바꼭질 147
(16) 제기차기 놀이 151
(17) 가마타기 놀이 153
(18) 달맞이 놀이 154
(19) 가래질 놀이 156
(20) 그네뛰기 157
(21) 널뛰기 159
(22) 문(門)놀이 160
(23) 소리개 놀이 161
(24) 불넘기 놀이 162

(25) 남대문놀이 162
(26) 그림자밟기놀이 163
(27) 그림자놀이 164
(28) 멍석 말아풀기 놀이 164
(29) 못치기 놀이 165
(30) 실뜨기 놀이 167
(31) 두꺼비집짓기 놀이 169
(32) 서울 구경 놀이 170
(33) 눈(目)싸움 놀이 171
(34) 잎따내기 놀이 172
(35) 땅개비 놀이 173
(36) 바람개비 놀이 173
(37) 꽈리불기 놀이 175
(38) 기차놀이 175
(39) 장기놀이 176
(40) 나무동무 176
(41) 씨름 177
(42) 갈퀴치기 181
(43) 낫치기 183
(44) 강다리놀이 183
(45) 닭싸움(쩔뚝발이싸움) 184
(46) 꼬리잡기(진도리) 185
(47) 살가지잡기 186
(48) 복조리 달기 187
(49) 오곡밥 훔쳐먹기 188
(50) 용알 뜨기 190
(51) 더위팔기 191
(52) 콩볶아 먹기 193
(53) 풀각시놀이 193
(54) 줄넘기 195
(55) 팽이치기 196
(56) 구슬치기 197
(57) 다리밟기 198
(58) 불넘기놀이 199
(59) 골패(骨牌)놀이 199
(60) 쟁경도놀이 200
(61) 투전(鬪牋) 201
(62) 화투(花鬪) 203
(63) 썰매타기 215
(64) 말타기 215

(65) 목침화로 빼앗기 216
(66) 발씨름 217
(67) 방아개비 놀이 218
(68) 서울구경놀이 219
(69) 선생님놀이 219
(70) 성냥치기 221
(71) 수건돌리기 223
(72) 여우잡기 223
(73) 역마씨움 224
(74) 유리보기 놀이 225
(75) 자리개질 놀이 226
(76) 잠자리 잡기 227
(77) 종지돌리기 228
(78) 진(陣)빼기 놀이 228
(79) 참새잡기 229
(80) 총놀이 231
(81) 콩주머니놀이 232
(82) 팔씨름 233
(83) 호드기 불기 234
(84) 호미놀이 235
(85) 가래질놀이 236
(86) 가마놀이(씨움) 237
(87) 고리찾기 238
(88) 고생받기 238
(89) 국수가닥 늘리기 239
(90) 글씨찾기 239
(91) 기마전 240
(92) 길쌈놀이 241
(93) 깡통차기 241
(94) 눈(雪)씨움 242
(95) 다리걸고 놀기 243
(96) 다리세기 243
(97) 들돌놀이 244
(98) 마부놀이 245
(99) 막대다리놀이 245
(100) 목자치기(사방치기, 돌차기) 246

■ 제보자 및 참고문헌 251

1. 풍 장

(1) 청남면 인양리의 풍장

① 명칭

이 마을에서는 예전부터 주로 '풀물친다'는 말을 사용한다. 그러나 근래에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농악이란 말도 많이 사용한다.

② 기

기에는 대동기와 영기가 있다. 대동기는 일반적인 농기와 동일하며, '농자천하지대본'이라 쓰고, 3갈레의 긴 끈을 달아 넓은 둑에 세워 고정시킨다. 한편 한자로 '令'이라고 쓴 영기가 3개 있는데, 앞에는 끝에 칼이 달린 영기가 1개, 뒤에 좌우로 3갈개 갈라진 삼지창 형태의 영기가 2개 선다.

③ 악기 편성과 위치

이곳은 대회에 나갈 때에 50여명으로 편성하는 대규모의 풍장이다. 제일 앞에 나팔, 이어 영기 3(앞에 칼 달린 영기, 뒤에 삼지창 형태의 영기), 대동기, 새납(호적) 1인, 상쇠 1인, 부쇠 2~3인, 합쳐 꽹과리는 3~4인, 징 2인, 장구 2인, 북 2인, 법고잽이 7~8인, 소고잽이 15인, 꽃나비 7~8인, 포수, 영감과 할미의 순서로 선다. 법고잽이는 소고잽이와 달리 돌림벙거지를 착용하여 돌모를 돌린다. 법고잽이와 꽃나비는 숫자가 같다.

나팔은 돌아가는 곳에서 불어준다. 영기와 대동기는 길나래비(길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 한편 이곳에서는 잡색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악기별 2인 이상이 쳐도 모두 잘 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치는 것과 같이 잘 맞는다.

④ 복장

상쇠, 부쇠, 법고잽이는 돌림 벙거지를 쓴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고깔을 쓴다. 법고잽이와 소고잽이의 차이를 보면, 법고잽이는 돌림 벙거지를 쓰지만, 소고잽이는 고깔을 쓴다. 돌모(상모) 길이는 1발 이상이 되며, 8명의 법고잽이가 모두 돌린다.

그리고 대동기와 영기를 든 사람, 나팔을 부는 사람은 패랭이를 쓴다. 꽃나비는 예전에 남자가 여복을 하는데, 치마저고리에 머리에 댕기를 하고 수건을 쓴다. 한편 예전에는 중꽃나비가 있었는데, 남녀 작은 아이가 맡았으며, 이들이 무동을 탄다.

그리고 소고잽이는 예전에 남자가 맡았으나, 요즘 공주의 백제문화제와 같은 각종 대회에 나갈 때에는 여자들이 맡고 있다. 상의는 모두 흰색으로 입고, 조끼만 남색으로 입는다. 한편 기수, 나팔잽이는 검정색 끈을 어깨에서 늘어뜨리는 점이 다르다.

예전에는 두레를 할 때에 띠를 두르지 않았다. 농악 때에만 띠를 둘렀는데, 허리에 노란 띠를 두르고, 오른쪽 어깨에 빨간색 때, 왼쪽 어깨에 남색 띠를 둘렀다. 지금은 양쪽 어깨에 빨간색과 남색의 어깨띠를 사용해 대각선으로 두른다. 또한 신

발은 예전 두레가 나갈 때에는 모두 짚신을 신었으며, 지금도 각종 대회에 나갈 때에 짚신을 신는다.

⑤ 가락과 진법

이곳은 1채부터 7채까지 전통적인 풍장을 전승하고 있다. 7채는 징을 7번 친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두레를 나갈 때는 자진쇠로 마당을 1바퀴 돈 다음에 7채로 나가며, 행진할 때에는 느진(느린) 쇠로 친다. 논을 맬 때에 계속 악기를 치는데, '장풍장'이라 하여 느진(느린)장단으로 친다. 이곳에서는 '진(陣)풀이', '진법(陣法)' 등의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처음에 시작할 때에 인사를 하면서 7채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어서 노름마치(세마치)로 잽이꾼들이 한바퀴 돌아서서 손님들에게 원형을 그리면서 다시 인사를 한다.

그리고 풀어서 치고 나가다가 태극 형태를 잡으면서 잽이꾼이 둥글 게 선다. 장단은 세마치, 곧 노름마치 장단을 친다. 이때 원에는 잽이들이 둘러서고, 가운데의 태극 부분에 소고잽이 15명이 서서 악기를 연주한다.

이어서 다시 풀은 다음에 상쇠가 앞장서며 원형을 그리면서 둥글게 나사모양으로 조여 들어온다. 이것을 멍석말이라고 한다. 이때 세마치장단으로 친다.

다음에 잽이, 꽃나비 등이 전부 둥그렇게 원을 그리면서 앉는다. 그리고 가운데에 상쇠 1사람만 들어간다. 상쇠는 돌아다니며 치면서 부쇠부터 차례대로 한 명씩 따라 나오게 하면,

이들은 둥글게 나오면서 각자 부분적으로 엮으면서 나온다.

이어 잽이꾼, 소고잽이, 법고잽이 등이 3패로 나뉘어, 동시에 크게 3개의 원을 그리며 제각각 앉는다. 그리고 각 원에서 1인씩 나오면서 한바탕 놀기 시작한다. 이때 잽이꾼 중 상쇠, 장구잽이 등이 1인씩 나와서 놀게 된다. 다음에 상쇠가 법고잽이를 차례로 찍어 나오면서 다같이 나와서 놀게 된다. 장단은 계속 세마치를 치게 된다. 한편 장구잽이는 양장구를 치며 논다.

그리고 주머니끈 뜨기라 하여, 4각형으로 서서 쇠잽이가 먼저 치고 나가며, 맞은 편끼리 서로 사이사이를 빠져 나가며 치게 된다. 이때 소고잽이·법고잽이들이 다른 잽이들과 마주서서 서로 빠져나가게 된다. 다양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곳 풍장이 보기가 좋다.

⑥ 치는 시기

두레 하러 갈 때, 일을 할 때, 돌아 올 때에 친다. 장단은 갈 때와 올 때가 동일하다. 특히 두레 일을 할 때에 더위 속에서 계속 치기 때문에 잽이가 매우 힘들다. 다만 쉴 때에는 치지 않는다. 그리고 먹두레나 걸립을 할 때에도 풍장을 친다.

⑦ 작대기 풍장

아이들은 악기를 함부로 만질 수 없기 때문에 나무하러 갈 때에 지게 작대기를 이용해 5~6명이 작대기 풍장을 쳤다. 장단은 일제히 똑 같이 치며, 일반 풍장 칠 때와 같다. 이것을

통해 악기 치는 법을 배운다. 일반적으로 처음 악기를 만지는 시기는 18~19세가 되야 한다. 만약 이 나이가 되기 전에 허락 없이 악기를 만질 경우에는 어른들이 쫓아와 악기 찢는다고 혼을 내준다. 정식 악기를 배울 때에도 처음에 법고잽이부터 시작하게 되며, 단계적으로 다른 악기를 다루게 된다.

⑧ 걸립

걸립은 1월 12일~13일 2일간에 걸쳐 실시한다. 이곳은 동네가 크기 때문에 2일에 나누어 실시하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한 집에 오래 머무르지 못한다. 따라서 한 집에 대략 20~30분씩 머무르며, 마당 - 부엌 - 장광(장독대) - 샘 - 마당의 순서로 이동하며 친다. 부엌에서는 조왕을 위하고, 장광에는 당산을 위하며, 샘에서는 샘제를 지낸다. 제보자는 샘제의 가락이 보통 가락과 틀리다고 하며, 다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부엌과 장광(장독대)에서 하는 가락은 동일하다고 한다. 각 가정에서는 돈과 쌀을 내 놓으며, 이것은 마을 기금으로 사용한다.

⑨ 두레 풍장

나팔, 영기, 대동기, 상쇠와 부쇠, 징, 장구, 북, 법고잽이까지 참여하며, 일반 풍장과 달리 소고잽이, 꽃나비, 포수, 영감과 할미는 참여하지 않는다.

⑩ 전승 실태

이곳은 들이 넓고 규모가 크다 보니, 청양에서는 전통적인 가락을 대대로 잘 보존하고 있는 곳으로, 거의 유일하다고 한다. 특히 근래에 와서 청양의 다른 지역에서는 사물놀이 가락을 많이 치는데 비해, 이곳은 전통을 잘 전승하고 있다. 특히 충남의 웃다리 가락에서는 7채와 쪽지기가 가장 중요하며, 이것을 잘 치면 능력을 인정해준다. 따라서 이곳이 흥겹게 잘 노는 편이다.

특히 이 마을은 뛰어난 기능을 지닌 상쇠인 김한제씨가 마을 풍장을 이끌어 가고 있다. 이 분은 청남면 일대의 풍장을 거의 지도하고 있으며, 이 마을의 풍장을 실제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여러 곳에서 많이 초청을 받으나 마을 일로 자주 가지 못하는 편이다.

제보자는 청남면의 부녀회원을 지도하고 있다. 부녀회원 중심의 농악이 재작년 체육대회에 나가 2등을 했고, 작년 체육대회에는 장려상을 받았다. 현재 이 마을에도 젊은 사람이 적은 편이며, 현재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은 45세이다.

제보자는 이곳 가락이 대전의 유명한 상쇠 송순갑씨가 전승하고 있는 웃다리농악의 가락과 매우 유사하다고 한다. 특히 이곳 가락은 끊고 맺는 게 정확한 편인데, 경기도 안성이나 평택 지역의 가락은 길게 나가기 때문에 넘어가는 게 구별이 잘 되는 않는 편이라고 한다.

(청남면 인양리, 김명하)

(2) 정산면 송학리의 풍장

① 명칭

옛부터 전통적인 이름으로는 '풍장친다'라고 하였다. 또는 '풍장놀이 하자'라고 하였다. 풀물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았다. 30대 이하의 사람들은 농악이나, 풍물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 시작하였다.

② 기

영기의 바탕은 홍색이었으며 글씨는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검정색으로 썼다. 건립이나 두레 등 풍장을 칠 때는 항상 영기 2개가 맨 앞에 선다. 영기는 왕이라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영기가 가장 앞에서고 그 뒤로는 농기가 뒤따랐다.

③ 악기 편성

풍장은 주로 마을에서 크게 벌이는 동화제때 많이 쳤다. 동화제때의 악기 편성을 살펴본다면 영기를 든 사람이 맨 앞에 섰다. 그 뒤로 농기가 서게 된다. 그 뒤로 악기들은 꽹과리, 징, 장구, 북, 법고(소고) 순서대로 선다. 꽹과리는 상쇠가 가장 맨 앞에 서고 그 뒤로 부쇠 2명이 선다.(쇠잽이 3명) 부쇠 뒤로는 징잽이 3명이 따라 붙고 그 뒤로 상장구와 부장구 2명이 서며 (장구잽이 3명) 북잽이 3명이 선다. 법고잽이는 맨 뒤

에 9명이 따라 붙는다. 악기잡이들 뒤로는 잡색이 섰는데 총을 들고 자루를 짊어지는 포수와, 등이 굽은 꼽사등(곱새), 중 등이 따라 붙었다. 건립을 할 때는 법고잽이 뒤로 쌀푸대를 진 쌀수금관이 선다.

④ 악기의 보관

마을 창고에 보관을 하였는데 어린 아이들은 치고 싶어도 어른들이 못 치게 할 정도로 아주 엄격히 관리를 하였다.

⑤ 복장

풍장을 칠 때는 머리에는 상투를 틀고 탕건을 썼다. 이마에는 하얀 머리띠를 두른다. 옷은 기본적으로 흰 저고리와 흰바지를 입었다. 상쇠는 돌모(상모)를 착용하였고 상쇠를 비롯한 부쇠 2명은 수실(부들)을 착용했다. 법고잽이(법고선수) 중 한 명은 12발 상모를 썼다. 농악대회를 나갈 때에는 법고잽이들이 고깔을 썼다.

⑥ 가락과 진법

3채를 치면서 시작한다. 이것은 쇠장단을 ' 갱갱 갱개개갱 갱갱 갱개개갱'으로 친다.

걸립을 할 집에 들어서면 마당 두바퀴를 3채를 치면서 돌다가 2채(쇠장단 : 갱갱)로 바꿔친다. 그렇게 3채와 2채가락을 반복하여 치면서 마당서 부엌으로 들어가고 뒷곁도 한 바퀴

돈다. 3채와 2채를 친 뒤에는 굿거리장단을 치고, 그 다음에는 7채를 친다. 이동할 때나 장거리를 갈 때는 걷기 편하도록 느린 장단인 질굿을 친다. 질굿은 쇠장단을 느리게 해서 '갱갱 갱갱 갱 갱 갱 뚝뚝 갱 징~'으로 친다.

⑦ 치는 시기

정초에 건립을 할 때 많이 쳤다. 칠월 칠석날 두레 먹을 때 쳤는데 논매기 할 때만 쳤고 모내기 할 때는 목방구만 북잽이가 치면서 하였다. 논매기 두레는 10일~13일 정도 계속 되었는데 아시매기를 한 후, 일주일 정도를 쉬고 두벌매기에 들어갔다. 두벌을 맨 후 20일 정도에는 만물매기를 했다. 추석, 설날과 같은 큰 명절에는 꼭 쳤다. 마을 어른들 육순잔치, 칠순잔치 때 쳤고, 비가 안 올 때 기우제를 치르면서도 쳤다.

⑧ 정초의 걸립

매년 정초에 건립을 하였다. 동화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건립이었는데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었다. 농사를 짓느라 바쁜 시기였기 때문에 풍물을 배우는 차원에서 기간을 길게 잡고 하였다. 하루에 5~6집을 다니는데 한 집 당 약 30분에서 1시간이 소요되었다. 마을의 집들은 모두 빼놓지 않고 다녔으며 각 집들은 저마다 쌀을 1말씩 받아놓고 쌀을 받은 사발에 촛불을 켜놓고 준비하였다. 1년 내내 집안에 복이 많이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건립을 하였다.

⑨ 두레풍장

두레는 김을 멜 때에 치라고 생긴 것이 풍장이다. 그만큼 두레를 중심으로 풍물을 친다.

어렸을 때부터 두레 때 어른들이 치는 것을 보고 배운다. 마을회관 앞에서 두레를 매러 가기 위해 오전 7시에 다 모여서 출발한다. 마을회관 앞에 모두 모이면 한바탕 놀다가 질굿을 치면서 논까지 나간다. 논매기 두레는 있는데 모심기 두레는 없다. 논을 맬 때 아시매기, 두벌매기, 만물매기 3번 모두 두레풍장을 친다. 두레가 끝나고 마을로 돌아오면서도 악기를 쳤다.

두레풍장은 60년대까지 있었다. 그 후로는 사람들이 많이 빠져 나가고 운영이 잘 안되어 쇠퇴되었다.

⑩ 무등타기

옛날에는 무등을 탔었는데, 현대로 오다가 점점 없어졌다. 1987년도에 마을에서 전국대회 준비를 계기로 다시 타기 시작했다.

옛날에 풍장을 칠 때 무등과 함께 지게춤도 췄는데 지게를 짊어지고 지게 작대기로 장단을 맞추며 삥삥 돌다가 세마치 장단에서 두마치 장단으로 가락이 바뀌면 큰 사람이 봉을 두른다. 가운데에서는 지게 2개를 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 주위를 빵 둘러 돈다. 이러한 지게춤, 지게걸음, 무등은 옛부터 전해져 오는 것들로써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

(정산면 송학리, 이덕종)

⑪ 돌풍장

예전에는 악기를 아주 귀하게 여겨서 함부로 건들지도 못하게 했다. 그래서 아이들은 주로 돌멩이로 장단을 치며 배우는데, 이것을 '돌풍장'이라고 한다. 한편 나무꾼들이 지게를 지고 가면서 역할을 나누어서 지게작대기로 풍장을 치는 것을 '지게풍장'이라고 한다. 이것은 좀더 큰 성인들이 했다. 지금도 마을 창고에는 동화제 용품, 풍장기, 풍장 악기, 그릇 등 동네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다.

⑫ 전승실태

현재 송학리의 상쇠인 이덕종은 마을 어르신인 고 최정준(송학리 토박이)에게 가락을 이어받았다.

아이들이 15~16세 정도 자라면 전통을 이으라고 악기를 내어 준다. 그 전엔 악기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였다. 깡통 뜯어진 것이나 세숫대야 깨진 것을 치면서 장단을 익혔다. 제일 먼저 장구를 잡았고 그 다음으로 2~3년 뒤쯤 쇠를 잡았다.

(정산면 송학리 오영삼)

(3) 청양읍 적누리의 풍장

① 명칭

이곳에서는 '풍장을 친다'는 말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② 치는 시기

풍장을 치는 시기는 한가할 때, 정초 걸립시(40여년 전), 추석·설과 같은 명절, 동네 기금 마련할 때 등에 친다.

그리고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에 차례를 지내고 산소를 다녀온 뒤에 풍장을 친다. 이날 회관에서 치기도 하고, 때에 따라 저녁에 여유 있는 5가구 정도를 방문해서 치면 주인은 술을 대접한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여러 집을 다니지는 못한다.

한편 일년 중에 한가할 때에 치고, 동네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치는 경우도 있다. 예전에는 쌀이 비싸기 때문에 1말, 5되씩 모은 돈은 꽤 큰 돈이 된다.

③ 정초 걸립

정초에 걸립을 할 때에 각 집집마다 다니며 풍장을 친다. 이때 각 가정에서는 쌀을 1말, 또는 5되를 내놓는다. 제보자는 걸립의 경험은 없고, 20대 초반까지 걸립을 구경 한 적이 있다. 따라서 정초의 걸립은 40여년 전에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편성

악기의 편성과 위치를 보면, 제일 앞에 농기가 서고, 이어 상쇠와 구쇠(부쇠) 각 1인, 장구 2인, 북 2인, 징 2인, 법구 12인, 꽃내비 2인, 중꽃내비 2인으로 위치한다. 꽃내비와 중꽃내비는 지금은 소멸되었다. 농기는 흰색 바탕에 검정 글씨로 농자천하지대본이라 쓰며 쓴다. 그리고 대는 대나무를 사용하며,

위에 꿩털을 단다.

⑤ 복식

모든 구성원이 꽃무늬가 있는 고깔을 쓴다. 다만 상쇠는 돌모를 쓴다. 한편 노란색, 붉은 색의 띠를 ×자 모양으로 두른다.

⑥ 전승

이곳 풍장은 꽤 기능이 뛰어나서 남녀가 같이 참여해서 각종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3년 전에 40대 상쇠인 강명철씨가 사망하면서 지금은 상쇠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체계적인 전승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악기간 소리가 잘 맞지 않는 편이다. 따라서 근래에는 행사나 대회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제보자는 징, 북을 칠 줄 알며, 풍장을 칠 때에는 남녀가 같이 참여한다. (청양읍 적누리 1구, 노병두)

(4) 목면 본의 1리 무수동의 풍장

① 풍장의 전승

예전에는 풍장을 쳤는데, 지금은 치지 않는다. 배우려는 사람도 없고 현재 전수자들도 없어서 이어가기 힘들다. 동네가 작아서 어렵다. 현재 30~40대는 거의 없다.

② 풍장의 구성

2개의 영기를 앞세우는데, 농기는 두레 할 때에만 들고 나간다. 농기에는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쓰여 있다. 영기는 테두리가 파란색이고, 가운데는 하얀색 바탕에 검정색으로 '슴'이라고 쓰여 있다. 영기 뒤에는 날날이 부는 사람이 따른다. 다음에 상쇠, 부쇠 징, 장고, 북이 따른다. 법고가 있는데 정해져 있지는 않는다. 면 단위 대회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무동을 타기도 했다. 이것을 꽃내비라고 한다. 두 사람이 아이를 어깨에 메고서 다닌다.

③ 걸립

정초에 부락에서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걸립을 한다. 걸립은 길면 5일 동안 실시한다. 부락에서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한 충분한 돈이 걷힐 때까지 계속한다. 예를 들어 100만원이 필요하면, 이 돈이 다 걷힐 때까지 계속한다. 풍장은 동네사람들이 치고, 모든 집을 다 방문한다. 이곳에서는 본의실하고 같이 걸립을 했다. (목면 본의 1리 무수동, 김홍식)

(5) 남양면 매곡리 1구의 풍장

① 명칭

여기에서는 농악을 '풀물'이라고 한다. 곧 '풀물친다'고 말한다.

② 걸립

정월 보름과 16일 날에 풀물을 치면서 집집마다 다녔다. 이때 각 집안에서는 쌀 1말을 '불받이'(촛불받이 쌀)로 담아서 내 놓았다. 이것을 걷어서 동네 기금으로 사용했다.

③ 치는 시기

풀물은 주로 두레 때에 치고, 논에서는 논풍장을 친다. 한편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에도 쳤다.

④ 악기 편성

징, 북, 장고, 꽹과리로 악기가 구성되고 뒤에는 중꽃내비, 여꽃내비가 있었다. 중꽃내비는 고깔을 쓰고 치마저고리, 스님 고깔, 승복을 입었는데 한 명만 등장하고 여꽃내비는 남자가 여장을 하고 2명으로 구성된다. (남양면 매곡리 1구, 최창호)

(6) 비봉면 신월리 1구의 풍장

정월에 걸립을 할 때에 풍장을 치고 논다. 곧 제사 지내고 산소 갔다 와서 술 한잔 먹고 나서 논다.

현재 마을 청년회에서 풍장을 친다. 이 동네는 40~50대 젊은이가 많은 편이며, 풍장은 주로 40대가 치며, 연습해서 대회

에 나간다.

마을의 석자할아버지가 잘 쳤다. 일제 때에는 용 그린 것을 타 오기도 하였다. 용대라고 해서 대회에 나가서 기를 타 왔는데, 용 모양이 그려진 엄청나게 큰 기이다. 그 기를 잘못 보관해서 현재 없어졌다. 당시 27년 만에 열리는 대회에 나가서 일등을 했다. 당시 할아버지들이 잘 쳤는데, 노인들이 악기를 찢는다고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아서 제대로 전승되지 못했다. 현재 농악은 젊은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이다.

(비봉면 신월리 1구, 조성매 외)

(7) 청남면 상장 1리의 풍장

① 특징

이 마을에서는 풍물을 많이 친다. 이곳 청남면의 여성 풍장의 2/3는 상장리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치는 시기

예전에 두레 할 때에 한잔 먹고 풍물을 친다. 그리고 부락에 큰 일이 있으면 꼭 친다. 근래에 군민 체육대회에 나가서 준우승을 한 적도 있다. 걸립은 간혹 하는 경우도 있다. 마을에 사정이 어렵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거의 하지 않는다.

③ 장단

장단은 세마치와 자즌마치를 꼭 친다. 자작자작 부쳤다가 세마치를 치고 늦은 세마치로 끝낸다. 예전에 재질있는 사람끼리 치는 기본적인 장단이 있었는데 지금 사람들은 그것을 치지 못한다.

④ 악기 편성

상쇠 1인, 부쇠 합쳐 2인, 북 1인, 징 1인으로 되어 있으며, 장구는 원래 없다. 지금은 북도 상황에 따라 2~3인이 치기도 한다. 한편 조선 말기에 제작된 징이 깨친 채로 있다. 예전에는 기를 들고 다녔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청남면 상장 1리, 우성림)

(8) 장평면 미당리 풍장

① 풍장

이곳에선 농악을 원래 '풍장 친다'라고 하였다. 근래에 들어서 농악이라는 명칭을 썼다. 두레 할 때를 비롯하여 칠성제, 장승제, 백중, 추석 그 외에 크고 작은 마을 행사 때에 쳤다. 두레는 없어졌어도 풍장은 약하게나마 지속되었다. 요새는 젊은 부녀자들이 많이 치고, 악기는 마을회관에 따로 보관하고 있다.

예전에 아이들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지게 작대기로 지게를 치면서 풍장을 치는 흉내를 냈다. 이것을 '작대기풍장'이라고 한다. 주로 아리랑 타령 노래를 부르면서 놀았다.

작대기 풍장을 할 때에는 입으로 '갱갱' 하는 꽹과리 소리를 내며 놀았다.

(장평면 미당리, 서기복 · 김평길)

② 두레풍장

'두레 매긴다'라고 한다. 마을 270호에서 각 집마다 한 명씩 참여하였다. 두레의 제일 어른을 '공좌산'이라고 하였고, 그 다음은 '공원'이라고 하였는데 하는 일은 일을 지시하는 역할이었다. 농기를 앞세우고 200명이 넘는 엄청난 규모였다. 이 근방에서는 가장 크게 두레를 하였다. 모심기할 때는 기간이 3달이 걸렸는데(4월~6월) 개인적으로 이웃사촌끼리 품앗이의 형태로 진행하였다. 김매기는 아시매기, 두벌매기, 세벌매기 이렇게 세 번을 맨다.

두레매길 때는 계산을 하였는데 한 마지기에 2만 원 정도로 돈을 모았다. 놀고 나면 마을 기금으로 쓰였는데 결산해보면 매우 큰돈이 되었다. 따로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었다.

모내기를 할 때에 두레풍장이 이루어진다. 이 때에는 장구만 치는데 이를 '목방구 친다'라고 하였다. '어야듸야 상사듸야'라고 매기고 받는 노래를 불렀다. 두레를 할 때는 사물(쇠, 장구, 북, 징)을 다 친다. 김매기 중에 는 처음 매는 시기인 초벌매기 때에만 풍장을 쳤다. 두레가 없어진 지 20년이 넘었다.

(장평면 미당리, 서기복 · 김평길)

③ 지신밟기

'지덕 눌른다'라고 하였다. 지신을 위한다고 생각했다. 집집마다 지덕 눌러 달라고 요청을 해왔다. 장승제를 지낼 때는 정월 열나흗날, 보름날 양 일간 지덕을 눌렀다. 정월 이외에 어떤 날이라도 요청이 들어오면 지신을 밟고 놀았다.

(장평면 미당리, 서기복 · 김평길)

(9) 대치면 대치리의 풍장

① 용어

이곳에서 농악은 원래 '풍장친다', '풀물친다'는 2가지를 말을 같이 사용했다. 요즘에 와서는 농악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② 농기

농기는 대나무로 만든 깃대의 길이가 약 20자 정도이며, 위에 장끼꼬리로 만든 꿩털을 매달았다. 그리고 천의 바탕은 흰색이고, 주위에 검정, 흰색, 붉은색의 수실을 둘렀다. 가운데에 검정색으로 '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글씨를 썼다. 기를 든 사람은 동네에서 힘이 센 젊은이가 뽑혔다. 한편 깃봉 아래에 3갈래 긴 줄을 늘어뜨려 두레 나갈 적에 농기를 세우고 이 줄을 논 주위에 삼각형 형태로 늘어뜨려 농기가 쓰러지지 않게 고정시킨다.

③ 편성

제일 앞에 농기가 위치하고 이어 꽃나부 2인, 중꽃나부 1인, 꽹맥이 2인(상쇠, 후쇠), 징 1인, 장구 1인, 북 1인, 법고 3~5인으로 편성되었다. 꽃나부는 치마, 저고리를 입고 무동을 선다. 위에 올라서는 꽃나부는 15세 정도의 어린 사내아이가 맡았다. 한편 중꽃나부는 머리에 고깔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는다. 꽃나부는 두레 매러 나갈 때에 참여했으며, 무동도 탔다.

④ 치는 시기

논매기에서 3벌 맬 때인 만물매기할 때에 풀물을 친다. 한편 정초에 걸립할 때에도 풀물을 쳤다. 보통 1월 3일에 치며, 이때에 각 집에서는 보통 1말 정도의 쌀을 내 놓는다. 이렇게 모은 쌀은 자루에 넣어서 화주 집으로 옮긴다. 그리고 1960년대 새마을운동이 있기 전까지는 8월 추석에도 풀물을 쳤다.

⑤ 전승 실태

요즘 상쇠잡이가 없어서 제대로 전승이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노인들이 세상을 떠나고 젊은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악기를 칠 만한 사람이 없어서 풍장을 치는 일이 없게 되었다.

(대치면 대치리, 염태섭)

(10) 화성면 용당리의 풍장

① 명칭과 두레

악기를 치는 것을 "풀물친다"라고 하였다. 주로 두레풍장으로 악기를 쳤다. 두레는 마을 어르신 중에 말씀 잘 하시는 분이 총지휘한다.

② 악기와 편성

악기는 상쇠, 부쇠, 북 1명, 새납 1명, 장구 1명, 징 1명으로 구성된다. 법고는 두레 때는 놀지 않는다.

맨 앞에 농기를 앞세워 움직였는데 농기의 높이는 10m가 넘는 거대한 규모였다. 황색 광목천에 가운데에 검정 글씨로 '농자천하지대본' 이라고 한문으로 적었으며 테두리는 붉은 색으로 수실을 달았다.

기의 머리부분에는 수꿩 꼬리털을 달았는데 그 길이가 40cm정도 되었다. 농기가 매우 크고 무거웠기 때문에 3명의 장정이 양옆과 가운데를 잡고 다녔다.

③ 정월 걸립

정월에 상여를 만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립을 하였다. 낡은 상여는 쓰면 안 좋다 하여 새로운 상여를 만들어야 했는데 그럴 때마다 건립을 하여 비용을 마련하였고 새로 만들어진 상여는 약 20년 정도 썼다. 건립을 다닐 때는 풍장을

많이 쳤다. 호호마다 빼놓지 않고 모두 다녔으며 호마다 와달라고 청하는 일이 많았다. 건립은 해마다 꼭 하지는 않았고 필요한 조건이 있으면 그때그때 하였다.

(화성면 용당리, 강연석)

(11) 운곡면 후덕리 대동마을 풍장

① 명칭

이곳에서는 농악을 '풀무친다', '풍장친다'라는 말을 같이 썼다.

(운곡면 후덕리 대동마을, 이의유)

② 치는 시기

추석날 차례를 지내고 난 후에 8월 보름 밤에 해마다 건립을 한다. 마을 가구수가 26호 정도가 되었는데 집집마다 다녔다. 정월에는 날이 많이 추웠기 때문에 악기를 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건립을 하지 못했다.

③ 장단

집에 들어갈 때는 질굿나비 7채를 치며 들어간다. 마당에 도착해서 몇 바퀴를 돌 때는 빠른 장단인 두마치 장단을 치며 돈다. 두마치를 치면서 우물로 이동하여 새암제(샘제)를 지내는데 두마치 장단을 두어번 치다가 절을 하고 다시 장단을 치

고 절을 하는 행위를 반복을 한다. 그 다음 장광 - 부엌 - 마당 순으로 돌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악기를 치다가 절을 하는 행위를 반복한다. 부엌에 들어가서는 "주왕님께 비나이다 1년 12달 태평하길 기원합니다."라고 소리를 내어 축원한다. 마당에 도착해서는 악기 치는 것을 멈추고 음식을 나눠 먹고 신나게 놀다가 다른 집으로 다시 질굿나비 7채를 치며 이동한다.

④ 악기 편성

새납이 가장 앞에 선다. 그 다음으로 꽹과리- 징-북-장구 순서대로 한 명씩 서게 된다.

⑤ 농기(용대기)

바탕은 흰 광목천으로 이루어졌으며 글씨는 붓으로 검은색 글씨로 썼다. 폭은 1.5m정도가 되었고 길이는 6m 정도 였다. 흰 바탕의 천에 세로로 양옆에는 용이 두 마리가 그려져 있었는데 그 색은 검정색이었다. 양 옆의 용 가운데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문구를 써넣었다. 농기 대는 대나무인데 그 길이가 15m로 매우 길었다. 농기의 테두리에는 수실을 둘렀는데 노랑색이었다. 대나무의 맨 꼭대기에는 수꿩의 꼬리털을 달았다. 두레 때는 두레를 시작하기 앞서 마을 마당에 세워 놓는다. 용대기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고 마을에서 위했는데 두레를 시작할 때 풀물을 치며 고개 숙여 절을 하고, 다녀와서도 세워져 있는 용대기 앞에 고개 숙여 절을 하였다.

⑥ 두레 및 두레풀물

두레 작업을 '두레난다'라고 하였다. 다섯 마을이 한 구역이었는데 그 다섯 마을을 모두 다녔다.

7월에 두벌매기 두레를 주로 하였다. 대동마을이 농악 왕이라고 불릴 만큼 풀물이 아주 유명했다. 두레를 맬 때는 한집에서 한 명씩은 꼭 나와서 참여를 하는데 후덕리 전체 가구수가 거의 100호 정도가 되었다. 15살에서 20살 정도의 장정이 주로 참여하였다. 그런데 만약 한 집에서 한 사람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했다.

두레 때 생기는 기금은 산제를 지낼 때의 기금으로 쓰인다. 두레가 거의 끝날 즈음엔 4명 정도가 풀물을 치고 2명 정도만 논에 들어가 흥분이 되어 신나게 일을 하는 시늉을 하였다.

두레가 끝나면 다른 동네에서 대동마을로 농악대를 몰고 와서 용대기 앞에서 전부 절을 하였다. 이를 '두레 먹는다'라고 하였다. 대동마을이 어른마을이었기 때문이다. 이때 세워두는 용대기는 정월 명절까지 마을 입구에 세워둔다.

(운곡면 후덕리 대동마을, 명해동 · 명효식 · 명제빈)

(12) 대치면 탄정리 풍장

① 명칭

이 지역에서는 풍장이라고 하며, 풍장소리는 쇠소리와 가죽소리의 조화가 중요하여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 구경꾼은 절

로 어깨춤을 출 수밖에 없다고 한다. '쇠소리'는 징과 꽹가리, '가죽소리'는 북과 장고를 말한다.

② 악기 편성

이 지역의 농악대 편성은 다음과 같다. 영기(令旗) 1개, 농기(農旗) 1개, 좌수공원, 세납(회적) 2개, 상쇠(괭가리), 부쇠(꽹가리), 징, 장고, 꽹과리, 북, 소고 등으로 구성된다.

③ 정월의 마당 밟기굿

'지신밟기굿'이라고 하며 집집마다 다니며 덕담도 해주고 복을 빌며 새해에 좋은 일만 있기를 축원해준다. 각 집에서는 음식과 술을 대접하여 잔치가 벌어진다.

④ 공동작업의 두레굿

공동작업을 할 때, 일터로 갈 때, 작업을 할 때, 오는 길 등에 농민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농자천하지대본야(農者天下之大本也)'라고 쓴 농기를 선두로 해서 주악(奏樂)에 맞추어 손짓 발짓으로 익살을 부리기도 하고 일하는 장소에 이르러 농기를 세우고 그 둘레를 돌면서 한바탕 논다.

⑤ 걸립굿

집집마다 돌면서 각 집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한바탕 놀아주고 마을의 공공 기금으로 쌀과 돈을 걷는다. (대치면 탄정리, 복진세)

(13) 화성면 장계리의 걸립

정월 보름날은 온 동네에 풀물을 치고 집집마다 돌아다닌다. 부락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건립이었는데 집집마다 찾아가면 돈, 쌀, 음식 등을 성의 있게 내 놓는다. 쌀은 한말 정도를 내 놓는 게 기본이었고 설에 먹던 음식이나 새로 일부러 내놓기 위해 지은 술을 기부하기도 한다. 건립패가 풀물을 치며 집으로 들어오면 마당을 돌고 그 다음으로 부엌으로 들어간다. 부엌에 들어가서 조왕신을 위하고 장광으로 건너간다. 장광에서는 터주신에게 집안에 우환이 없기를 기원한다. 다음으로는 우물로 가서 우물에서 물이 잘 나라고 기원을 하는 샘굿을 하며 돈다. 다시 마당으로 돌아와 2~3바퀴를 돈 뒤 풍장을 계속 치며 논다. 농기는 없었고 한 집 당 건립하는 시간은 대략 1시간정도 되었다. 이를 "걸립패 들어온다" 라고 하였다.

(화성면 장계리, 이순이)

(14) 비봉면 녹평리의 풍장

이 마을의 농기는 직경 10cm에, 높이가 15m가 되는 대나무로 대를 삼았다. 흰색 바탕의 광목천에 글씨는 먹으로 검게 "농자천하지대본" 이라고 썼다. 수실은 네 개의 테두리에 모두 다는데 검정색이었다. 농기는 엄청난 크기였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 힘들었는데 양쪽과 가운데에서 3명의 장정들이 새끼줄로 고정을 시켜 잡았다. 마을에 영기는 없었다.

두레 작업을 "두레 났다" 라고 한다. 각 집에서 한 명씩 나와 두레를 나간다. 논을 맬 때 두레로 맸는데 두레 때 생긴 돈을 가지고 칠성날에 놀았다. 돈은 따로 관리하는 책임자가 있었다. 그 돈을 가지고는 떡과 술(막걸리), 부침개를 만드는 비용으로 썼다. 두레를 맬 때는 하루에 5~10집까지 맸다. 두레 매는 사람이 60~70명이 넘었기 때문에 일을 빨리 끝낼 수 있었다.

논은 아시매기, 두벌매기, 만물매기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레는 두 번째인 두벌매기할 때 한번만 맨다. 두벌 맬 때는 4~5일 정도에 걸쳐 끝낸다.

녹평리에서는 두레 때 치는 풍장을 "두레꾼"이라고 하였다. 두레를 매는 일꾼들을 따라서 두레꾼들이 따라다니는데 풍장을 치면서 흥을 돋우었다.

(비봉면 녹평리, 명제헌 · 최순길)

(15) 정산면 남천리의 풍장

풍장을 '풀물을 친다'고 한다. 이것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며, 1월 14일 노신제 때에 풍장을 친다. 두레 할 때에 치며, 두레싸움을 할 때에도 친다. 예전에 걸립을 할 때에도 쳤으며, 근래에 설, 추석 때에도 친다.(공주시 우성면 봉현리 김원중)

(16) 청남면 왕진리 1구 원왕진의 풍장

풍장은 정초나 두레 때에 이루어졌다. 이 마을의 두레는 해방 후까지 존속했으며, 6. 25 이후에 소멸되었다. 동네에 농자천하지대본이라 쓴 두레기가 있었으나 예전에 소멸되었다. 한편 예전에 두레싸움도 있었다. 풍장을 치며 놀 때에는 여자들도 참여했다.

(청남면 왕진리 1구 원왕진, 김정운)

(17) 정산면 용두리의 풍장

풍장은 징, 꽹과리, 북, 장고 4가지 악기를 사용하고, 복장은 따로 없었다. 장승을 세우러 갈 때에 풍장을 쳤다.

(정산면 용두리 1구, 이신우)

(18) 장평면 낙지리의 풍장

나무하러 가면서 지게를 지고 지게작대기로 풍장을 치는 것을 '작대풍장'이라고 한다. 이런 놀이를 하면서 장단을 익히게 된다.

(장평면 낙지리 윤갑중, 심윤섭)

2. 청양의 두레와 두레놀이

(1) 대치면 대치리의 두레와 두레싸움

① 두레싸움

일제시대에 두레가 있을 때에는 아래의 광대울 마을과 두레싸움을 했다. 두 마을의 두레패가 만나면 서로 깃대로 인사를 하라고 요구하며 시비가 붙는다. 나중에는 두 마을의 풍장패가 서로 어울려 노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② 두레의 시기와 기간

두레는 주로 논매기 때에 이루어졌다. 논매기는 3벌을 매는데, 아시매기, 두벌매기, 만물매기(세벌매기)를 한다. 두레는 세벌매기인 만물매기 때에 이루어진다. 두레의 기간은 보통 5~10일 정도이다.

③ 두레꾼의 참여

두레는 남자 중에서 17세 정도부터 45~50세 정도까지 참여하였다. 이 나이에 해당하는 두레꾼 중에서 1가구에 1명씩 참여하였다. 따라서 여러 명이 있는 집에서는 교대로 두레에 나오기도 하였다.

④ 작업 시간

오전 7시경에 시작하여 오후 7~8시에 끝나면, 경우에 따라 일이 일찍 끝날 경우에는 6~7시에 마치기도 하였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아래의 정자나무에 집결하여 풍장을 울리면서 논매기를 하러 떠났다.

⑤ 식사와 간식

아침은 집에서 먹고 나오며, 점심도 각자 준비를 한다. 따라서 각 가정에서 점심을 준비해서 내 오는 경우가 많다. 다만 논의 주인은 새참으로 오전과 오후에 각각 보리술을 내 놓으며, 마늘과 고추장 등을 안주로 내 놓는다.

⑥ 두레 기금

두레를 할 때에 논의 임자는 논의 크기에 따라 돈이나 쌀을 내 놓는다. 따라서 1마지기당 얼마씩을 동등하게 계산해서 내 놓는다. 이것은 마을의 기금으로 사용한다.

⑦ 두레 소멸 시기

해방 전인 일제 말기에 약화되어, 해방 후에는 실시하지 않았다. 당시 두레가 약화된 이유는 일제의 징용, 군대 징집, 타지 이주 등에 의한다. 당시 7~9가구 정도가 본토에 징용으로 끌려갔다. 그리고 타지에 이루한 사람도 여러 집이 있었다.

당시에 살기가 어려워서 전쟁 초기에 몇 홉의 배급을 받았으나, 나중에는 쌀을 구경도 못 했고, 심지어는 썩은 콩깻묵으로 연명을 했다. 이로 일로 인해 두레가 약화되었다.

⑧ 품앗이

모내기 할 때에는 돈을 주고 품을 사거나 품앗이를 했다. 특히 모내기를 할 때에 주민 중에는 잘못 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두레를 하지 않았다. (대치면 대치리, 염태섭)

(2) 청남면 인양리의 두레와 두레싸움

① 두레싸움

제보자가 어릴 때에 두레싸움이 있었다. 나무 잘 타는 사람이 상대의 '깃목'을 빼앗으면 이기게 된다. 이것은 상대의 목을 베는 것과 같다. 곧 목을 빼앗겨 가지고 가지 못하게 된다. 만약 깃목을 빼앗기면, 기를 가지고 가지 못하고 버리고 가야 한다. 서로간에 치고 받기도 하고, 농악을 다루어서 승패를 결정하기도 하였다. 이곳 두레가 크기 때문에 다른 부락의 두레가 감히 덤비지 못한다. 한편 풀물(풍장)을 쳐서 그 실력으로 승부를 내기도 한다.

② 두레의 실시 시기

논매기할 때에 두레를 실시하며, 초벌매기를 제외한 2벌매기와 만물매기할 때에 두레를 실시하였다. 대개 음력 6월 초순~7월 초순에 두레가 이루어진다. 두레는 거의 1달간 계속되었다.

③ 두레의 구성

두레는 좌상, 상공, 총각대방, 유사 등으로 구성된다. '좌상'은 연장자 중에서 뽑으며 모든 것을 지시하는 총 대장격이다. '상공'은 일을 주선하며, 모든 두레의 회계와 뒷바라지를 맡는다. '총각대방'은 뒷정리를 하는데, 특히 담뱃대를 정리하는 일을 맡았다. 한편 '유사'는 음식을 담당하는데, 주로 술과 안주를 주선한다. 한편 점심은 각자 집에서 내간다.

④ 두레의 참여

제보자는 두레에 19살에 참여했으며, 당시 60~70세까지 참여한 사람도 있었다. 이 마을의 두레는 180명이 참여할 정도의 큰 규모를 지니고 있다.

⑤ 두레의 작업 시간

두레는 아침에 큰 집 바깥 마당에 집결한다. 이때 대동기를 앞세우고 풍장을 치며 논으로 출발한다. 그리고 논의 넓은 곳에 기를 세우고 작업을 시작한다. 두레가 끝나는 시간은 대략 7시 경이다. 때에 따라 늦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⑥ 음식

술은 막걸리로 오전과 오후에 걸쳐 새참으로 나온다. 이 비용은 동네 기금에서 지출한다.

⑦ 두레 풍장

나팔, 영기, 대동기, 상쇠와 부쇠, 징, 장구, 북, 법고잽이까지 참여하며, 일반 풍장과 달리 소고잽이, 꽃나비, 포수, 영감과 할미는 참여하지 않는다.

⑧ 먹두레

두레가 다 끝난 후에 칠석이나 백중 때에 날을 잡아 두레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모여 먹고 노는 것을 말한다. 이 날 품값을 계산한다. 한 집안에서 2인이 두레에 참여할 경우(두슬포)에도 이날은 모두 참여한다.

⑨ 두레의 존속

제보자가 22세까지 두레가 있었다고 한 점에서 40여년 전인 1960년 초까지 지속되었다. 한편 박정희 정권의 새마을운동 이전의 시기에는 제초제는 드물었다. 따라서 이 마을에서는 제초제로 인해 두레가 소멸되지는 않았다.

제보자가 어릴 때에 두레싸움이 있었다. 나무 잘 타는 사람이 상대의 '깃목'을 빼앗으면 이기게 된다. 이것은 상대의 목을 베는 것과 같다. 곧 목을 빼앗겨 가지고 가지 못하게 된다. 만약 깃목을 빼앗기면, 기를 가지고 가지 못하고 버리고 가야 한다. 서로간에 치고 받기도 하고, 농악을 다루어서 승패를 결정하기도 하였다. 이곳 두레가 크기 때문에 다른 부락의 두레가 감히 덤비지 못한다. 한편 풀물(풍장)을 쳐서 그 실력으로 승부를 내기도 한다. (청남면 인양리, 김명하)

(3) 정산면 남천리의 두레와 두레 싸움

① 두레 싸움

두레 때에 이웃 마을과 두레싸움이 있었다. 남천리에서는 새터울(안모동) 두레, 새울 두레, 굴티 두레가 있었으며, 이곳 봉현리에서는 인근의 묘제 두레와 두레싸움을 벌였다.

두레 할 때에 풀물을 치면서 나가면, 이웃 마을의 두레와 마주친다. 이때 자진마춤으로 치면서 상대에게 '기문 열어달라'고 요구한다. 그리고 상대의 3가닥 기줄을 끊으면 싸움이 벌어진다.

두레싸움은 두레가 중지되었던 시기인 60여년 전(제보자가 10살 전후)인 일제 말기에 소멸되었다. 따라서 전쟁 이후에 두레가 일시 복원되었으나, 두레싸움은 복원되지 않았다.

② 두레의 전승

두레는 일제 말에 중단되었다가 35년 전에 소멸되었다. 6. 25 정전 후에 몇 년간 지속 및 중단을 이어가다가 60년대 중반에 소멸되었다.

③ 두레의 목적

두레는 동네의 기물을 준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1마지기 당 얼마씩의 돈을 내놓는다. 이 돈으로 삼베로 만든 체일(천막)을 만들기도 하였다.

④ 두레의 구성

좌상은 나이 든 노인으로 기를 지킨다. 공원은 두레꾼에게 일을 시키며, 싸움을 붙이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똑똑한 사람을 선정한다. 총각마구리, 곧 총각대장은 어른의 심부름을 맡는다. 특히 쑥대와 짚대를 이용해 홰를 준비해서 불을 붙이면 이 불로 어른들이 담뱃불을 붙인다. 이 담뱃불 준비를 총각마구리가 한다.

(공주시 우성면 보연리, 김원중)

(4) 목면 본의 1리 무수동의 두레싸움

약 40년 전까지는 논매기 두레를 하다가 이웃 마을과 두레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마을은 인근의 안심리, 마근동과 주로 싸웠는데, 특히 안심리와 깃발싸움을 많이 했다.

한편 칠월이 되어 두레일이 다 끝나면 칠석 쯤에 '두레먹는다'고 한잔씩 술을 마신다. 이 날 논매기한 논의 크기에 따라 한 마지기에 얼마씩 돈을 걷는다. 자기 동네에서 두레먹으면 이웃 동네 사람들을 청해서 같이 먹는데, 보리술을 먹고서 서로 술에 취해서 싸움을 한다. 두레 먹는 시기는 대개 7월 칠석 쯤에 많이 한다. 두레가 없었진 시기는 약 40년이 넘었다.

(목면 본의 1리 무수동, 김홍식 외)

(5) 장평면 미당리의 두레싸움

미당리 근방 마을은 두레가 아주 컸다. 두레를 할 때에 옆마을인 내직리와 싸움이 붙었는데 내직리가 매우 강한 마을이었다. 풍장을 치고 술을 먹으며 놀다가 예고 없이 깃대를 뽑아 갈라고 쳐들어가면 그 마을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숨겨서 산에도 올라가고, 막았다. 깃대가 길이가 30m 정도가 되는 매우 큰 규모였다. 깃대의 맨 꼭대기에는 수꿩 꼬리를 매달았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하다가 후로 갈수록 격렬한 싸움으로 번졌다. 두레싸움은 두레와 마찬가지로 약 25년 전 소멸되었다. 새마을 운동 전 쯤에 실시했다.

(장평면 미당리, 서기복 · 김평길)

(6) 정산면 송학리의 두레와 두레싸움

① 두레싸움

두레를 할 때에 이웃 마을의 두레와 만나면 두레싸움을 한다. 두레 싸움이 격렬해서 사람이 죽어도 뭐라고 항의하지 못한다. 제보자는 할아버지, 아버지 때에는 많이 했다고 말로만 들었는데, 본인의 생전에는 해 본 경험이 없다. 일제시대 전에 이미 없어졌다. 두레싸움을 할 때는 옆 마을인 해남리와 싸움이 붙었다.

② 두레의 전승

두레는 논을 맬 때에 하고, 모 심을 때나 밭을 맬 때에는 하지 않는다. 두레의 작업 기간은 보통 10일 정도이다. 이 마을에서 두레가 소멸된 것은 약 30여년 전이다. 오영삼 제보자는 30여년 전까지 두레패를 따라 다닌 기억이 있다. 기계화가 되고, 제초제가 도입 되면서 논을 멜 필요가 없어지면서 두레가 사라졌다.

③ 두레의 가입과 참여

두레에는 동네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한다. 일만 잘할 수 있으면 가입한다. 17~18세의 청년은 장정이라 하여 참여가 가능하다. 이 마을의 인원은 50~6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 두레패에 들어가면 술 한 통을 내는 것으로 신고식을 대신한다.

한편 일을 할 때에 나오지 않으면 일정한 품삯을 내놓는다. 한 집안에 한 사람씩 나오며, 여러 명이 있으면 있는 데로 나온다.

다만 여자들은 두레에 참여하지 않고, 밥만 해 준다. 한편 두레 때에 부잣집에서 술과 음식을 내놓기도 한다.

④ 두레의 시기

두레는 논 맬 때 주로 하였다. 논매기는 3번 하지만, 일찍 심으면 2벌 매기도 한다. 처음 매는 것은 땅을 뒤집어 놓는 것

으로 '아시벌한다'고 한다. 아시는 처음 매는 것을 말한다.

늦게 심으면 '무진걸 판다'라고 하여 땅이 딱딱해서 남들보다 늦게 매야 한다. 땅이 딱딱한 것을 팔려면 '무진걸 판다'고 해서 매우 힘들었다.

모내기 때에 두레를 하지 않는 것은 흙물이 모두 틀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때에는 품앗이 형태로 한다. 소서 전까지는 물모라고 한다. 물모라는 건 수도작을 의미한다. 하지 때 모심기를 하는데 하지 전 후 3일이 모심기의 적기이다.

⑤ 두레 작업 방법

모임을 가져 두레 일정을 서로 상의한다. 따라서 "내일은 누구 집에서 하자"라고 일정을 짠다. 일하는 기구는 별도로 없고 주로 호미로 김을 맨다.

아침 7시 쯤에 풍장을 치고 징을 치며, "아무개네 논매기 들어가자"하면 사람들이 모인다. 그리고 기를 들고 논으로 나간다.

논매기를 할 때에도 풍장을 친다. 그래서 악기를 치는 사람은 일 하는 사람과 같이 논에 들어가면, 이들은 일을 하지 못한다.

새참은 아침, 저녁으로 나오며, 술은 수시로 먹는다. 술을 많이 먹으면 술에 취해서 논도 제대로 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주로 나이 많은 어른들이 일을 잘 하라고 몸둥이로 때리는 경우도 있었다. 삽으로 발가락을 찍혀도 뭐라고 하지 못했다. 이것을 두레장수라고 한다.

⑥ 두레풍장

두레 나갈 때 악기를 치는 것을 풍장이라고 한다. 치는 사람들은 풍장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두레풍장은 논 매러 갈 때, 올 때, 모 심을 때에 친다. 논풍장은 '쿵딱 쿵딱' 식의 사물 가락이며, 질긋은 느리게 치는 것으로 올 때와 갈 때, 식사 후 놀 때에 친다.

⑦ 뒤처리

두레일이 모두 끝나면 대개 7월 칠석날을 잡아 하루 논다. 이 날은 술을 먹고 풍장을 치고, 씨름도 하며 논다.

⑧ 품앗이

모내기는 품앗이로 하였고, 논 10마지기 정도는 20명 가량이 하루 일을 해야 한다. 보통 돈이 있는 사람은 품을 사서 모내기를 하였다. 그리고 초가 지붕얹기도 품앗이를 하였다. 박대통령 시절의 새마을사업 때에 지붕개량과 두레가 없어졌다.

품앗이 일이 서로 같지 않아 일을 똑같이 해 주지 못할 경우에는 대신 다른 일을 꼭 해서 보답을 해야 한다. 품앗이를 할 때는 점심도 주고 막걸리도 주며, 요즈음에는 빵도 준다. 한편 보(洑)의 수리는 경작자가 했으며, 특별히 보제는 없었다.

(정산면 송학리, 오영삼 · 이덕종)

(7) 화성면 용당리의 두레싸움

① 용당리의 두레

두레는 150명 이상이 참여하는 큰 형태였다. '두레로 일하자'라고 했다. 다같이 모를 심는 것을 공동묘라고 하였는데 남녀 모두 참여하였다. 일 할 정도 되는 나이의 남자들은 모두 나갔는데 한 집에서 부자(夫子)2명 정도가 나갔다.

나간 횟수를 '품기'라고 하는데 품기가 많으면 나중에 그만큼 돌려 주었다. 반면 자기의 소유는 많은데 품기가 적으면 그만큼 돈을 내야 한다. 두레를 관장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을의 최고어르신이 도맡아서 매년 하였다.

② 두레풍장

악기를 치는 것을 "풀물친다"라고 하였다. 마을 어르신 중에 말씀 잘하시는 분이 두레를 총지휘한다.

악기는 상쇠, 부쇠, 북 1명, 새납 1명, 장구 1명, 징 1명으로 구성된다. 법고는 두레 때는 놀지 않는다.

맨 앞에 농기를 앞세워 움직였는데 농기의 높이는 10m가 넘는 거대한 규모였다. 황색 광목천에 가운데에 검정 글씨로 '농자천하지대본' 이라고 한문으로 적었으며 테두리는 붉은 색으로 수실을 달았다.

기의 머리부분에는 수꿩 꼬리털을 달았는데 그 길이가 40cm정도 되었다. 농기가 매우 크고 무거웠기 때문에 3명의

장정이 양옆과 가운데를 잡고 다녔다.

③ 두레싸움

제보자가 직접 본 적은 없고 아버지 대에서 이야기를 통해서만 들었다. 두레싸움은 100년전 쯤까지 있었다. 지금은 그 자취를 찾아볼 수가 없다. (화성면 용당리, 강연석)

(8) 청양읍 송방리의 두레싸움

모내기와 김매기 철이 돌아오면 각 마을마다 기를 앞세우고 두레놀이가 이루어진다. 두 마을의 두레가 만나게 되는데, 마을의 위신 때문에 서로 길을 양보하지 않아 두레패끼리 싸움이 벌어진다. 더 확대되어 논이나 밭에서 일하는 사람도 합세하여 패싸움이 벌어진다. 처음에는 말로 싸우다가 몸싸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돌과 나무와 호미로 결렬한 싸움이 되어 피도 나고 다치는 사람도 많고 죽은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편은 형두레, 진 편은 아우두레라 하고 아우두레는 형두레가 있는 곳으로 지나가지 못하고 멀리 돌아서만 갈 수 있고 만약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 서로 만날 때에는 동생마을의 두레기는 형 마을의 두레기에 절하여 예(禮)를 지킨다. 아우두레는 형두레한테 두레 싸움이 있기 전 까지는 형 대접을 해주며, 형두레는

으시대며 두레과시를 하였다. 또한 이긴 두레의 마을주민까지도 마을세력을 과시하고 자랑하였다.

(청양읍 송방리, 이서동)

(9) 정산면 덕성리의 두레싸움

이 마을에서는 긴 대나무를 구하기 힘들어 멀리 전라도에 가서 두레 기를 세울 대나무를 사왔고 두레싸움이야말로 마을의 힘과 세력을 과시하는 놀이인 동시에 싸움이다.

(정산면 덕성리, 장광현)

(10) 정산면 대박리의 두레싸움

마을마다 기(旗)가 있어 굵은 대나무로 만들어 무겁고 크기 때문에 혼자 움직이지 못하고 네 사람이 기를 동시에 이동시켰으며, 두레 싸움울 할 때는 기를 넘어뜨리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싸우고 지면 동생이 되어 일년동안 이긴 동네 사람에게 형님같이 모신다.

(정산면 대박리, 정진우)

(11) 대치면 탄정리의 두레놀이

이 마을에서는 모내기, 김매기 등의 공동작업을 할 때, 아침

일찍 집합하여 두레기를 앞세우고 꽹과리, 징, 북, 장고 등의 악기를 울리며 함께 어울려서 일터로 나간다. 두레기는 긴 대나무에 꿩장목으로 깃을 달고 깃발이 너덜너덜 달리는 큰 기폭을 다는데 용을 그리기도 하고,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글씨를 쓴다.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점심 시간 후에도 풍장이 울린다. 일이 끝난 후에도 아침과 같이 두레기를 앞세우고 두레풍장을 치며 논다. 두레가 끝나면 풍농(豐農)을 기원하고 술이나 노래와 춤, 그리고 두레풍장으로 마을전체의 잔치가 벌어진다.

(대치면 탄정리, 복진세)

(12) 청양읍 적누리의 두레와 두레싸움

① 두레의 규모

해방 전후에는 적누리에서 120여명이 참여할 정도로 두레의 크기가 매우 컸다. 마을의 규모가 120호 정도 되어, 각 집에서는 1인이 참여하는 매우 큰 규모의 두레였다.

② 두레의 시기

논매기할 때에 두레를 실시하며, 3벌 매기 곧 만물매기할 때에 두레를 실시한다. 두레는 약 10일 정도 지속했다.

③ 두레 풍장 치기

논매기할 때에 악기 소리에 맞춰 일을 하는데, 상쇠와 구쇠(부쇠)의 꽹맥이, 징, 북, 장구 등의 악기를 친다.

(청양읍 적누리 1구, 노병두)

④ 두레싸움

일제시대에 실시하였는데 그 이후에 없어졌다.

⑤ 두레의 소멸

60년대 새마을운동이 시행되고, 농약이 보급되면서 두레가 소멸되었다.

(13) 남양면 매곡리 1구의 두레와 두레싸움

두레는 주로 논매기할 때에 했다. 보통 두벌매기 할 때에 하며, 이 때에 두레기로 영기가 있었다. 이 두레는 6.25 전까지 있었다. 한편 이 마을에서는 이웃 온암동하고 두레싸움도 했다. 일반적으로 품앗이는 모내기 할 때에 하고, 김매기 할 때에만 두레를 했다. (남양면 매곡리 1구, 최창호)

(14) 청남면 천내리의 두레와 두레 놀기

두레는 여름철 논을 맬 때에 하며, 이 마을에서는 20년 전까지 두레가 있었다.

두레 인원은 80여명 정도 되었다. 나이 제한은 특별히 없이 일할 만한 나이가 되면 참여하는데, 보통 한 16살 정도부터 참여한다. 두레에 들어올 때는 동네에 술을 한 턱 내는데, 그걸 '꽁뱅이 술'이라고 한다.

두레 중에서 좌상은 관리하는 사람으로 나이가 많으며, 좌중의 어른이다. 따라서 일을 잘못하면 벌을 주기도 한다.

두레에 참여하는 데에 가구 당 인원 제한은 없다. 늙어서 못하게 되면 두레에서 알아서 빠진다.

이 동네에는 두레기가 따로 있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글귀가 쓰여 있었다. 일하는 사람들 힘들지 않으라고 풍장을 쳐준다. 풍장은 북, 장구, 꽹과리, 징 4가지이다. 이 동네는 지금은 풍장을 전혀 치지 않는다.

두레가 끝나고 칠월 칠석날에 술을 먹고 노는데, 이것을 "두레 먹는다"고 한다. 여름철에 일하고 이 날 모여서 논 매고 받은 품값을 계산하고, 모두 술 먹고 즐겁게 논다.

(청남면 천내 2리, 전철규)

(15) 목면 본의 2리의 두레와 두레놀이

이 지역은 벼농사를 주로 지내는 마을로, 30여년 전까지 두레가 있었다. 인원은 보통 40~50명 정도였으며, 일제시대에 많을 때에는 60~70명까지 되었다. 6. 25 이후에 인구가 줄고, 잡초를 뽑는 기계가 나오고, 제초제가 나오면서 두레가 없어졌다.

나이가 적을 때는 15살 이상, 보통 20살 이상의 남자들이 참여한다. 두레에는 총각대장이 있고, 별도로 제일 어른이 있었다.

두레는 논을 매는데 이루어졌다. 모를 심고 보름이나 20일이 지나면 아시 메고, 이어서 두벌, 세 번 멘다. 두레를 할 때에는 호미를 들고 나오며, 풍물패를 만들어 나가서, 풍물을 치면서 논을 멘다.

이 동네는 예전에 세도 있는 양반이 살았던 마을로, 현감도 살았던 곳이다. 그래서 이웃의 광신리까지 두레를 나갔다. 양반이라고 해서 세도를 하도 부려서 마을 사람들이 꼼짝 못했다고 한다. 이 마을에서 두레싸움은 보지 못했다.

(목면 본의2리, 김천식)

3. 청양의 집단놀이

(1) 청양의 쥐불놀이

① 청양읍 적누리의 쥐불놀이

정월 대보름에 아이들이 '쥐불놀이 하자'고 하면, 깡통을 이용해 쥐불놀이를 하였다. 그러나 일제시대에는 깡통이 흔치 않았다. 다만 제보자는 홰를 돌리는 일은 보지 못했다고 한다.

한편 제보자가 20세 미만의 시절에 이웃 동네와 심하게 쥐불놀이 싸움을 한 적이 있다. 이곳 적누리는 인근의 정좌리, 금용리와 서로 맞붙었다. 쥐불놀이 싸움은 매우 격렬해서 부상을 입는 경우도 많았다. 밤에 맞붙을 때에는 막대기도 휘두르고, 돌과 흙을 던지면서 심하게 싸웠다. 이때 공비토벌을 하듯이 산으로 기어 올라가 상대를 몰은 적도 있다. 이곳의 지형이 약간 높아서 상대적으로 유리했다. 다치는 경우는 있었으나, 이것으로 인해 상대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식의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불을 던지거나 몸에 대지 않기 때문에 옷에 불이 붙는 경우는 없었다. 한편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 놀이는 어두울 때에 시작해서 약 3~4시간 정도 지속되었으며, 늦어도 12시 경에는 끝이 났다.

한편 이곳은 넓은 들을 끼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지만, 예전부터 줄다리기는 실시하지 않았다.

(청양읍 적누리 1구, 노병두)

② 남양면 매곡리의 쥐불이 싸움

쥐불이싸움(쥐불놀이)은 정월 대보름에 깡통에 불을 붙이고 돌리거나, 빗자루 형태의 횃대에 불을 붙이고 돌리면서, 이웃 동네와 서로 싸우는 놀이이다. 이 마을에서는 인근 매곡 2리와 서로 맞붙었다.

이 놀이는 45~46년 전까지 하였으며, 이후는 조금씩 바뀌다가 95년 12월 5일에 전기가 들어오면서 차츰 없어졌다. 특히 근래에 아이들이 없다보니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남양면 매곡리 김기창, 이향각, 최창호)

③ 비봉면 신월리의 쥐불놀이

정월 대보름날에는 깡통을 매고 하는 '쥐불여'라고 했다. 이웃 동네인 목맹이, 안부동 아랫동네 애들과 싸웠다. 보름날의 쥐불싸움은 있었으나, 이 마을에서 논매기할 때에 두레싸움은 없었다.

(비봉면 신월리 1구, 조성매 외)

④ 청남면 상장리의 쥐불싸움

이 마을에서는 정월 보름에 이웃의 아산리하고 쥐불싸움을 했다. 논두렁에 불을 놓고, 돌을 던지거나, 깡통을 던지면서 싸웠다. 이것은 옛날부터 하던 놀이로, 한 편이 20~30명씩 편을 지어 이웃 마을과 크게 싸웠다. 동네의 김인수씨 집안의 장광(장독)이 다 부서진 적도 있다. 한 쪽이 도망가면 지는 것으로, 쫓아가는 편이 이기게 된다. 남자 아이들이 재미로 하는

놀이이다. (청남면 상장 1리, 우성림)

⑤ 청남면 천내리의 쥐불놀이

정월 보름날 아이들이 모여 뚝에서 쥐불놀이를 했다. 이것은 횃불놀이, 혹은 충 태우기라고 하는데, 쥐나 해로운 벌레 등을 태워버리는 의미가 있다. 제보자(현재 85세)가 어렸을 적까지는 했으나, 요즘엔 화재의 위험이 있어 하지 않고 있다.

(청남면 천내리 전철규)

⑥ 목면 본의2리의 쥐불놀이

40년 전 까지만 해도 쥐불싸움이라 해서 깡통놀이를 했다. 통조림 통에 솔나무(광술)을 넣어서 돌리며 놀았다. 아이들은 10년 전에도 가끔 쥐불놀이를 하기도 했는데, 산불조심 때문에 지금은 하지는 않았다. (목면 본의2리 김천식)

⑦ 정산면 송학리의 쥐불놀이

정월 대보름날에 하는 놀이이다. 논두렁에 풀이 우거지면 병충해를 방지할 겸 불을 놓아 태운다. 이때 쥐불놀이도 같이 하게 된다. 짚푸라기, 닭똥 , 소금등을 깡통에 넣고 불을 놓는다. 그러면 닭똥이 호도독호도독 소리를 내며 튄다. 아이들은 깡통을 돌리면서 노는데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송학리에서는 해남리쪽으로 해남리에서는 송학리 쪽으로 모여들어 경계선까지 서로 막으며 계속 깡통을 돌리면서 신경전을 벌인다. 논에 쥐불놀이 한 것이 다 타게 되면 동화제를 시작한다.

정월 14일에 송학리에서는 동화제를 하는데 동화제때 쥐불놀이를 하였다.

옛날에는 몽당 빗자루를 돌렸는데 요즘에 깡통으로 변했다. 대를 가지쳐서 빗자루를 만든다. 달이 떠오르면 돌리면서 놀다가 불을 피운다. (정산면 송학리, 오영범·이덕종)

⑧ 화성면 용당리의 쥐불싸움

정월 보름날 밤에 짚으로 만든 홰에 불을 붙여서 돌리면서 논다. 논둑과 들에 모두 불을 놓았다. 옆마을인 방한리에서도 놀러 오곤 하였는데 상대방의 화력이 세면 도망가고 쫓아가고 하면서 놀았다. 쥐불놀이와 쥐불싸움은 6·25 때 이후로 많이 쇠퇴하였다. (화성면 용당리, 강연석)

⑨ 비봉면 녹평리의 쥐불싸움

정월 대보름날에 쥐불싸움을 했다. 옆마을인 강정리와 싸움이 붙었는데 17~20세 되는 소년들이 "와~" 하는 함성을 지르며 상대마을로 횃불을 들고 쳐들어 갔다. 깡통에 소나무 꺾은 것들을 넣고 불을 피웠는데 마구 돌리면서 놀았다. 이 놀이는 6·25 직전까지 행해지다가 소멸되었다.

(비봉면 녹평리, 명제헌·최순길)

⑩ 화성면 장계리의 쥐불싸움

솔나무 광솔을 따다가 깡통에 넣은 뒤 불을 붙여 돌리고 놀았다. 돌리면서 놀다가 이 동네, 저 동네에 싸움을 하러 다녔

는데 이 곳 장계리에서는 합천동네인 화강리와 싸움을 많이 했다. 쥐불싸움은 약 30년 전까지 했지만 현재는 소멸되었다.

(화성면 장계리, 이순이)

⑪ 운곡면 후덕리 대동마을의 홰싸움

정월 대보름에 하는 놀이이다. 홰는 솔가루(소나무 잎새를 빻은 것)를 넣고 짚을 여러 번 묶어서 1m 정도의 길이로 만든다. 홰를 빙빙 돌리면서 놀게 되는데 이 놀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부락간의 대결로 번지게 된다. 이때 싸우다가 상대 부락의 불씨를 뺏어오게 되면 그 뺏어온 마을에서는 풍년이 들고 뺏긴 마을에서는 흉년이 든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소년, 청년들은 꼭 이기기 위하여 애썼다. 1950~60년대까지 행했던 놀이이다. (운곡면 후덕리 대동마을, 명효식)

⑫ 정산면 덕성리의 횃불싸움

정월14일 밤이 되면 마을 어린이와 젊은이들은 미리 준비한 길이 두 자정도의 쑥으로 만든 횃불을 가지고 여러 명이 논둑, 밭둑, 냇둑을 따라 불을 지른다. 이러다가 어느 지점에 이르러 다른 마을의 쥐불꾼과 만나게 되어 쑥으로 만든 불쏘시개로 횃불싸움이 벌어진다. 처음에는 횃불을 던지며 싸우다가 돌을 던지기도 하고 몸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 다치는 사람이 많으나 놀이의 성격이 강하므로 다음날 치료비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한다. 먼저 도망가는 마을이 지게 된다.

(정산면 덕성리, 장광현)

⑬ 청양의 쥐불놀이

청양지방의 농가에서는 옛날부터 쥐불놀이를 해왔다. 음력 정월 첫 자일(子日)을 쥐날이라 하여 농가에서는 이날에 방아를 찧으면 그해 쥐가 없어진다는 속설이 있어와 밤중에 부녀자들이 빈방아를 찧은 일이 있다.

또한 농촌에서는 쥐불이라 하여 이날을 마을마다 청소년들이 자기네 동네 부근에 있는 밭둑이나 논둑에 불을 질러 잡초를 태운다. 들판에 불을 놓는 까닭은 쥐의 피해와 논밭에 해충을 제거하고 새싹이 잘 자라게 하는데 있다. 불은 사방에서 일어나 불바다를 이루어 장관을 이룬다. 이날 쥐불이 잘 타야 풍년이 든다고 믿어왔다.

그리고 각 마을별로 서로 다투어가며 화세를 떨치는 풍습이 있어왔다. 그리하여 다른 마을 사람들과 마주치거나 또한 쥐불싸움이라 해서 다툼도 일어나는 일이 있어왔다.

(≪청양의 민속≫, 청양문화원, 1994.)

⑭ 기타 지역의 쥐불놀이

● 비봉면 녹평리의 쥐불놀이

쥐불의 크기에 따라 다음해의 흉, 풍년을 가늠하므로 가능하면 크게 지르나 다른 마을에서 붙인 불은 자기 마을에 넘어오면 나쁘다하여 마을의 둘레를 경계하면서 쥐불놀이를 하였다고 하는 속설이 있다.

(비봉면 녹평리, 유향준)

● 정산면 백곡리의 쥐불놀이

이 지역에서는 여자의 경우에 밥을 할 때 앞치마, 치마 자락을 태우지 않고 남자는 담뱃불로 옷을 태우지 않는다고 하여 쥐불놀이를 하였다. (정산면 백곡리, 유동조)

● 정산면 광생리의 깡통 돌리기

정월14일 어린이들이 사이에서 주로 성행했고 깡통에 구멍을 내고 그 안에 송진이 많은 소나무의 옹이인 관솔이나 마른 나무 가지를 넣은 다음, 철사 줄이 길게 달아 불을 지르고 온 마을을 휘젓고 다니며 돌린다. 깡통을 던져서 누가 높이 던지냐에 따라, 깡통을 던져 불꽃의 화려함으로 승패가 결정된다.

(정산면 광생리, 임칠성)

● 운곡면 신대리의 깡통싸움

남자는 일찍 아침밥을 먹고 나무 아홉 짐을 하고 저녁을 일찍 먹기 시작해서 아홉 사발을 먹고 그 후 쥐불놀이를 한다. 세 군데에 불을 지르고 "쥐불여, 쥐불여"하면서 놀이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쥐불꾼과 만나 깡통을 던져가며 깡통싸움이 벌어진다. (운곡면 신대리, 김영자)

● 대치면 대치리의 쥐불놀이

쥐불놀이는 남자아이들이 정월 보름에 놀던 불놀이이다. 여자들은 참여하지 않는다. (대치면 대치리, 강재금)

(2) 장치기

① 정산면 남천리의 공치기

이곳에서 공치기는 나무를 하러 가는 젊은들이 주로 황덕굴에서 실시했다. 공을 치는 작대기는 지게 작대기 중에서 구부정한 것을 사용하며, 칠 때에는 작대기를 눕혀서 사용한다. 주로 음력 3~4월의 늦은 봄철에 공을 많이 치며, 대략 15~20명이 편을 나누어 시합을 한다. 공은 소나무를 깎아서 사용하는데, 예부터 소나무는 '부엉이가 방구 낀 나무'라고 알려져 있다. 경우에 따라 짚으로 만든 짚공을 만들어 치는 경우도 있다.

시합 방법은 중앙선에 공을 놓고 양쪽 선을 넘어가는 편이 점수를 얻는다. 처음에 시작할 때에 '따굴'이라 하여 중앙선에서 양편 대표 선수가 등을 대고 서로 서서 작대기로 서로 3번을 친 다음에 돌아서서 공을 친다. 이때 동작이 빠른 사람이 먼저 공을 치게 된다. 승패는 몇 골을 넣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고 1골씩 넣으면서 점수가 쌓이고 일정한 시간에 많이 넣는 편이 이긴다. 골을 넣는 시간은 금방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10~20분이 되어도 잘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한편 시합 중에는 작대기로 상대의 몸을 가격할 수 없다.

이 공치기는 제보자가 20세까지 놀았던 기억이 있다. 대략 49년 전까지 놀았으며, 환산하면 6. 25 정전 이전까지 놀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지게 위에 올라가 지게걸음을 하면서 놀았던 기억도 있다.

(공주시 우성면 보연리, 김원중)

② 장평면 낙지리의 공치기

나무를 한 짐씩 해 놓고 두 팀으로 나누어, 지게 작대기로 나무공을 치면서 노는 놀이이다. 공은 소나무를 잘라서 주먹만한 크기로 만든다. 한 패는 내려치고, 한쪽 편은 올려치면서 노는데, 범위가 너무 넓어서 쉽게 끝나지 않아, 밤 늦게까지 놀게 된다.

주로 안장고개 근처에, 도랑이 있고 고개가 있는 곳에서 많이 놀았다. 놀이는 가운데에 공을 놓고 반대편을 향해서 치는 것으로 시작해서, 상대방의 공대에 공을 넣는 편이 이기게 된다. 사람의 수를 봐서 편을 나누고 구멍을 파서 놀이를 한다. 양쪽 끝의 가운데에 금을 그려서 공이 여기를 넘어가면 이기는 놀이이다. 15~17살까지 논 기억이 있다.

(장평면 낙지리 윤갑중, 심윤섭)

사람이 지킴			사람이 지킴

③ 장평면 분향1리의 공치기

두 편으로 갈라서, 둥근 나무공을 생나무로 쳐서 날리며 노

는 놀이이다. 상대 골대에 쳐서 상대편이 받으면 죽고, 받지 못하면 한 점씩 먹게 된다. 상대 골대는 중앙에서 약 10미터 정도 거리에 위치한다. 공을 치는 생나무의 길이는 약 1미터 정도였다. 공에 맞아서 눈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놀이이다. 이 놀이는 골프 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한다.

주로 근처 망월산의 평평한 곳에 가서 놀았다. 이기고 지는 것은 어느 편이 공을 더 많이 받았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이 놀이는 먹고살기 힘든 일제시대에 놀았기 때문에 내기 같은 것은 없었다. 놀다가 나무를 해 가지고 내려오기도 한다.

(장평면 분향1리 조민행)

사람이 지킴	〈— 간격10m —〉	〈— 간격 10m —〉	사람이 지킴

④ 장평면 미당리의 공치기

원래 장치기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공치기'라고 하였다. 인원은 모인 사람에 따라 바뀌지만 8명이 4 : 4로 붙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계절에 상관없이 주로 나무하러 산에 올라가서 이 놀이를 하며 놀았다. 끝이 휜 나무막대를 만들어서 공을 치면서 논다. 공은 소나무를 깎아서 주먹 2개 정도의 크기로 만들었다.

(장평면 미당리, 서기복 · 김평길)

⑤ 정산면 송학리의 공치기

정월이나 해가 긴 늦은 봄 때 많이 놀았던 놀이이다. '하송'이라고 하는 윗솔티 마을에 '공바탕' 이라고 공치기를 하는 장소가 있었다. 솔나무를 동그랗게 만들어서 공을 만들고 지게 막대를 가지고 공을 치며 놀았다. 인원은 대중이 없었지만 대게 4~5명씩 편을 나누어 놀았고 연령대는 소년부터 노인들까지 다양하였다. 일정한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넘으면 이겼다. 상대편은 공이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작대기로 막는다. 이 놀이는 50여 년 전까지 하던 놀이로 6 25 후에는 없어졌다.

(정산면 송학리, 오영범)

⑥ 화성면 용당리의 공놀이

날이 좋은 봄에 주로 많이 하였다. 산으로 나무하러 간 소년들이 주로 하는 놀이이다. 편평한 산등성이 공간에서 놀았다. 인원은 대중이 없고 모인 사람끼리 편을 짜게 된다. 짚으로 만든 새끼를 꽁꽁 말아서 주먹만한 크기로 공을 만든다.

공은 지게 작대기로 치고 놀았는데 한발이 더되는 길이에 끝이 휘어져 있으면 공을 치기 좋다고 하며 공치기 할 때의 이 작대기는 '공채'라고 하였다. 공채로 공을 일정한 선 이상 넘기면 이기는 놀이이다. 6·25 전까지 많이 놀았다.

(화성면 용당리, 강연석)

⑦ 온곡면 후덕리 대동마을의 공차기

따뜻한 2~3월 중에 하는 봄놀이이다. 소나무로 만든 공을 가지고 지게 작대기로 그 공을 쳐서 하는 놀이이다. 나무하러

산에 다니는 15~20세 소년들이 주로 하는 놀이였는데 머슴들이 많이 했다.

일정한 선을 긋고 편을 짜서 공을 그 선 밖으로 차는 쪽이 이기는 내기 놀이였다.

(운곡면 후덕리 대동마을, 명해동 · 명효식 · 명제빈)

⑧ 대치면 탄정리 장치기

이 놀이는 농촌 청소년이나 나무꾼들이 나무를 하러 갔다가 즐겨 하던 놀이로 30~4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었다. 넓은 산 위 평평한 곳이나 들판에서 많이 실시하였다. 이 장치기를 지방에 따라 나무 공치기, 공치기, 타구놀이, 장채놀이, 얼레공치기 라고 하고 한자어로 봉희(棒戱) 라고 한다. 본 지역에서는 "딱공치기" 라고 부르며 눈은 빠져도 공은 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농촌 청소년들 사이에 가장 성행하였던 놀이였다.

(대치면 탄정리, 복진세)

⑨ 정산면 덕성리의 장치기

놀이 용구로는 소나무 옹이로 만든 주먹만한 장치기 공, 끝이 골프채와 같이 구부러진 장치기대 아니면 작대기를 사용한다.

놀이의 방법은, 멀리 쳐내는 형태로 힘 겨루기의 놀이이다. 소나무를 뽑아서 하키 스틱과 같이 만들어 3자 정도의 크기로 장치기대를 가지고, 깨지지 않는 나무옹이로 만든 장치기공을 쳐서 누가 멀리 나가게 하는가에 따라 승부를 겨룬다.

(정산면 덕성리, 장광형)

⑩ 목면 안심리의 장치기

오늘날의 필드하키와 유사한 놀이로 편을 나누어 장치기대로 공을 서로 연락하여 돌로 만든 골문에 넣음으로써 승부를 결정한다. 골문의 크기는 경기장의 크기에 따라 대충 정하였고 옆선을 그어 공을 쳐 나가면 상대의 공이 되었다. 또 골문지기가 있었는데 가장 큰 선수가 주로 맡았으며 공을 몰고 갈 때에는 서로 "얼러 얼러" 하고 힘차게 소리를 지르며 경기에 임하였다. 규칙중에 '오여장' 이 있어 오여장일 때는 막아서도 안되고 막으면 그 선수를 때려도 무방하다고 한다. 매우 격렬한 놀이로 부상자가 많았다고 하고 이때 나무를 대신 해주기, 날라다 주기 등으로 내기를 하였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3) 걸 립

① 청남면 동강리의 걸립

산신제를 지내기 위해 산제당에 올라가서 다음 날 새벽에 닭이 운 다음에 내려온다. 그리고 풀물을 치면서 동네 각 가정마다 돌아다니며 지신밟기를 한다. 이때 쌀을 성의껏 받아 동네의 기금으로 사용한다. 소지는 마을의 남자만 올려준다.

(청남면 동강리, 한호분3 · 윤치순 · 김방순)

② 목면 본의 1리 무수동의 걸립

정초에 부락에서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걸립을 한다. 2개의 영기를 앞세우는데, 농기는 두레할 때에만 들고 나간다. 농기에는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쓰여 있다. 영기는 테두리가 파란색이고, 가운데는 하얀색 바탕에 검정색으로 '슈'이라고 쓴다. 영기 뒤에는 '날날이'를 부는 사람이 따른다. 다음에 상쇠, 부쇠와 징, 장고, 북잽이가 따른다. 법고가 있는데, 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다. 면 단위 대회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두 사람이 아이를 어깨에 메고서 다니며 무동을 타기도 한다. 이것을 꽃내비라고 한다.

걸립은 길면 5일 동안 실시한다. 부락에서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한 충분한 돈이 걷힐 때까지 계속한다. 예를 들어 100만원이 필요하면, 이 돈이 다 걷힐 때까지 걸립을 한다. 풍장은 동네 사람들이 치며, 모든 집을 다 방문한다. 이곳에서는 본의실과 같이 걸립을 했다. (목면 본의 1리 무수동, 김홍식)

③ 청남면 인양리의 걸립

걸립은 1월 12일~13일 2일간에 걸쳐 실시한다. 이곳은 동네가 크기 때문에 2일에 나누어 실시하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한 집에 오래 머무르지 못한다. 따라서 한 집에 대략 20~30분씩 머무르며, 마당 - 부엌 - 장광(장독대) - 샘 - 마당의 순서로 이동하며 친다. 부엌에서는 조왕을 위하고, 장광에는 당산을 위하며, 샘에서는 샘제를 지낸다. 제보자는 샘제의 가락이

보통 가락과 틀리다고 하며, 다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부엌과 장광(장독대)에서 하는 가락은 동일하다고 한다. 각 가정에서는 돈과 쌀을 내 놓으며, 이것은 마을 기금으로 사용한다.

(청남면 인양리, 김명하)

④ 대치면 대치리의 걸립

정초에 걸립 할 때에도 풀물을 쳤다. 보통 1월 3일에 치며, 이 때에 각 집에서는 보통 1말 정도의 쌀을 내 놓는다. 이렇게 모은 쌀은 자루에 넣어서 화주 집으로 옮긴다.

(대치면 대치리, 염태섭)

⑤ 청양읍 적누리 1구의 걸립

정초에 걸립을 할 때에 각 집집마다 다니며 풍장을 친다. 이 때 각 가정에서는 쌀을 1말, 또는 5되를 내놓는다. 제보자는 걸립의 경험은 없고, 20대 초반까지 걸립을 구경 한 적이 있다. 따라서 정초의 걸립은 40여년 전에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청양읍 적누리 1구, 노병두)

⑥ 남양면 매곡리 1구의 걸립

정월 보름과 16일 날에 풀물을 치면서 집집마다 다녔다. 이 때 각 집안에서는 쌀 1말을 '불반이'(촛불반이 쌀)로 담아서 내 놓았다. 이것을 걷어서 동네 기금으로 사용했다.

(남양면 매곡리 1구, 최창호)

⑦ 청남면 상장리 1구의 걸립

걸립은 간혹 하는 경우도 있다. 마을에 사정이 어렵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거의 하지 않는다.

(청남면 상장리 1구, 우성림)

⑧ 청양군의 지신밟기

청양군 비봉면의 경우 정월대보름에 지신밟기를 한다. 동네 어른들이 풍물을 치면서 집집마다 돌며 방문한 집에 부정이 없고 집안이 평안하기를 비는 것이다. 또한 정월보름에는 1년의 신수를 보기 위해 토정비결을 보거나 무당을 찾아가 한해의 운수를 점치기도 하였다. 보름날 즐기는 놀이로는 줄다리기, 연날리기, 윷놀이, 농악놀이가 있다. (≪청양군지≫, 1995)

(4) 범놀이

① 2002년 현지조사한 범놀이

장평면 도림리마을에는 범놀이가 전승되는데, 이것은 범의 형태를 만들어 노는 놀이이자, 집안의 액운을 쫓는 신앙의 형태이다.

유래와 역사는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매우 오래전부터 전해왔다. 다만 밤놀이는 도림의 놀이라기 보다는 마제마을에서 전해왔기 때문에 '마제범놀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범놀이는 도당리에서 매해 정월보름마다 빠짐없이 했던 놀이이다. 보름이 되기 3~4일 전쯤 시작하여 열 나흗날 밤까지 끝냈다. 보름날 당일은 범놀이를 하지 않았다. 보름날은 조용히 보내는 날로 여겼기 때문에 시끄럽게 놀지 않았다. 14일을 보름날로 간주해서 모든 것을 다했고 '자기 집 와주기 바라는 날'로 여길 정도로 범놀이를 많이 했다.

범을 만드는 방법을 보면, 한 발 정도 되는 긴 지게작대기 2개를 묶어서 두발이 되게 한다. 그리고 두 장정이 그 작대기를 다리 사이에 끼고 허리를 구부린다. 이어 구부린 장정의 등 위로 맥방석을 뒤집어 씌운다. 범의 머리는 짚쑤시미로 만든다.

그리고 짚을 뭉쳐서 얼굴형태를 만들고 창호지를 뒤집어 씌워 눈을 그려 넣는다. 이때에 짚은 썩지 않고 묵은 짚을 사용한다. 여기서 눈이나 범 무늬 등의 문양은 짚을 태워서 그 재를 먹과 같이 갈아 만든 물감으로 칠한다. 범 엉덩이 쪽에는 꼬리도 만들어 끼우는데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한다. 다 만들어진 범은 실제 호랑이와 같을 정도로 무서운 모습이다.

진행 순서 및 방법을 보면, 우선 범의 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범의 모양을 완성시킨다. 이때 들어가는 사람은 힘이 좋은 장정이라야 했는데, 그 이유는 2~3일간 온 동네를 돌며 많은 힘을 소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범놀이를 관장하는 사람을 '호장'이라고 하는데 범놀이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다. 호장이 "입을 벌려라" 라고 호령하면 범은 그대로 지시에 따라야만 한다. 호장은 주민을 이끌 줄 알아

야 하기 때문에, 말주변이 뛰어난 사람으로 엄선하여 뽑는다.

호장이 가장 앞에 서고 그 다음으로 범이 선다. 그 뒤로는 풍물을 치는 사람들이 뒤따르고, 마지막으로는 마을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따라붙는다. 여기서 풍물을 치는 악기잽이들의 구성은 깽맥이(쇠)2명, 북, 장구, 징 각각 1명씩이다.

집집마다 빠짐 없이 들어가 노는데 만약 빠뜨리는 가구가 있으면 그 집에 액운이 따른다 하여 매우 불길하게 여겼다. 따라서 마을의 모든 집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린다. 범놀이패가 오면, 집주인은 문을 활짝 열어 놓고 환대한다. 도착한 범놀이 패는 마당을 한바퀴 돌고 제당 앞에서 고사를 지낸다. 마당에는 멍석을 깔고 상을 피고 쌀 1말을 사발에 받아놓고 가운데 초를 하나 꽂아둔다. 그리고 정수물을 한 그릇 받아놓는다.

상 위의 제물은 모두 범놀이 하는 사람이 갖게 된다. 돈은 주고 받는 일이 거의 없었다. 고사를 지낸 다음 풍물을 치며 그 집의 장광으로 들어가 "이 집의 운수대통을 빕니다" 하고 장광제를 지낸다. 그 다음으로 부엌으로 가서 소도방(솥뚜껑)을 열어놓고 조왕신을 위한다.

놀다가 점심 때 쯤이 되면 밥을 얻어먹기 위하여 마을에서 부유한 집을 방문한다. 가면 자연스럽게 마을잔치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다같이 어울리는 시간이 만들어졌다.

호별로 도는 순서는 마을의 서쪽에서부터 시작하여 동쪽으로 도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마을의 위쪽부터 밑으로 내려

가기도 하였다. 범을 만든 집에서 가장 먼저 범놀이를 시작하는 것이 상식이었다.

놀이가 끝나면 범을 모두 해체를 시킨다. 지게 작대기는 주인이 도로 가져가고, 짚도 귀했기 때문에 따로 챙겼다.

범놀이는 한 해라도 빼놓으면 큰일이 난다고 하여 계속 했지만 6·25를 전후로 하여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쇠퇴하여 갔다. 이것이 없어진지는 약 30년 가량이 되었다.

(장평면 도림리, 강영순)

② 기존에 조사된 범놀이

㉠범놀이의 개관

충남 청양군 적곡면 적곡리 도림마을에서 행했던 범놀이는 정월 대보름날에 마을 사람들이 액을 막으며 즐기는 달맞이 행사였다. 이 놀이는 마을의 재난을 몰아내는데 목적이 있다. 신신령의 사자인 호랑이를 보내어 집집을 방문케 하여 마을에 재난이 없어지고 풍년을 약속하게 된다.

㉡놀이의 과정

먼저 멍석을 뒤집어 쓴 두 사람이 등장한다. 멍석 위에 흰 헝겊과 검은 헝겊을 찢어 흑백무늬를 붙이고, 짚과 헝겊을 섞어서 머리와 꼬리를 만들어 작대기 끝에 잡아맨다. 이렇게 만든 호랑이를 앞세우고 호장의 구령에 따라 집집을 방문하면서 농악을 울리며 흥겹게 노닌다.

호장이 '산신령 문안이오'하면 주인이 나와 영접을 한다. 호랑이가 머리를 흔들면서 인사를 하면 주인을 머리를 숙이고

다음은 호랑이가 앞장서서 뒤곁으로 가서 앞발을 들고 머리를 끄덕이고 뒤따라온 농악이 장광을 빙빙 돌면서 풍장을 치면 집주인이 음식을 장만한다.

마을 사람들은 농악에 따라 흥겹게 춤을 추고 간단한 음식과 술은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신 다음 좋은 음식은 쓸어 담고 다음 자리로 집을 옮긴다. 돌아다니다가 샘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샘제까지 지낸다. 샘물 속에 흑백의 줄을 잘라서 넣어준다. 산신령이 액운을 없앤다는 표살(表薩)로 샘제를 지내고 나면 마을 사람들은 한 장소에 모여 음식이 차려지고 술이 나오면 범은 앞발 뒷발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흥겹게 춤을 추고 마을 사람도 따라서 춤을 추며 밤새 마시고 노는 것이다.

㉢놀이의 특징

순수한 벽사진경의 놀이로서 그 목적은 사자놀이와 다를 것이 없다. 위 놀이에서 호랑이는 산신령으로 등장한다. 그는 마을을 보호하는 수호신이다.

(출전 : ≪내고장 청양≫, 청양군, 1981, 170쪽./ 윤광봉, 〈호랑이 설화와 연희〉, ≪비교민속학≫ 14집 , 비교민속학회, 1997. 5. 124~125쪽.)

(5) 꼬댁각시놀이

① 2002년 현지 조사한 꼬댁각시놀이

꼬댁각시는 보편적으로 '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놀이의 성격보다는 오히려 '노래'의 성격이 강하다.

이것은 원통하게 죽은 꼬댁각시를 달래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이것을 '성춘향을 놀린다(논다)'라고 하는데, 이는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성춘향의 구구한 운명을 달래는 노래이기 때문이다.

16세 전후의 시집 안 간 젊은 동네 처녀들이 한 방에 모여 앉아 노래를 부르며 합창한다. 어느 때나 상관없이 했고, 심심한 처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

노래를 부르던 중, 한 처자가 성춘향의 혼이 담겨서 신이 들리게 된다. 그는 주위사람들이, 예를 들어, "시집 가장 빨리 갈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어보면, 그 중 한 사람을 지목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꼬댁각시는 제보자 정일순씨가 온암리로 이주하여 9살 때부터 봤던 놀이로 없어진지 60년 정도가 되었다. 따라서 1940년대까지 이런 놀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온암리 주민인 옥분이(여, 74세)씨는 홍성에서 온암리로 시집을 왔는데, 홍성지방에서도 꼬댁각시를 부르며 놀았다고 한다. 노래는 성춘향 노래, 타향살이, 거북선 노래 등을 불렀다.

<꼬댁각시 노래>

꼬댁 꼬댁　꼬댁 각시
한살 먹어　어멈 죽고
두살 먹어　아범 죽어
세살 먹어　걸음 되고
네살 먹어　말을 베어
삼촌 집에　찾아가니
삼촌 숙모　밥하다가
부줏깽이　날라오네
삼촌한테　찾아가니
서당에서　글을 읽다
천둥같이　호령하네
아이고 담당 설움지고
다섯 살이 먹었을 때
짚만 남은　삼베 적삼
말만 남은　베치마에
꺼끄리고 이집저집
문전걸식 다니다가
여섯 살이 먹었네요
시집이라고 가고 보니
고자낭군　얻었노라
아이고 담당　설움지고
이내 신세　어찌 하리
불상하고　가련하니
꼬댁 꼬댁　꼬댁각시

<28청춘 성춘향이>

이팔청춘 성춘향이
18세 어린나이에
염라대왕 가고보니
한숨이 철이 나네
한이 되고 원이 되어
이 가정에 들어왔으니

<베짜기 놀이> (베를 짜면서 여자들이 부르던 놀이이다)

엄말도 하심심하기에
베트는 노래나 불러보세
에헤야 데헤야아~
낮에 짜이면은 일본단이요
밤에 짜면은 월광단이라
에헤야 대헤야~
일광단 월광단 다 짜놓고
수심 노래나 불러보세
에헤야 댜해야~
아이야라난다 대해라야
이것도 내 사랑이로다

<달은 밝고 명랑한데>

달을 밝고 명랑한데 산보를 가니
어여쁜 여자 하나 오똑 섰구랴
골목을 마주잡고 악수 하니
너는 여자 나는 남자 연분이로다

이 노래는 동무들끼리 놀 때 부르던 놀이이다.

(남양면 온암리, 정일순)

② 기존 조사된 꼬댁각시놀이

㉠ 시기

농한기의 겨울철의 밤중에 주로 방안에서 놀던 놀이이다. 대략 한가위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정월까지 이어진다.

㉡ 참여자

주로 젊은 미혼의 처녀들이 노는 놀이로, 참여자는 제한이 없지만, 10명을 넘지는 않는다. 10명 이상이 되면 주위 집중력이 떨어진다.

㉢ 전승지역

청양군 남양면 매곡리와 온암리 지역에서 전승하고 있다. 이곳은 성태산 밤재에서 갈라진 2개의 산맥 안에 들어가는 산촌으로, 열두매기가 있다. 열두매기는 매곡리의 텃골, 사당골, 안골, 소란말, 네뜸, 그리고 온암리의 돌보, 샛뜸, 이암동의 절골, 양골, 연고지, 아랫들, 그리고 감나무골(가채골)로 구성되어 있다.

㉣ 전승배경

이 놀이가 성행한 이암동 지역에는 예전에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다. 주로 폐결핵에 의해 세상을 떠나는데, 인근의 금광인 구봉광산에서 막장일을 하던 동네 젊은이들이 이 병에 걸리면서 마을에 퍼지게 되었다.

이 마을에는 1950년부터 1965년까지 결혼하지 않은 마을의 젊은 남녀가 몇 명이 폐결핵으로 사망했다. 특히 예전에 결핵에 걸려 죽었던 처녀가 죽기 전에 이 놀이를 잘 했다고 한다. 결핵에 걸린 처녀는 창백한 얼굴색에 마른 몸집을 지닌다. 그

처녀가 몽롱한 정신으로 감정에 겨워 꼬댁각시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면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자주 있었다.

◎ 진행과정

신 내림을 받을 사람과 부추기는 사람, 여럿이 구성되어야만 진행할 수 있다. 꼬댁각시 타령을 구슬프게 읊는 주술자가 있어야 한다. 감응이 일어나지 않는 주술자는 '춘향아! 춘향아! 이팔청춘 성춘향아!'를 연이어 부르며 신명을 돋운다.

신이 오르면 처녀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수건돌리기를 해서 맞춰 내는 신통한 능력을 지니게 된다.

신내림은 합장을 하던가, 손수건을 떨어뜨려 잡거나, 잎이 달린 참나무나 대나무를 신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 합장하기 : 손가락 사이에 은가락지(은반지)를 끼우며 합장한다. 신이 내리면 합장이 풀어진다. 이때 손가락 사이에 끼웠던 은가락지가 바닥에 떨어지는 상태에 따라 앞날을 점친다. 보통 은가락지가 방바닥에 떨어지고 손이 어깨 넓이 정도로 벌어져서 날개를 편 형태가 된다.

곧 떨어지지 않는 경우는 길조이며, 떨어지는 것은 흉조이나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점을 친다.

점의 내용은 새해에는 혼처(婚處)가 생긴다든지, 병든 사람은 건강이 어떻다든지, 그 해의 운수가 어떻다든지 등의 길흉을 판단한다.

● 수건 돌리기 : 부추기는 사람들이 등 뒤로 수건을 돌려 숨긴 다음에 수건을 찾게 한다. 수건을 감춘 사람을 맞출 경우에는 영험성을 인정 받는다.

● 신대 사용하기 : 대나무의 가장 윗부분을 잎이 달린 채로 꺾어서, 백지를 둘둘 말아 손잡이를 만든다. 그리고 이것을 쥐고 신내림을 받는데, 신이 일단 오른 신대는 묻는 말에 일일이 잎을 흔들어 대답한다.

⑥ 사설의 특징

꼬댁각시노래는 각시의 기구한 운명을 출가전과 출가 이후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꼬댁각시 노래>

꼬댁각시 불쌍하네
한 살먹어 어멈죽구
두 살먹어 아범죽구
세 살먹어 말을배야
네 살먹어 삼촌집이 갔더니만
삼촌숙모 베를매다
솔자루루 내여치구
삼촌은 마당썰다
마당비로 들어치네
아이구스러 이내담담
밥이라도 주능것은
삼년묵은 보리찬밥
굽이굽이 사발굽이 붙여주네
반찬이라 주능것은
된장찌개 접시구이 붙여주네
수제라고 주능것은

무슨수제냐 통수제지라
천리밖이 던져주네
그수제를 줏어다가
먹을라니 눈물맥혀 못먹겄네
아이구담담 내설움
우리어머니 날슬적에
가지너물 잡섰덩가
가지가지 슬푸네
우리어머니 날슬적에
고추너물 잡섰덩가
꼬치꼬치 슬푸도다
우리어머니 날슬적이
두룹너물 잡섰덩가
두루두루 슬푸네요
그렁저렁 살구보니
십오세가 당도해서
중신애비 들락날랑
앞문차구 들오며는
뒷문차구 나가구
뒷문으로 들어며는
앞문차구 나가구
그래저래 시집이라 가구보니
시아버지라 암팎곱새
시어머니 앉은뱅이
서방이라 허는짓은 고재낭군이라
아이구담담 설운지구
연방죽이나 빠져죽지 (부여군지)

하늘에다 베틀놓고
구름잡어 잉아걸고
참배나무 바디집에
대추나무 연지북에
짤각짤각 짜느라니
울어머니 죽었다고
통지왔네 하던일손
멈추고서 한모랭이
돌아가니 곡소리가
치렁허고 두묘랭이
돌아가니 상여소리
진동허네 네모랭이
돌아가서 잔디로다
집을짓고 대방속대
정자삼아 앵당파리
벗을삼고 산천속에
묻혔으니 한심하고
처량허네 일낙서산에
해는지고 월천동녘에
달이 돋으니 어느구가
날찾을가 어느부모
동기간이 나를 찾을소냐
불쌍하고도 가련하네. (정일순 구술)

춘향아 춘향아
이팔청춘 성춘향아
나이는 십팔세
생일은 사월초파일

오늘하루 이가정에
펄펄놀아 봅시다. (김용배 구술)

영자씨 영자씨
우리 영자씨
놀이좋고 경치좋니
펄펄 놀아 봅시다. (김용배 구술)

내용을 보면, 갓난아이가 가엽게 부모를 일찍 여위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모습이 나온다. 더욱이 시집을 가서도 시부모가 모두 병신이고, 신랑마저 고자이므로 절망한 꼬댁각시는 연방죽에 빠져 죽게 된다. 이런 고달픈 인생은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노래를 부르며 처녀들은 꼬댁각시의 불운에 동감하며 서러움을 나누게 된다.

(정안길, ≪칠갑산의 참된 이름, 꼬댁각시놀이≫, 청양문화원, 1996, 55~108쪽.)

(6) 노적봉(노적가리)세우기

정월 열나흗날부터 보름날까지 양일간 행해지는 행사이다. 정월 열나흗날 아침에 노적봉을 세울 사람들과 풍물잽이들이 모두 모인다.

마을 가구 중에서 웬만큼 사는 집을 골라서 가게 되는데 100호 정도의 마을이면 20호 정도를 들어간다.

풍장을 치면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우선 우물 주위로 가서 삥 둘러 서서 우물굿을 지낸다. 그 다음 부엌으로 가서 한바탕 놀면서 성주를 위한다. 그리고 뒷곁으로 가서 장광에 도착하여 "장맛 좋아져라" 하며 삥 돌면서 친다. 이어 마당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동안 주인이 차려놓은 상 앞으로 가서 한바탕 굿을 한다. 그 다음 노적봉을 마당에 세운다.

노적봉의 길이는 약 10m 정도의 높이이고, 장대는 소나무를 주로 썼다. 소나무 장대의 윗부분에 짚을 동그랗게 싸매는데, 한번 꺾은 다음, 줄로 두 번 정도를 단단히 묶는다. 그러면 마치 사람의 머리와 같은 모양이 된다.

그리고 이 노적봉을 세우기 위하여 새끼줄을 이용하여 삼발을 세우게 되는데, 가운데와 양 옆쪽의 3군데를 잘 묶어 땅에 묶으면 똑바로 선다.

이러한 노적봉을 정월에 세우는 의미는 "정월 초하루에 이것을 세워 신나게 논 다음, 다음 달인 2월 초하루 때에도 또 와서 먹고 놀겠다"는 뜻을 지닌다.

예로부터 녹평리에서는 음력 2월 초하루날은 매우 큰 명절로 쳤다. 그런 이유로 노적봉을 정월 14~15일간 세워놓고 2월 초하루 때, 노적봉이 세워진 집을 다시 한번 방문하여 신나게 놀기 때문이다.

마을에서 웬만큼 살만한 집만 선별하여 들어가는 이유는

"당신은 먹고 살만 하니까, 다같이 술 좀 먹자. 2월 초하루 때도 먹자!" 라는 뜻을 지닌다.

2월 초하룻날 노적봉이 세워진 집을 방문하여 다 놀은 후에는 세웠던 노적봉을 태우거나 부셔서 없애 버린다. 이 노적봉은 매년 새로 만들었다. 이 놀이는 6·25 이후로 점점 쇠퇴하여 사라져 갔다. (비봉면 녹평리, 명제헌·최순길)

(7) 동화놀이

① 정산면 송학리 하송마을의 동화제

하송마을에서는 정월 14일 밤에 동화제를 지낸다. 이 마을은 제당의 형태는 없고, 마을 회관 옆 마당에서 나무를 쌓아놓고 제를 지낸다.

제사 준비는 부녀회장, 제주는 다복한 사람, 부부해로한 사람,대동계장, 이장이 제물준비를 한다.

비용은 예전에는 걸립으로 마련했다. 정월 초에 하든지, 보름 뒤의 엿세날에 했다. 보름날 써야하는 비용은 그전에 마련해 놓은 걸 사용한다. 예전에는 정월 초이틀부터 마을의 농악대가 걸립을 하여 동화제의 기금을 마련하였다.

근래에는 걸립을 하지 않은 지 오래됐다. 현재 비용 마련 방법은 풍물패가 각종 대회(청양, 대전 등)에 나가서 입상하여 벌어온 상금으로 충당한다.

제물은 삶은 돼지머리를 올리는데, 돼지를 잡아도 돼지머리

만 올린다. 이유는 어려운 동네여서 머리만 올리던 것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동화제에 쓸 나무는 집집마다 나무 한 짐을 해서 모은다. 아마도 고랑덤불의 가시덤불을 제거하기 위해 했다고 한다. 잡목은 가시나무로 보인다.

나무는 7매듭으로 묶으며, 세울 때에는 예전에는 등으로 밀어서 세웠다. 10명 정도 당기는 사람이 있으며, 상목으로 세운다. 근래에는 3년전부터 포크레인을 사용해서 세운다. 나무를 못 가져오는 경우, 짚을 가져 온다.

저녁 해가 질 무렵이 되면 기를 앞세워 풍물을 치며 제장에 도착한다. 동화제의 불을 붙이는 것은 아들을 못 낳은 사람이나 총각이 불을 붙인다. 이것은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속설이 있기 때문이다.

동화를 세운 곳에서 제물을 차리고 술을 올린 후에 축을 읽은 후에 절을 한 후에 소지를 올리는 것으로 제의는 끝이 난다. 제의가 끝이 나면 아이들은 쥐불놀이를 하며 논둑을 태운다. 동화제를 지내지 않았던 50년대 말에 마을에 불이 많이 난 적이 있었다.

제 이후에는 윷놀이를 하며 논다. 집집마다 다니며 풍장을 치면서 가택을 위하는 굿도 한다. 자금이 없으니깐 가택굿을 하면서 쌀을 조금씩 받아서 마을기금으로 쓰기도 하였다.

(정산면 송학리 하송마을, 오영삼)

② 남양면 온암리의 동화제

온암리에서는 1월 14일에 온암 2구 학교 바로 옆 논에서 동화제를 올린다. 동화는 약 10m 정도의 높이로 세운다. 이것을 "동화세운다"는 일으킨다는 의미로 "동화센다"라고도 한다.

소지 올리는 사람을 제주라고 하는데, 그 해에 생기복덕이 좋고 부정타지 않은 사람으로 뽑는다. 선정 시기는 정월이며, 제주는 1년 내내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 일의 주관을 2구에서 하므로 제주는 항상 2구에서만 뽑는다. 제주는 해마다 돌아가면서 맡는다. 방승일(남, 78세)씨가 왜정시대부터 제주를 많이 했다. 제주 집에는 금줄을 치며, 황토도 뿌려둔다.

비용은 동네기금으로 충당하며, 걸립은 하지 않는다. 또한 혼인, 환갑, 장례 때와 같은 큰 일이 있을 때, 동네에서 도와주면 나오는 수고비를 모아서 기금으로 사용한다.

제물로 돼지 한 마리를 바친다. 백무리떡을 시루 체 가져다 놓고 전(과), 과일(밤, 대추, 꽃감, 배) 등을 놓는다. 요즘은 술을 직접 담그지 않고 사서 사용한다.

나무는 14일날 아침에 베는데 나무를 베면 안 될 때는 밤에 저녁 먹고 가서 베어왔다. 솔나무 중에 쭉 뻗은 것을 작은 전주크기로 베어서 넷이 지고 내려온다.

젊은이들이 열명 이상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서 가지를 친 후에 통나무로 가져오고 잔나무를 통나무에 매단다.

동화는 밑이 넓고 위를 좁게 만든다. 나무를 벨 때에 제주는 가지 않는다. 밤10시에 동화제를 지내는데 저녁 먹고 풍물치며

돌아다니다가 밤 10시에 불을 붙이며 제사를 지낸다.

제사는 30분 가량 소요되는데, 소지하는 수에 따라 시간은 연장될 수도 있다. 동화가 넘어간 후에 술을 먹고 논다. 제가 끝나면 예전에는 매곡리, 온암리와 더불어 쥐불놀이싸움을 하였다.

(남양면 온암 1리, 임형기)

③ 정산면 남천리 새울의 동화제

정산면 남천리 새울에서는 1월 14일에 동화제를 지낸다. 이 마을은 지형상 '금체'라 불릴 정도로 좋은 곳인데, 여기에 정월 열나흗날 달 뜰 때 불꽃이 들어가면 더욱 좋다고 해서 시작되었다. 예전부터 새울에서 동화제를 계속하다가 10여년 전부터 5~6년 동안 중지했으나, 동네에 예상치 않은 불상사(교통사고 등)가 생겨, 5~6년 전부터 다시 부활해서 계속하고 있다.

주관은 유사를 맡은 집에서 한다. 비용은 마을기금과 동화제를 목적으로 조금씩 걷어서 한다. 제물은 밤, 대추, 곶감 등의 삼색실과와 흰무리, 포, 술 등을 준비한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마을 청년들이 제장과 개울 앞 청소를 한 후 짚으로 새끼줄을 꼰다. 가운데 세우는 긴 '고줏대'와 옆에서 작은 나무로 받쳐준다. 예전에는 나뭇짐을 집집마다 능력껏 마련하여 자기 집 대문 앞에 놓으면, 풍물을 치며 걷어갔으나, 지금은 동네 인구의 감소로 몇몇 청년들이 산에 가서 준비한다.

특히 고줏대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집에서 준비한다. 저녁 7

시 정도에 '동아대'를 세운다. 불을 붙인 후에 잔을 올리고 재배하며, 이어 축문을 읽는다. 그리고 풍물을 친 후에 다시 재배, 잔올리기, 재배, 소지 올리기의 과정으로 진행한다.

제사 지내는 동안, 대부분 풍물을 친다. 이것을 치는 것은 축원과 아울러서 주민들의 어울림과 화합을 뜻한다.

(공주시 우성면 봉현리, 김원중./ 정산면 남천리 이주기, 이운상)

④ 대치면 농소리 놋점 마을의 동화제

농소리 놋점마을에서는 1월 14일 저녁에 50년 정도 된 정자나무 앞에서 동화제를 지낸다.

집집마다 한 다발씩 나무를 해서 정자나무 앞에 금줄을 치고 쌓아 놓는다. 산제를 지내러 올라가면 남은 마을 사람들이 불을 놓는다. (대치면 농소리 놋점마을, 임춘재 · 박신남 · 복흥순)

⑤ 운곡면 신대리의 동화제

신대리에서는 1월 14일 저녁에 장작을 쌓아 놓고 불을 놓는데 이것을 동화라고 한다. (운곡면 신대리, 윤광희 · 이계준)

⑥ 운곡면 안심리의 동화불

쥐불놀이 할 때에 마을제가 있었다. 정월 14일 저녁에 장작개비를 쌓아서 불을 놓는데, 이것을 동화불이라고 한다. 축은 읽지 않는다. (운곡면 안심리, 김재복)

(8) 천 렵

① 장평면 미당리의 천렵

더운 여름날에 가까운 냇가에 가서 피라미를 잡아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고 놀았다. 요즘엔 천렵도 없어졌다.

(장평면 미당리, 서기복 · 김평길)

② 정산면 대박리의 천렵

먼저 몇몇의 장정들이 날짜를 정하고 천렵에 필요한 준비물, 즉 솥단지와 간장, 고추장 등의 양념 류, 낚싯대 , 그물, 투망 등 수렵기구를 하루 전쯤 분담하여 준비한다. 잡은 물고기를 배를 따고 깨끗이 씻어 여기에 양념을 넣어 끓여 술과 같이 먹는다. 그리고 매운탕 속에 국수를 넣어, 어죽을 끓여 먹기도 하면서 보신도 하고 더위를 식히면서 하루를 보낸다.

(정산면 대박리, 정진우)

③ 목면 안심리의 천렵

주로 잎이 만발할 때에 산, 강에서 천렵을 하였다. 냇가에 가서 고기나 가제를 잡았다. 천렵이 끝나면 다음부터 농사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천렵은 동네사람 몇몇이 시원한 산 속으로 들어가서 가제를 잡아 술 한잔 마시면서 노는 것을 말한다. 가제는 돌을 들어 올리면 나온다. 잡은 가제는 가져간 솥을 걸고 양념을 해서

끓여 먹는다. 고기 잡는 도구는 뜨끔물을 사용했다.

한편 삼복 더위에 채일(천막)을 쳐놓고 개 한 마리를 잡아서 솥 단지를 가져가서 국말이나 찌개를 끓여 먹는다. 그리고 풍장을 치면서 노는데, 이것을 '동네 천렵 간다'고 한다. 이 때에는 동네 주민 전체가 참여한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 정명교)

(9) 화류놀이(꽃놀이)

① 목면 안심리의 화류놀이

화류놀이는 주로 여자들이 했다. 그러나 옛날에는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화류놀이를 했다.

여자들은 산에 올라가서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장구치고 노래부르며 놀았다. 뒷동산으로 많이 갔으나, 요즘은 관광을 간다. 화류놀이를 할 때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 놀았고, 남자도 솥을 걸어서 밥을 해먹었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② 청양의 화류놀이

3월을 맞아 일기가 청명한 날을 택해서 유행과 농부와 부녀자들은 각각 모여, 들과 산으로 경치가 좋은 곳을 찾아 놀이를 갔는데 이를 화류놀이라고 한다. 초목은 새싹이 돋아나고, 일기는 온화하며, 화조도 기뻐서 날아다니는 봄을 즐기기 위

하여 떼를 지어 교외로 나가는 것이다.

화류놀이를 갈 때는 미리 통문을 돌려 장소와 날짜를 정하고, 각자의 기호에 따라 음식을 장만하여 하루를 즐긴다. 문장에 능통한 사람들은 즉흥시나 시조를 지어 읊고. 부녀자들은 안방가사를 읊으며, 농부와 아이들은 민요를 불러 흥을 낸다.

이때에 진달래꽃이 한창이므로 이것을 많이 꺾어 머리에 꽂아 멋을 부리기도 하고, 꽃 방망이를 만들기도 한다. 산에서 돌아오는 나무꾼의 지게 위나 소바리 위에 진달래꽃이 꽂혀 있는 것도 이 무렵이다. 화류놀이 때는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른다.

제화제화 제화하
얼씨고절씨고 좋을시고
춘삼월 화전놀이를 간다
춘향의 방문 앞
이도령 걸음으로
아그작 아그작 걸어서
거들거리고 나간다.

세모시 마당앞에
금자라 걸음으로
아그작 아그작 걸어서
거들거리고 나간다
둥그다당실 동그다당실.

에라 두덩실
연자버리고 마-거리고
거들거리고 나간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③ 비봉면 신월리의 봄놀이

봄철에 여자들이 산으로 가서 장구치고 놀았다. 이 동네에서는 주로 뒷동산에 가서 놀았다. 풍장은 큰 일이 있을 때에 친다. 이번 봄에도 여자들이 산에 가서 놀았다.

(비봉면 신월리 1구, 조성매 외)

④ 운곡면 신대리의 꽃놀이

냇물이 풀리자마자 후풍이 불고 진달래와 개나리가 필 즈음 모임의 대표자 몇몇 사람이 날짜와 장소를 잡아 집집마다 알린다. 모임에 필요한 비용을 정하거나 마을 모임의 공동경비로 충당해서 지출하기도 하고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준비한다.

모임에 따라 두세 명의 소리꾼을 선정하여 동행하기도 하여 놀기도 하며, 놀이 중간에 각 집에서 준비한 음식을 먹는다. 놀이가 끝나면 이들은 장구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되돌아온다.

(운곡면 신대리, 김영자)

(10) 기세배(용대기)

① 운곡면 모곡리의 기세배

정월에는 기세배를 했는데, 제일 오래된 기를 연배가 높은 것으로 친다. 어린기가 풍장을 치면서 세배를 하러 온다.

모곡리의 기는 용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용대기'라고 했다. 기의 길이는 7자에서 여남은 자 정도 됐고, 대나무 깃대에 꿩 작목(깃털)을 꽂았다.

이곳에서는 기세배하러 연양리로 갔다. 정초에는 재수 없다고 해서 개를 잡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다. 돈을 빌려주는 것도 낮에만 빌려주고 밤에는 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자기 복이 돈과 함께 간다고 믿었다. (운곡면 모곡리, 윤주완)

② 운곡면 안심리의 용대기

마을의 기끼리 인사를 하는 것을 '용대기'라고 한다. 날짜는 정해지지 않고 보통 보름 때에 많이 한다. 여름에 두레할 때도 용대기를 한다. (운곡면 안심리, 윤광희 · 이계준 · 양진석)

③ 청양지방의 기세배

정초 14일부터 마을 농부들은 농악을 치면서 집집마다 다니며 돈과 곡식을 얻는 걸립을 하여 경비를 마련해서 14일 밤이 되면 마을 당산에서 농기에 대한 제사를 올린다.

상원날 아침에 여러 마을의 농기가 한곳에 모여들고, 농기의

수만큼 농악대도 모여 제각기 방위를 맞춰 정렬한 다음 대장기에 대해서 차례로 기를 숙여 세배를 한다.

이때에 상대리(上大里)의 농기가 대장기가 되며, 나머지들은 만들어진 순서대로 형제관계를 정한다. 기세배 때에는 서로 먼저 절을 받으려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한다. 세배할 것을 다 투다가 때로는 싸움이 벌어져 서로 농기를 빼앗으려고 하는데 이때에 농기 뺏기가 벌어진다.

농기 뺏기는 상대편 농기 꼭대기에 올라가 위에 꽂힌 꿩으로 만든 기를 뺏으면 승리하는 것이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11) 백중놀이(머슴날, 호미씻이)

① 목면 본의 1리 백중

백중은 머슴들이 하루 노는, 머슴의 명절이다. 따라서 백중장이 별도로 섰다. 이날 주인은 머슴에게 옷도 새로 해 주고, 돈도 주면서 하루 잘 놀다오라고 보낸다.

(목면 본의 1리 무수동, 김홍식)

② 남양면 구룡리의 머슴날

머슴날은 주인이 머슴에게 돈을 주며, 하루동안 노게 해 주는 날이다. 머슴은 놀고 나서 집으로 돌아올 때에는 개고기 한 그릇을 사서 주인에게 바쳤다.

(남양면 구룡리, 김동수./ 목면 안심리, 정명교)

③ 화성면 화암리의 백중놀이

백중 때 머슴들이 농사일을 마무리하고 노는 날이었다. 용역과 관련이 없는 사람은 상관없는 날이었다. 따로 백중놀이는 없었다.

(화성면 화암리 송필현, 조병철 · 최종기)

④ 운곡면 모곡리의 백중

백중날은 머슴들에게 돈도 주고 해서 하루동안 푹 쉬게 했다.

(운곡면 모곡리, 윤주완)

⑤ 비봉면 신월리 1구의 백중

백중을 머슴날이라고 한다. 청양에 칠월 열이틀날에 백중장이 서면, 술을 먹고 싸우는 일도 많았다.

(비봉면 신월리 1구, 조성매 외)

⑥ 화성면 화암리의 머슴장

머슴장이라고도 하며 이날은 남의 집 고용살이를 하는 사람이 쉬는 날이었다.

(화성면 화암리, 송요선)

⑦ 청양의 백중

칠월 보름을 '백종' 또는 '백중'이라 하여 이날을 전후해서 종(머슴)들을 쉬게 한다. 머슴들은 주인들이 준 돈으로 하루 내지 이틀 동안 장에 나가 음식을 사먹고 마음껏 논다. 그래서 이날은 '머슴 노는 날'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이것은 머슴들

이 장에 가기 위해 깨끗이 씻기 때문이다. 또한 백중에는 씨름을 많이 했으나 근래에는 하지 않는다.

(≪청양군지≫, 1995)

⑧ 목면 안심리의 호미씻기놀이

부농(富農)에서 준비한 술과 음식을 가지고 경치 좋고 시원한 나무 그늘을 골라 농기를 세우고 징, 꽹가리, 북, 장구, 등을 치면서 흥겹게 하루를 즐긴다.

각자의 농사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장래의 풍작을 빌며 겸해서 머슴과 농군에게 수고를 서로 위로한다. 또한 이 경비는 칠월에 공동으로 김매기를 하여 쌀이나 보리를 얻어 충당하기도 하였다.

(목면 안심리, 김익수)

⑨ 청양의 백중

7월 15일은 '백중절', '백종일' 또는 '망혼일'이라고 한다. 이 날에는 망혼을 위하여 절에서 제를 올려 극락으로 인도한다. 백중절엔 밀가루에 박잎이나 깻잎을 넣어 지지고 햇감자와 밀가루로 전을 부쳐 사당에 제향한다. 7월 보름을 전후하여 마을 형편에 따라 택일한다. 이 날을 '초연' 또는 '머슴날'이라 하여 호미씻기를 한다.

이때쯤엔 힘든 농삿일도 거의 끝나 호미를 거둘 때가 되었다는 데서 온 말이다. 이 날은 농사가 잘된 집의 머슴을 뽑아 상을 내리고 술로 노고를 위로한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⑩ 청양의 호미씻이

호미씻이 날을 머슴날이라 부르는데, 7월 15일을 전후해서 그 마을 형평상 적당한 날을 택하여 정한다. 각 가정에서는 제각기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산이나 계곡을 찾아가 노래와 춤으로 하루를 즐긴다.

농부들의 휴일인 만큼 농악을 치며 흥겹게 놀고 그 마을에서 농사가 가장 잘 된 집의 머슴을 뽑아 일을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술을 권해 위로해 주기도 한다. 그러고 나서 삿갓을 씌우고 소 위에 태운 후 마을을 돌아다닌다. 그 머슴의 주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술과 밥을 한턱 낸다. 호미씻기는 농사일이 거의 끝나 호미가 필요없게 되었으므로 호미를 잘 씻어 둔다는 데서 나온 풍습이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12) 줄당기기

이 마을에서는 15년 전까지 줄당기기를 했다. 지금은 젊은 사람도 없고, 피곤하기도 해서 하지 않는다. 편을 나눌 때에는 남, 여를 골고루 섞어서 나눈다. 줄의 굵기는 어른 팔뚝만한 정도이며, 길이는 참여하는 사람 수에 따라 좌우되는데, 사람이 많을 때에는 줄도 그만큼 길어진다. 몸 건강하게 해 달라고 하는 뜻에서 당겼다. 줄을 당겼던 장소는 동네의 큰 도로변이다.

(대치면 광금리, 노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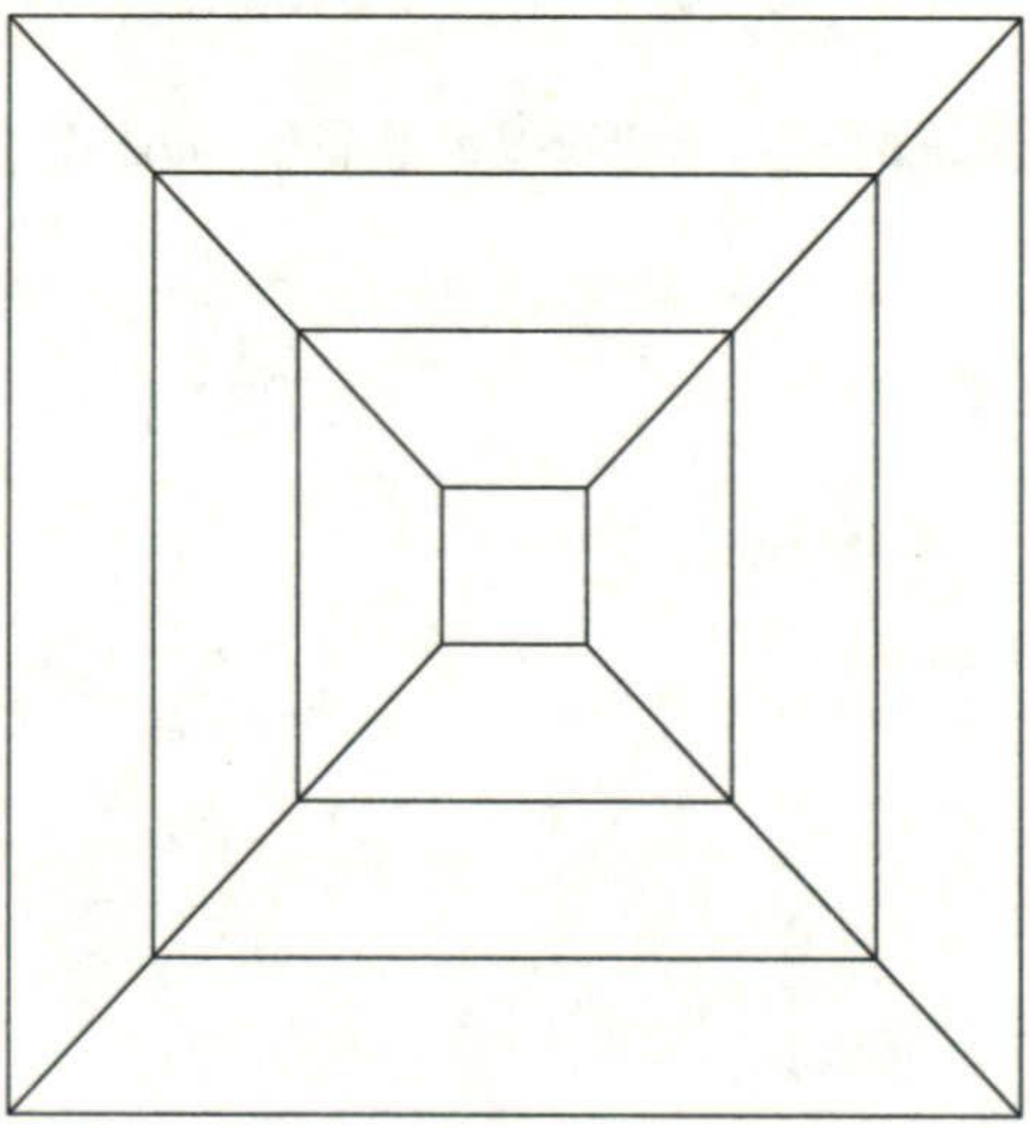
4. 청양의 개인놀이

(1) 고니(고누)

① 장평면 낙지리의 고니

곤질고니라는 놀이가 있다. 칸을 그린 후 말 3개를 자기가 놓고 싶은데 놓고 옮기면서 노는 놀이로, 자기 땅에는 ×표시를 한다.

(장평면 낙지리 윤갑중, 심윤섭)



② 정산면 송학리의 고니

고니놀이를 '고니둔다'고 하였다. 땅바닥에 백묵으로 판을 그려서 놀았다.

고니는 사발고니와 네모난 고니가 있는데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다양한 고니 놀이가 탄생하였다. 가위바위보를 통해

서 놀이의 순서를 정한다. 그려진 모양 틀대로 말을 한 칸씩 밖에 움직일 수 없는데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을 만큼 상대편 말에게 막히면 지는 놀이이다. 말은 앞으로 옆으로는 움직일 수 있지만 뒤로는 가지 못한다. 옛부터 고니를 잘 두는 사람은 바둑도 잘 둔다고 할 정도로 머리를 많이 쓰는 놀이이다.

(정산면 송학리, 오영범)

③ 운곡면 후덕리 대동마을의 고니

사발고니는 위 아래로 흙 토(土)모양을 크게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원을 그리는데, 원 안에 십(十)자로 선을 긋는다. 양쪽의 끝부분에 말을 3개씩 놓고 상대방 쪽으로 말을 이동시키며 노는 놀이이다. 상대방의 말로 양쪽이 포위되면 그 사람은 지게 된다. (운곡면 후덕리 대동마을, 명해동 · 명효식 · 명제빈)

④ 화성면 농암리의 고누

고누의 종류와 이름은 각 지방에 따라 다르나 말판의 모양에 의하여 붙여진 이름은 강고누 · 줄고누 · 곤지고누 · 둘레고누 · 호박고누 · 밭고누이며, 본 지역에서는 그 중에서 곤지(坤地)고누를 가장 많이 실시하였다. (화성면 농암리, 최종기)

⑤ 목면 안심리의 고누

㉠ 강고누

'우물고누'라고도 부르며 가장 일반화된 고누로 말판에 우물

이라는 장애물을 설정하고 말은 각각 2개를 가지고 둔다. 양편의 말은 우물(ㄴ, ㄹ)을 지나지 못하며, 우물을 제외한 나머지 점에 말을 두어 가다가 어느 족이건 자기 말 2개를 ㄱ, ㅁ 또는 ㄷ, ㅁ에 놓아 상대방의 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이긴다.

② 줄고누

네줄고누·사마(四馬)고누·정자(井子)고누라고도 부르며, 가로 4줄, 세로 4줄의 말판에 양편이 각각 말 4개 또는 6개를 직선으로 한 칸씩 두어 간다. 상대방의 말 1점을 직선 상에서 말 2점으로 둘러싸서 따낸다. 이와 같이 말을 두어 어느 편이든 먼저 상대의 말을 다 잡아 내는 편이 이긴다.

③ 곤지(坤地)고누

양편이 번갈아 가며 말 하나씩을 말판의 교차점에 놓아간다. 이 때 말 3개가 일직선 위에 나란히 놓이면 이것을 '곤지'가 됐다고 하고, 상대편의 말판 위에 놓인 말 중의 어느 것이나 하나를 따낸다. 그 자리에 표시를 해두어 두 사람 다 말을 놓을 수 없게 된다. 말을 다 두어 놓을 자리가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말판 위에 놓인 말들을 움직여 '곤'을 만들고 상대편의 말을 떼어 낸다. 어느 쪽이던 말수가 3개 이하가 되면 '곤'을 만들 수 없으므로 지게 된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⑥ 남양면 대봉리의 둘레고누

돌려고누·자동차고누·말고누라고도 부르며 처음 4개씩의

말을 놓고 시작해서 말은 한 칸씩만 갈 수 있으며 상대의 말을 잡을 때에는 반드시 바퀴 4개 중 한 곳을 돌아야 한다. 바퀴를 돌 때 말 앞에 가로막고 있는 말이 없어야 잡을 수 있고, 돈 말은 한 칸씩 두지 않고 여러 칸을 갈 수 있다. 상대의 말을 다 잡으면 이긴다. (남양면 대봉리, 강희배)

⑦ 남양면 구룡리의 호박고누

"사발고누"라고도 부르며, 두 편에 각각 4개의 말로 두어 간다. 상대편의 말을 따내지 않고 서로의 말이 한 칸씩 움직이다가 길이 막혀 움직일 수 없으면 지게 되는데, 먼저 두는 사람이 매우 유리하다. (남양면 구룡리, 김동만)

⑧ 일반적인 고누

고누놀이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그 유래는 확실치 않으나 흙을 만져 가면서 실시하는 것으로 보아 오래 전부터 평민층 놀이의 하나로 즐겼을 것으로 짐작된다. 고누라는 말의 어원은 확실히 알 길이 없으며, 각 지방에 따라 '고니', '꼬누', '꼬니', '꼰', '꾼' 등으로 부르고 있으며 한자어로는 '지기(地碁)'라고 한다. 이 고누는 보다 더 복잡하고 짜임새 있는 장기나 바둑의 원초적인 형태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주로 흙바닥에 말판을 그려 놓고 두어 왔던 이 놀이는 지금에 와서 도시에서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고 농촌지방에서만 일부 소년들 사이에 두어지고 있다. (심우성, ≪한국의 민속놀이≫, 1664, 21쪽.)

(2) 돈치기 놀이

① 장평면 낙지리의 돈치기

돈치기는 구멍을 파서 동전을 던지는데, 들어가면 먹게 된다. 만약 못 들어가면 돈으로 쳐서 맞히면 갖는 놀이이다.

구멍의 크기는 동전 3~4개 들어갈 정도의 크기이다. 구멍에 던질 때에는 살짝 던져야 잘 들어간다. 거리는 2m 정도이며, 돈이 안 들어갔을 때는 납작한 돌을 들어 동전에 던져서 맞혀야 한다. (장평면 낙지리, 윤갑중·심윤섭)

② 정산면 송학리의 돈치기

돈치기는 주로 두명 또는 세명이 하였다. 출발하는 지점에 선을 긋고 동전을 각자 하나씩 일자로 놓는다. 그곳에서 멀리 있는 또 하나의 동전을 맞추게 되면 그 사람이 맞춘 동전을 갖게 된다. (정산면 송학리, 오영범)

③ 운곡면 후덕리 대동마을의 돈치기

돈치기는 땅에서 돈을 던져서 돈을 맞추는 놀이이다. 돈을 던져서 2개를 모두 맞추게 되면, 한 개는 갖고 한 개는 내놓는다. 한 개를 맞추면 그냥 갖게 된다.

(운곡면 후덕리 대동마을, 명해동 · 명효식 · 명제빈)

④ 화성면 산정리의 돈치기

땅바닥에 반원형을 그리고, 그 안에 자그마한 구멍을 파놓고 3~4cm 떨어진 곳에 던지는 선을 긋는다. 각자 동전의 한 개를 던지는 선에서 구멍을 향하여 던져 순서를 정하는데 구멍에 가까운 동전부터 순서를 정한다.

순서에 의해서 동전을 모두 쥐고 구멍으로 던지는데 구멍에 들어가면 들어간 동전은 먹게 되고 들어가지 않은 동전 중 다른 사람이 지적해 준 동전을 작은 돌로 맞히면 먹게 된다. 맞히다가 다른 동전을 맞히면 정해진 벌금을 물게 된다.

그리고 겹쳐진 동전을 "야"라고 부르고 떨어지게 하면 겹쳐져 있던 동전들을 다 먹을 수가 있다. 이러한 순서대로 실시하여 돈을 누구든지 전부 따서 가질 때까지 계속하고, 그 판이 끝나면 처음부터 다시 실시한다. (화성면 산정리, 송필현)

⑤ 대치면 탄정리의 동전치기

구멍에 들어간 동전을 밖으로 파내면, 전체의 돈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파낸 동전을 구경꾼이 받으면 구경꾼이 돈을 전부 차지한다. (대치면 탄정리, 복진세)

⑥ 청양의 돈치기

예전에 머슴이나 나무꾼들 사이에 노는 돈치기놀이가 있었다. 옆으로 줄을 긋고, 여기에서 앞으로 세 발쯤에 다시 옆으로 줄을 긋느다. 이 줄에서 한 뼘쯤 되는 곳에 동전 하나 들

어갈 정도로 구멍을 만든다.

돈치기는 편을 짜지 않고 각자 동전 하나씩을 꺼내어 구멍 쪽으로 동전을 던져 구멍에 가까이 자리잡은 순번대로 순서가 정해진다.

순서가 정해지면 첫 번째 줄을 발끝에 대고 동전을 던지는데 구멍에 들면 모두를 먹게되고 줄 안에 떨어지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돈을 던진 다음, 던지기 좋은 돌을 골라서 상대방이 지정한 돈을 맞히게 되면 따먹게 된다. 이때 잘못 던져서 다른 돈을 맞히게 되면 벌금으로 동전을 하나 더 내놓아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은 맞히기가 가장 어려운 것을 지정하기 마련이다.

(≪청양의 민속≫, 청양문화원, 1994.)

(3) 비석치기

① 장평면 낙지리의 비석치기

일정한 간격으로 돌을 세워놓고, 엉덩이를 뒤로 뺀 자세로, 눈에 돌을 지고 가서 넘어뜨리는 방식이다.

이 놀이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1번은 그냥 던지기, 2번째는 1회 던져서 다시 주워 뒤로 던지기, 3번째는 세워서 던지기, 4번째는 깨금지고 가서 발로 차서 넘어뜨리기, 5번째는 등에 지고 가서 던져서 넘어뜨리기, 6번째는 눈에 올려서 가서 떨어뜨려서 넘어뜨리는 방식 등이 있다.

(장평면 낙지리, 윤갑중 · 심윤섭)

② 장평면 분향 1리의 비석치기

인원을 두 팀으로 나눈다. 각자 납작한 돌 모양으로 자신의 돌을 정한다. 출발선을 정해놓고, 그 선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또 하나의 선을 그어놓는다. 그 선에 상대편의 돌들을 세워놓는다. 그러면 다른 편에서 자신의 돌을 들고가서 상대편의 돌을 맞추면 된다.

돌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였을 경우 죽게 되는데, 같은 편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몫까지 해주게 되면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정해진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데, 이를 순서대로 수행을 하며, 먼저 끝낸 편이 이긴다.

이 규칙은 10여가지가 넘는데, 돌을 직접 던지는 방법, 돌을 배나 어깨, 눈 등에 올려놓고 가서 떨어뜨리는 방법 등 다양하다.

(장평면 분향1리, 김완수)

③ 청남면 내직리의 비석치기

먼저 3~5m의 거리를 두고 두 개의 선을 긋고 편을 갈라 공격과 수비를 나누어 공격은 비석을 던질 준비를 하고 수비는 비석을 한 줄에 세운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1번의 '막 던지기'에서 8번의 '떡장수'까지 마치면 '한판'을 얻게 되는데, 이렇게 하여 먼저 3판을 얻는 편이 이기게 된다.

● 막 던지기 : 출발선에서 공격편이 순서에 맞게 비석을 던져

세워진 비석을 쓰러뜨린다. 자기편이 다 쓰러뜨려야 다음 순서로 넘어가고 다 쓰러뜨리지 못하면 공격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간다.

- 한 번 뛰기 : 출발선에서 비석을 한 발로 갈 수 있는 거리에 던져 놓고 한 걸음에 뛰어서 밟아 비석을 주워 던진다. 이때 밟지 못하면 실격이 된다.
- 두 번 뛰기 : 출발선에서 비석을 두 걸음 갈 수 있는 거리에 던져 놓고 두 걸음에 뛰어서 밟고 그리고 집어서 그 자리에서 상대방 비석으로 쓰러뜨린다.
- 세 번 뛰기 : 출발선에서 비석을 세 걸음에 갈 수 있는 머리에 던져 놓고 세 걸음에 뛰어서 밟고, 그리고 주워서 그 자리에서 상대방의 비석을 쓰러뜨린다.
- 네 번 뛰기 : 출발선에서 비석을 네 걸음에 갈 수 있는 거리에 던져 놓고 양감질로 네 걸음만에 비석 가까이에 가서 발로 자기 비석을 차서 상대방의 비석을 쓰러뜨린다.
- 발등 : 비석을 발등에 올려놓고 상대방의 비석이 세워진 곳까지 가서 쓰러뜨린다.
- 무릎사이 : 비석을 무릎 안쪽에 끼우고 종종걸음으로 가서 상대방의 비석을 쓰러뜨린다.
- 떡장수 : 비석을 이고 다가가서 떨어뜨려 상대방의 비석을 쓰러뜨린다. 이렇게 하여 놀이는 '한판'을 끝내게 되는데 비석을 던지는 방법은 다양하다. 발 또는 무릎사이에 비석을 끼워 종종걸음으로 가기, 머리 위에 이고 조심조심 걸어가기 등

은 옆에서 구경하기에도 흥미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 진다.

(청남면 내직리, 김갑태)

④ 대치면 대치리의 밑변치기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돌맹이를 하나 세워 놓고 내 돌로 던져서 넘어지면 이기는 놀이이다. 이 놀이는 2인이 한다.

(대치면 대치리, 강재금)

⑤ 일반적인 비석치기

어린이들이 구하기 쉬운 돌을 이용한 놀이로 잘 세워지는 두툼한 돌이나 깨진 기왓장을 가지고 일정한 거리에 비석처럼 세워진 상대방의 말을 자기말로 일격에 맞추어 쓰러트리는 놀이이다. 지방에 따라 '비사치기', '비석놀이', '돌치기', '목자치기'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곳곳에 마을에 '비선거리'라는 지명이 있다. '비선거리' 라는 말뜻은 그대로 비가 서 있는 거리이다. '비선거리'는 며슬아치 등의 권력층이나 부유층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조상 또는 자기들의 업적을 자화자찬하고 기리기 위해서 각종 기념비를 세웠는데, 이것들 중의 하나가 사람들이 많이 지나치는 곳에 세워 놓는 이른바 송덕비 라는 것이다.

'송덕비'란 바로 봉건적 관료체제의 전형적 소산물로 다수 민중의 듯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몇몇 권력층의 자기자랑과 자

기과시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민중의 눈에는 송덕비란 것이 곱게 보일 까닭이 없고, 민중의 고혈 위에 세워진 기념물은 그것을 세운 사람들에게는 뜻이 있을지 몰라도 봉건적 지배 질서에 묶여 왔던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아무 뜻도 없는 하나의 잘 다듬어진 돌덩이 또는 달갑지 않은 수탈과 권력의 상징으로 보였을 것이다. 때문에 어린이나 어른 할 것 없이 송덕비 앞을 지나갈 때 불끈 울화가 치솟으면 아니꼬운 비석에 대고 욕설을 퍼붓거나 아니면, 한두 번쯤 발길질로 비석을 차면서 평소 쌓여 왔던 울분을 잠시나마 폭발시켰을 것이다.

'비석치기'란 바로 위와 같은 뜻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것이 점차 놀이화되어 오늘날 보는 바와 같이 어린이놀이로 자리잡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심우성, ≪한국의 민속놀이≫, 41쪽)

(4) 지게(상여)놀이

① 장평면 낙지리의 지게놀이

여러 명이 지게를 이어서 상여를 만든 후에 어깨에 메고 다니며 상여소리를 하면서 놀던 놀이이다. 이것은 주로 나무하러 갈 때에 많이 놀았다. 제보자는 17살까지 논 기억이 있다.

지게를 엮으면 상여모양인지라 영정공포(수건을 풀어서 지게에 걸고)처럼 들고도 다니며 놀았다.

(장평면 낙지리, 윤갑중 · 심윤섭)

② 장평면 분향1리의 지게놀이

나무하러 갈 때 주로 했는데, 4~6명이 많이 하나, 짝수만 되면 숫자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게상여를 어깨에 메고 놀았다. 상여소리는 '어허야~'하고 부른다.

(장평면 분향1리, 김완수)

③ 정산면 송학리의 지게놀이 · 지게상여놀이

- 지게 힘겨루기 :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간 비슷한 또래의 동무들이 지게에 서로를 태우고 누가 가장 많이 태우나 힘을 겨루는 놀이이다. 지게의 양 옆과 위에 3명 이상의 사람을 지면 힘이 센 장정이라고 하였다. (정산면 송학리, 오영범)
- 지게 상여놀이 : 산에 나무를 하러간 동무들끼리 주로 노는 놀이이다.

  지게를 두 개 엎어서 잇고, 이것을 상여라고 친다.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이 위에 타게 되고 진 사람들이 상여를 진다. 지게상여를 양어깨에 매고 지게 가운데에 사람을 태운다. 상여를 메고 노래를 부르면서 산을 올라간다. 실제 상여소리처럼 메기고 받는 소리를 한다.

  (정산면 송학리, 오영범)

- 화성면 용당리의 지게상여놀이

  지게를 눕혀 2~3개를 엮는다. 엮은 지게를 4~5명이 가마를 지듯이 양옆으로 어깨에 진다. 상여소리를 하면서 다니는데 '상여를 흘른다'라고 한다.

실제로 상여놀이는 상여가 나가기 전날에 부유한 집에서 했는데, 실제로 상여가 나가기 전에 한번 꾸며 보는 것이다. 요령잽이가 상에 타고 북치는 사람이 따라 붙는다.

(화성면 용당리, 강연석)

● 남양면 구룡리의 지게상여 놀이

가을이나 겨울철에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러 가는 10세 이상의 소동들이 각자의 지게를 포개고 옷을 접어서 행상 같이 꾸며, 이것을 매고 상여소리를 내면서 산에 올라간다.

먼저 지게 두 개를 연결하여 상여를 만들고 상주와 소리꾼을 정한다. 상주는 상여 뒤에서 곡을 하며 따르고 소리꾼이 "가네 가네 아주 가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라고 외치면, 나머지 사람들은 상여꾼으로 "어-헝 딸랑" 소리를 후렴으로 받는다.

(목면 안심리, 권오현 · 김재복)

● 정산명 대박리의 지게들기놀이

내기에 참가하는 사람끼리 일정한 규칙을 정하고 순서를 정한다음 순서에 의해 지게를 든다. 지게의 다리 아래 부분을 한 손으로 들고, 다리를 펴고 일어나서 지게를 들었던 팔을 번쩍 들어올리면 이기게 된다. 팔을 들어 올린 사람이 없으면 참가한 사람 중 제일 높게 든 사람이 이기게 된다.

(남양면 구룡리, 김동만)

● 정산면 대박리의 지게들기

일정량의 나무를 한 다음에 나무단의 크기를 놓고 내기를 한다. 낙엽이나 솔가지를 긁어서 모아 크게 만든 사람이 상

대방의 나뭇짐을 차지한다. (정산면 대박리, 최용남)

● 대치면 탄정리의 지게지기 놀이

먼저 내기를 할 사람, 그리고 어떠한 내기를 할 것인가를 정하고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순서를 정한다. 지게에 한 사람을 짊어지고 일어서서, 서너 걸음 가면 통과가 된다. 이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2사람, 3사람, 4사람을 짊어진다. 가장 적게 짊어지는 사람이 놀이에 지는 것이다. 보통 3사람을 짊어지면 이겼다고 한다. (대치면 탄정리, 복진세)

● 남양면 구룡리의 나무다발치기

나무를 끝내고 쉴 때에 이루어진다. 먼저 던질 자리에 선을 긋고 각자 나무 다발(묶음)을 대략 5m 거리에 똑같이 세워 놓는다. 그리고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순서를 정하고 규정에 따라 낫이나 갈퀴로 던져 나무 다발을 쓰러뜨린다. 나무 다발을 쓰러뜨리면, 상대방의 나무 다발을 차지하게 된다.

(남양면 구룡리, 김명환)

(5) 공놀이

① 장평면 낙지리의 공놀이

막대기나 주먹으로 조그만 공을 치며 노는 놀이이다. 3군데에 돌을 가져다 놓고 공을 던지고 돌려치면서 달린다. 4명이 하기도 하고, 5명이 하기도 한다.

공강아지라고 하여 공을 던지는 심부름꾼을 정한다. 곧 잘 치지도 못하거나 작은 사람을 시킨다. 예전에 15~16세까지 논 기억이 있다.

(장평면 낙지리, 윤갑중·심윤섭)

② 운곡면 모곡리의 공놀이

남자어린이들이 빈터에서 즐기던 놀이로 요즘의 야구와 비슷하다. 주먹만한 고무공을 가지고 맨손이나 나무 막대로 공을 치고 받고 던지는 놀이이다. 공이 없을 경우는 털실이나 새끼줄을 칭칭 감아 동그랗게 만들어 놀기도 한다.

나무 막대로 공치기는 놀이를 '딱때기', '딱공치기'라고도 하고, 보통 7~10명씩 편을 갈라 놀이를 하고 돌로 1루, 2루, 3루를 만든다. 그리고 투수가 던지는 공을 타자가 막대로 쳐, 각 루로 갈 수 있고, 홈까지 오면 1점을 얻게 된다. 공격자가 루에 가기 전에 수비가 홈에 공을 넣거나 공으로 터치하면 공격자는 죽는다. 공격한 공을 수비가 받으면 죽게 되고 3명이 죽으면 공수가 교대된다. 처음 정한 점수를 먼저 얻으면 이기게 된다.

(운곡면 모곡리, 양지석)

③ 대치면 탄정리의 공놀이

공을 멀리 보내 일주를 하게되면 죽었던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따라서 2점 일주를 하게 되면 2명을 살릴 수 있다.

(대치면 탄정리, 복진세)

④ 정산면 덕성리의 공놀이

공치기를 '때스공'이라고도 부르며, 공격측에서 주먹으로 공을 며 노는 방법은 다른 지역과 똑 같다.

(정산면 덕성리, 장광현)

(6) 엿치기

① 장평면 낙지리의 엿치기

엿을 둘로 자른 다음에 구멍이 큰 사람이 이기는 놀이로 진 사람이 엿값을 낸다. (장평면 낙지리, 윤갑중 · 심윤섭)

② 대치면 탄정리의 엿치기

어른 3~4사람이 모여 엿판의 많은 엿가락 중에서 뒤적거려 구멍이 크게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엿가락을 하나씩 고른다. 이어 엿판 모서리에 두드리고 입으로 세게 불면서 부러뜨린다. 그래서 구멍의 크기로 승부를 겨룬다. 주로 엿가락이 선명하거나 엿이 가볍고 거친 것이 구멍이 크다고 한다.

내기 방법으로 구멍이 제일 큰 사람은 제외시키고 나머지 사람끼리 다시 경쟁을 하여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이 엿값을 낸다. (대치면 탄정리, 복진세)

③ 청양의 엿치기

봄철에 따뜻한 봄날 담장 밑에 모여있으면 엿장수가 가위 장단을 맞추어가며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서 엿목판을 치면서 '양재기 깨진 것, 고무신짝 떨어진 것' 하며 엿장수가 다가온다. 사람들은 엿목판을 둘러싸고 한가락씩 골라서 반을 뚝 자르며 '훅-' 하고 입으로 분다. 이렇게 해서 구멍이 크게 뚫려있으면 이기고 구멍이 없거나 작으면 그 사람이 엿 값을 물어내는 놀이다. 그래서 엿을 고를 때 구멍이 크게 뚫렸을 가능성이 있는 엿가래를 고르려고 목판에 있는 엿가래를 뒤적거리기도 한다. (≪청양의 민속≫, 청양문화원, 1994.)

(7) 윷놀이

① 대치면 광금리의 윷놀이

척사대회라고도 한다. 산제가 끝나면 마을로 내려와서 윷놀이를 하며 놀았다. 편을 나눌 때에는 남, 여를 골고루 섞어서 나누는데, 이때 각 편의 이름은 수답과 봉답이라고 부른다.

수답이 이기면 물이 많아서 비가 잘 안 오게 되고, 그 해 농사는 가물어서 망치게 된다. 만약 봉답이 이기면 풍년이 된다고 해서 한 해 농사를 점쳤다.

이는 마른갈이에 비가 자주 와서 골고루 물이 내려와야 이긴다고 생각했다. 이 동네는 물이 적어서 물이 매우 중요하다

고 한다. 그러나 풍년이 들라고 일부러 봉답이 이기게 하지는 않는다.

윷은 밤나무로 만드는데, 길이는 어른 손 한 뼘 정도이며, 굵기는 손가락 두 개 정도이다. 뒷토는 없으며 지금도 산제사 지내고 난 뒤에 즐기는 놀이이다. (대치면 광금리 노광호)

② 목면 본의2리의 윷놀이

제가 끝나면 남은 기금으로, 다음날 생필품을 사다가 편을 짜서 윷놀이하고 논다. 예전에는 편을 짜서 누구네가 이기면 풍년이 든다며 정하고 놀았는데, 요새는 그렇게는 놀지는 않는다. 다만 풍물을 치며 놀며, 그때에 따라 어느 팀이 이기면 풍년든다고 정해서 놀기도 한다. (목면 본의2리 김천식)

③ 정산면 송학리의 윷놀이

동화제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윷놀이를 한다.

(정산면 송학리, 오영삼)

④ 화성면 장계리의 윷놀이

장계리에서는 척사대회는 없었다. 설날에는 장계리 마을 회관에 마을 사람들이 다같이 모여서 윷놀이를 하면서 놀았다.

(화성면 장계리, 이순이)

⑤ 정산면 광생리의 윷놀이

윷은 한 뼘 정도 되는 크기이며, 밤나무로 만든다. 윷판은

세로와 가로가 있는 사각형의 형태이다. 말은 편을 나눠서 짝수로 맞춰서 놀았다. (정산면 광생리, 오세형)

⑥ 화성면 화암리의 윷놀이

새해에 대표적 놀이로 윷놀이를 했다. 윷의 만드는 나무는 대개 밤나무나 참나무를 썼고, 길이는 20센티미터 정도였다. 새해에서 보름까지만 윷놀이를 했다. 만약 보름이 지나서 윷놀이를 하면 보리흉년이 든다고 한다.

(화성면 화암리, 송요선)

⑦ 목면 본의 1리 무수동의 윷놀이

정초에 윷놀이를 했으며, 어른들은 윷점을 쳤으나,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 정초에 십이지를 따져 첫 번째 날에 특별히 금하는 일은 없으나, 따져서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들었다. (목면 본의 1리 무수동, 김홍식)

⑧ 정산면 서정리의 윷놀이

윷판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주로 정사각형과 원형인 29개의 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지역에서는 주로 정사각형 윷판(말판, 넉 동판)을 사용하였으며, 자리 하나하나에 명칭이 있다. 그런 이유로 윷판을 사용하지 않고 머리 속으로 말판을 써서 놀았고 6. 25동란 이후부터 윷판을 그려 윷놀이를 하였다. (정산면 서정리, 윤흥수)

⑨ 화성면 산정리의 윷놀이

이 지역에서는 주로 정초부터 정월보름사이에 부녀자들이 편을 나누러 윷놀이를 실시하였다.

윷놀이를 할 때는 말이 뒤로 후퇴되는 '뒷도'가 있는데 그것은 옛날부터 실시된 것이 아니라, 근래에 생긴 것이라 한다.

내기로 '옷 벗기'를 하였는데, 따라서 윷놀이를 할 때면 버선을 많이 신고, 옷을 몇 겹으로 입고 왔다고 한다. 한 판 한 판 질 때마다 버선을 벗고, 또 지면 옷도 벗고, 나중에 속바지만 남을 때까지 벗었다고 한다. 그 후에 지게 되면 이긴 편에게 속바지만 입은 채로 절을 하였다고 한다.

(화성면 산정리, 이태근)

⑩ 운곡면 모곡리의 돈내기 윷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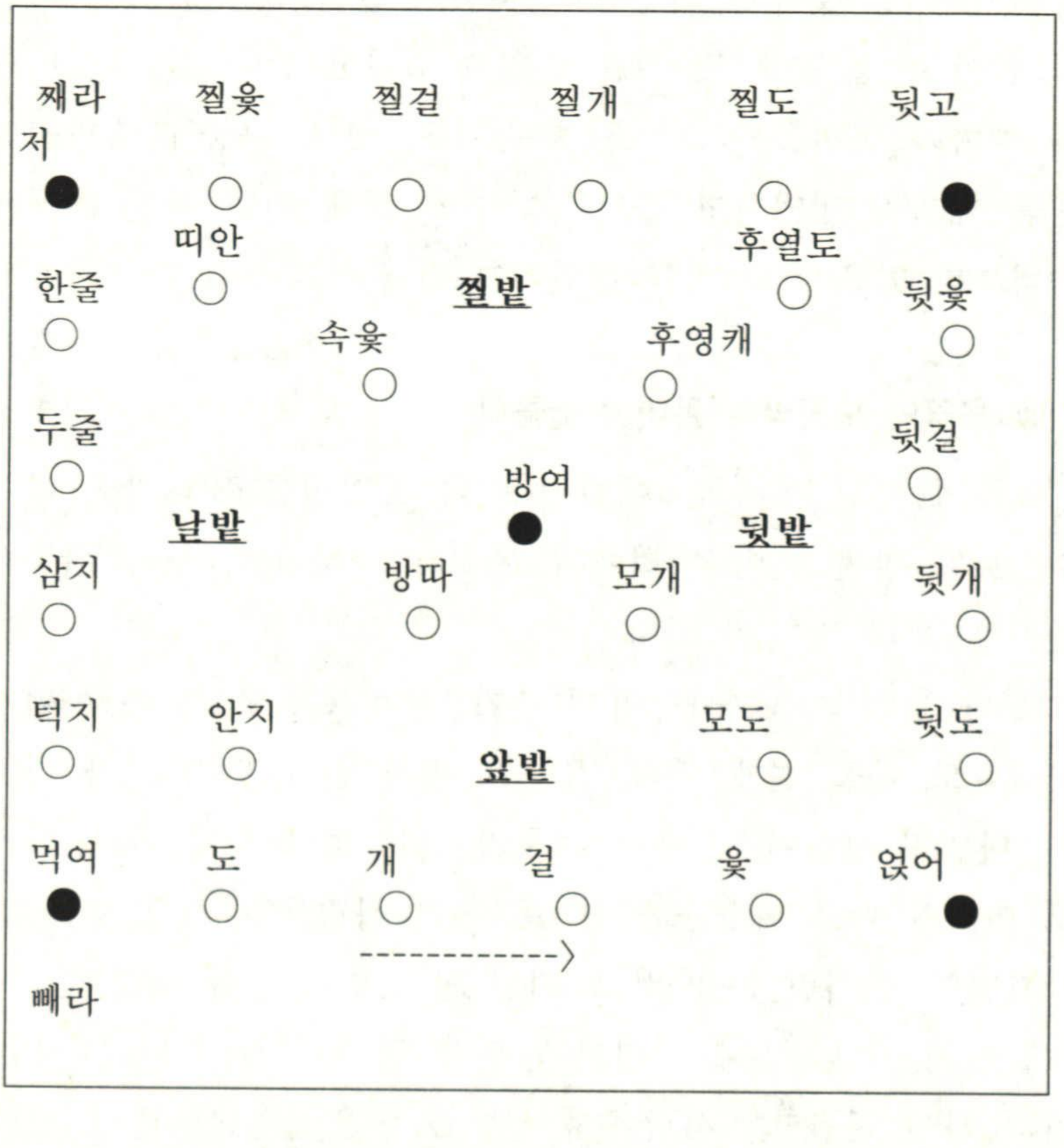
윷놀이는 단순한 놀이에서 벗어나 도박성을 지니기도 하였다. 보통 말판 놀이 방법에서 돈내기를 하지만, 도박 위주의 놀이로 '모다 먹기'가 있다.

'모다 먹기'는 한 사람이 물주가 되어 판돈을 걸고, 나머지 사람들도 돈을 걸게 된다. 물주가 먼저 윷을 던져 모가 나오면, 나머지 사람이 건 돈을 물주가 모두 먹을 수가 있다. 만약 모 이하가 나올 때는 물주는 돈을 건 사람들과 각각 윷을 놀아가면서, 이기면 돈을 먹고, 지면 건 돈만큼 돈을 내준다.

같이 윷이 나올 때는 비기게 된다. 물주가 윷이 나면 '사윷'이라 하여 돈을 건 사람에게 건만큼 돈을 주어야 한다. 물주가 건 판돈을 전부 잃으면 그 판은 끝나게 되며, 한편 물주가

전부 갖게 되면 그 판은 끝나게 된다. 그리고 물주가 돈을 따게 되면, 돈을 계산해 주는 사람과 구경꾼에게 기분 좋다고 하여 딴 돈에서 얼마의 돈을 주는데 이를 '개평'이라 한다.

(운곡면 모곡리, 양지석)



(8) 자치기

① 장평면 분향1리의 자치기

큰 막대기로 작은 막대기를 쳐서 얼마만큼 멀리 갔는지를 잰다. 조금이라도 더 멀리 나가도록 상대편 모르게 길이를 조금씩 늘리는 식으로 속이기도 했다. (장평면 분향1리, 조민행)

② 정산면 송학리의 자치기

자치기는 한자 길이 정도 되는 큰 자와 작은 자를 이용하여 노는 놀이이다. 대각선으로 자른 작은 자를 땅에 놓고 큰 자로 쳐서 띄운다. 그리고 큰 자로 땅에 놓은 작은 자를 쳐서 올려 공중에 뜬 작은 자를 멀리 쳐낸다. 작은 자가 몇 자나 멀리 갔는지 큰 자로 거리를 재서 가장 멀리 보낸 사람이 이기는 놀이이다. 남자와 여자 모두가 같이 했다.

(정산면 송학리, 오영범)

③ 남양면 온암리의 자치기

자치기는 큰 자로 땅에 놓은 작은 자(매떼기)를 쳐서 공중에 날려서 멀리 보내는 놀이이다. 자가 멀리 간 사람이 이긴다.

(남양면 온암리, 정일순)

④ 화서면 산정리의 떠 던지기

자치기는 기본적으로 원을 그려 놓고 놀기와 홈을 파고 놀

기의 2가지가 있다.

우선 떠 던지기를 일명 '보지자치기'라고도 하는데, 4~6명이 편을 나누어 순서를 정한 후, 마당 한 쪽에 길이 15cm, 깊이 3cm 내외의 홈을 파고 시작한다. 메뚜기를 홈에 걸쳐놓고 자막대로 떠받쳐 힘껏 앞으로 밀어낸다. 이 때 상대편이 받으면 바로 교대하게 된다. 만약 받지 못하면 메뚜기를 홈에 가로 놓여 있는 자 막대를 맞추거나 원 안에 들어가게 한다. 이럴 경우도 교대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도 맞추지 못하거나, 원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자막대로 3번 메뚜기를 퉁겨 쳐내는 것이다. 이때 공중에 있는 메뚜기를 상대편이 맞으면 그 사람은 죽게 된다.

자를 잴 때에는 메뚜기가 떨어진 지점에서 원까지를 말하며 그런 후에 몇 자라고 부르는데 부른 자가 넘으면 계속해서 놀이를 하지만 되지 않을 경우 부른 사람은 죽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미리 정한 자수에 먼저 이르는 편이 이기게 된다. 보통 천자에서 이천 자 내기를 하고 끝나지 않을 경우에는 며칠이 걸려서 연장해서 하기도 하였다.

(화서면 산정리, 최종기)

⑤ 목면 안심리의 종아리 치기

종아리 치는 방법을 '원 긋고 놀기'라고도 한다. 곧 원을 그려 놓고 놀기도 하고, 또한 담 벽을 등지고 할 때에는 벽의 중심으로 반원을 그리고 놀이를 한다.

메뚜기를 왼손에 들고 오른손의 자막대로 때려서 처내어 먼 곳으로 날려보낸다. 상대편이 받으면 그 사람은 죽고 교대하지만, 받지 못하면 메뚜기가 떨어진 지점에서 원 안으로 던지게 된다. 원 안에 들어가면 교대가 되므로 원 밖으로 쳐낸다. 쳐 낸 후에 떨어진 지점에서 자막대로 3번 퉁겨서 쳐낸다. 그런 후에 몇 자라고 부르는데 부른 자가 안 될 경우에는 상대편은 자를 잴 수 있다.

자를 잴 때에는 막대 자로 재는데 부른 자가 넘으면 계속해서 놀이를 하지만,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른 사람은 죽게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미리 정한 자수에 먼저 이르는 편이 이기게 된다. 보통 천 자에서 이 천자 내기를 하고 끝나지 않을 경우는 며칠에 걸려 실시하기도 하였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⑥ 대치면 탄정리의 자치기

㉠ '일방서리'는 단지 처음 공격자가 자막대로 메뚜기를 쳐내는 것이 다르다. 일방 서리는 오른 손으로 자막대와 메뚜기를 같이 들고 있다가 메뚜기를 살짝 놓으며 자막대로 쳐낸다.

㉡ '두방거리'는 단지 오른손으로 자 막대를 수평으로 잡고 메뚜기를 중앙을 잡아 가로로 놓아서 공중으로 띄운 다음 자막대로 앞을 향하여 친다. 상대가 받지 못하면 다음 순서로 진행하게 된다.

㉢ '대포'는 파진 홈에 메뚜기 끝을 땅위에 조금 사이가 뜨게 비스듬히 세워 놓고 자막대로 메뚜기의 끝을 치어 메뚜기

가 공중으로 뜨게 된다. 메뚜기를 상대가 받으면 교대되지만 받지 못하면 메뚜기가 떨어진 지점에서 홈까지 자를 부르게 된다.

대충 자수를 부르는데 상대편이 볼 때 안 된다고 생각되면 재게 된다. 부르는 자수가 나오면 그 자수의 배로 쳐주어 공격자 자수 계산을 하고 안 나오면 공격자는 죽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미리 정한 자수에 먼저 이르는 편이 이기게 된다.

(대치면 탄정리, 복진세)

⑦ 목면 신흥리의 도둑놈 자치기

이것은 여러 명이 편을 나누어 순서를 정한다. 먼저 출발선을 그리고 출발선에서 2m떨어진 지점에 3개의 원을 그리고 안쪽에 5, 3, 1이라는 숫자를 쓴 과녁을 그린다.

순서에 의해 막대 자로 메뚜기를 쳐서 과녁을 맞힌다. 과녁을 맞히지 못하면 교대가 되고 맞힐 때에는 과녁의 횟수에 따라 퉁겨서 그 메뚜기를 받아 도망가게 된다. 수비자는 출발선에서 공격자를 쫓아가게 되는데, 손으로 치기 전에 메뚜기를 멀리 던져야 한다.

던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격자는 죽게 되어 교대가 된다. 공격자는 수비자가 손으로 치기 전까지는 멀리 달아날 수 있어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매우 유리하여 편을 나눌 때 참고로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미리 정한 자수에 먼저 이르는 편이 이기게 된다.

(목면 신흥리, 윤범수)

⑧ 청양의 자치기

소년들이 주로 하는 놀이로, 손가락 굵기 만한 나무를 약 50cm 쯤 잘라 자막대로 사용하고, 15cm 쯤 되는 나무를 메뚜기로 사용한다. 그래서 골목길이나 동네의 넓은 마당에서 자치기를 한다. 마당 한쪽에 길이 15cm, 깊이 3cm 내외의 홈을 파고 편을 나누어 순서대로 시작한다.

처음에는 메뚜기를 홈에 걸쳐놓고 자막대로 떠받쳐 힘껏 앞으로 던진다. 이때 상대편은 앞자리 적당한 곳에 서서 메뚜기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받으면 교대하고, 받지 못하면 메뚜기를 주위 홈에 가로로 놓여있는 자막대를 던져서 맞추면 교대하게 되된다. 만약 맞추지 못하면 다음 순서를 하게 된다. 이것을 '떠 건지기'라 한다.

두 번째는 메뚜기를 왼손으로 들고 오른손의 자막대로 때려서 먼 곳으로 날려보내는 방법이다. 상대편에서 받지 못하면 메뚜기가 떨어진 자리에서 홈 쪽으로 던진다. 홈 앞 5자 정도 선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교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를 들고 있는 사람은 상대가 던져서 날아오는 메뚜기를 선 밖으로 쳐내려고 애쓴다. 이를 '종아리'라 한다.

세 번째로 오른손으로 자막대와 메뚜기를 같이 들고 메뚜기를 살짝 놓으며 자막대로 쳐낸다. 이 때에 상대가 받지 못하면 그대로 메뚜기를 던져준다. 이를 '일방서리'라 한다.

네 번 째는 오른손에 자막대를 수평으로 잡고 위의 끝에 메뚜기를 중심 잡아 가로로 놓아 공중으로 띄운 다음, 자막대로

앞을 향하여 친다. 상대가 받지 못하면 다음 순서를 진행하게 된다. 이를 '두방거리'라 한다.

다섯 번 째는 홈에 메뚜기 끝을 땅위에 조금 사이가 뜨게 비스듬히 세워놓고 자막대로 끝을 치면 메뚜기가 공중으로 뜨게된다. 이때 공중에 뜬 메뚜기를 자막대로 앞을 향하여 힘있게 내친다. 상대가 받지 못하면 메뚜기가 떨어진 거리까지 홈에서 몇 자쯤 될 것인가를 어림잡아 자수를 부르게 된다. 그 자수가 안 된다고 생각되면 상대는 재보자고 한다. 이때 자로 재서 이기는 쪽은 곱 이득점이 가산되고 재지 않을 때는 부른 자수만 득점이 된다. 이를 '대포'라 한다.

이와 같이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서로 정한 최종 자수에 먼저 얻는 편이 이기게 된다. 그러나 노는 방법이 약간 위험하여 때로는 메뚜기에 이마를 맞아 피를 흘리는 경우도 있고 눈을 맞아 눈을 먼 사례도 있다.

(≪청양의 민속≫, 청양문화원, 1994.)

(9) 튕기바리(땅따먹기)

① 장평면 분향 1리의 튕기바리

땅에 일정한 크기를 그려놓는다. 주로 원을 그리며, 사각형을 그리기도 한다. 각각 마주보게 하여 서로의 집을 정한다. 쇠금파리(튕길 만한 것)를 돌멩이나 쇳덩이나 어느 것을 정해서 튕길 것을 정한다.

집에서 출발해서 3번을 치는데, 3번만에 집에 들어와야 그만큼의 땅을 먹는다. 이것을 '끊어 먹는다'라고 표현한다. 튕길 때에는 원 안에서만 가능하며, 원 밖으로 나가거나, 3번만에 못 들어오게 되면 무효로 친다. 계속해서 땅을 따낸 위치에서 시작하며, 땅을 많이 차지한 사람이 이긴다.

(장평면 분향1리, 김완수)

② 정산면 용두리의 땅빼앗기

순서를 정한 후 사금파리를 이용하지 않고 자기 집의 바깥선에 왼손 엄지손가락을 대고 밖으로 가장 긴 장지로 반원을 그리며 선을 그어, 그 선 안의 땅을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계속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이길 때마다 차지한 땅의 외선에 다시 엄지를 기준으로 하여 먼저 방법처럼 가장 효율적으로 면적을 넓혀간다. 나중에 가장 넓게 차지한 사람이 이기게 된다.

(정산면 용두리, 최웅매)

③ 남양면 온암리의 땅뺏기

두 명이 마주 앉아 하는 놀이이다. 돌을 쳐서 그 돌이 이동한 자리만큼 손으로 동그렇게 구획을 잡아, 원 형태로 땅을 차지한다. 끝에 가서 많은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이기게 된다.

(남양면 온암리, 정일순)

④ 대치면 시전리의 땅빼앗기(퉁겨먹기)

먼저 노는 사람 수에 맞게 적당한 원 혹은 네모를 그리고, 원일 경우에는 엄지손가락을 선에 대고 반원을, 네모일 경우에는 1/4 원을 그려 자기 집을 정한다.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순서를 정한 후, 직경 3cm 정도의 매끈매끈한 사금파리 조각이나 납작한 돌로 만든 목자를 자기 집에 놓고 집게 손가락 손톱으로 세 번을 퉁겨 자기 집에 들어오면 목자가 간 길을 따라 선을 그어 안쪽의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땅을 점령하다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선과 한 뼘 거리가 되면 덤으로 차지할 수가 있다. 자기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거나 밖으로 나가거나 선에 목자가 물리면 실격이 되어 공격권이 상대에게 넘어간다. 이러한 방법으로 많은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이기게 된다. (대치면 시전리, 한태순)

(10) 연날리기

① 청양읍 적누리 1구의 연날리기

겨울철에 연을 날렸다. 실 패는 나무로 직접 만들었으며, 실은 명주를 사용했다. 연은 정월부터 2월 사이에 날렸으나, 주로 정월에 날렸다. 보름에 액을 날려보내기 위해 연을 하늘에 날리는 것은 이곳에 없었으며, 다른 마을에서 한다는 말은 들었다. 연줄에 사금파리를 먹여서 연싸움도 하지 않았다.

(청양읍 적누리 1구, 노병두)

② 장평면 미당리의 연날리기

정초 보름 때에 넓은 논에 나가서 소년들이 연을 날렸다. 연의 형태는 방패연을 주로 만들어 놀았다. 연에 부락 이름을

써서 날렸는데, 그러면 액땜이 된다고 믿었다.

(장평면 미당리, 서기복)

③ 남양면 온암리의 연날리기

연의 종류로는 가오리연, 방패연 등이 있다. 정월 보름날 액떨어지라고 줄을 끊어서 하늘로 올리는데, 이 연이 산까지 올라간다.

(남양면 온암리, 정일순)

④ 정산면 송학리의 연날리기

연은 정월 초하루부터 만들어서 보름까지 날리며 논다. 연의 종류는 방패연과 홍어연(세모꼴)이 있었는데, 문구나 장식을 하지 않은 백연이었다. 연의 밑둥에는 꼬리 3개를 꼭 달았으며, 이같은 연들은 노인들이 아이들에게 가지고 놀라고 직접 만들어 선물하였다.

보름 때까지 연을 다 놀고 나면 보름날 연을 띄워 줄을 끊는다. 그렇게 하면 액운이 떨어져 나간다고 믿었다. 연줄 싸움도 하였는데, 사기그릇 깨진 것을 잘게 빻아서 연줄에 묻히면 까끌까끌해서 다른 연줄을 쉽게 끊을 수 있었다. 연은 아이들이 주로 하는 놀이이다.

(정산면 송학리, 오영범)

⑤ 화성면 농암리의 연(鳶)날리기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간격을 유지하여 모두 횡으로 늘어서 서, 보조자가 들고있던 연을 머리위로 띄어 주면 연을 날

린다. 연 실의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자신의 머리 위로 띄워야 아갈 수 있고, 일정한 시간 안에 가장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 이기게 된다. (화성면 농암리, 최종기)

⑥ 대치면 농소리의 연날리기

연을 날리면서 여러 가지 묘기를 부리기도 한다. 연을 높이 띄워 실을 감았다 풀었다 하여 연을 상하, 좌우로 묘기를 부리는 것으로 승부를 겨룬다. (대치면 농소리, 이태근)

⑦ 남면 대봉리의 연싸움

연싸움은 연을 높이 띄우고 상대의 연줄을 끊어 승부를 겨루는 것이다. 연놀이 중에서 가장 흥미 있고 재미있는 놀이 방법이다.

연줄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유리조각이나 사금파리를 곱게 빻아 밥풀에 잘 섞어서 연줄에 묻힌 다음에 말려서 연싸움을 한다. 연의 방향을 잘 조종해서, 상대의 연줄이 끊어지게 하여 날아 가버리면 이기게 된다. (남양 대봉리, 강희배)

⑧ 정산면 서정리의 액연날리기

연날리기는 놀이의 성격도 있지만, 민간신앙에 바탕을 두고 액을 떨쳐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날리기도 있다. 정월 보름날 저녁에 연을 띄어 보내면, 그 이후 연날리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액연날리기는 연에 액막이 글귀 '액(厄)', '송액(送厄)',

'송액영복(送厄迎福)'을 써서 높이 띄운 후, 실을 끊어 멀리 날려보내기도 하고, 창호지에 액막이 글귀를 써서 연줄에 매달고 불을 붙여, 저절로 실이 끊어지게 하여 날리기도 한다.

(정산면 서정리, 윤흥수)

(11) 빠지(딱지)치기

① 대치면 대치리의 빠지치기

빠지(딱지)를 종이로 가로, 세로 3cm 정도의 사각형 모양으로 접어서 따먹기를 하였다. 상대방의 빠지를 쳐서 넘기면 먹게 된다. 이 놀이는 남자와 여자 아이들이 모두 즐겼다.

(대치면 대치리, 강재금)

② 남양면 대봉리의 딱지치기

우선 가위 바위 보로 순서를 정하고, 진 사람이 딱지를 땅에 놓는다. 그러면 이긴 사람이 딱지를 자신의 발 안쪽에 갖다대고 딱지를 높이 든 다음 힘껏 내려친다.

이 때에 바람의 영향으로 뒤집히면 먹게 되고, 뒤집히지 않으면 교대를 한다. 또한 상대의 딱지를 위에서 바로 내려 쳐서 뒤집어면 따먹는 방법도 있다. (남양면 대봉리, 강희배)

③ 청양 지역의 딱지치기

겨울철이나 한가로울 때에 아이들이 종이로 딱지를 만들어 논다. 주로 양지바른 곳에 모여서 딱지치기를 한다.

지역에 따라서 딱지치기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각자 딱지를 가지고 가위바위보로 순위를 정한 다음에, 상대방의 딱지를 쳐서 따먹는 식이 있다.

그리고 지름이 80cm 정도의 원을 그려놓고 원의 둘레에 두 팀으로 갈라선다. 적당한 크기의 종이를 접어 1인당 5개 정도의 딱지를 만들어 논다. 1명은 원 안에 자기의 딱지를 쳐놓는다. 다른 사람은 딱지를 땅바닥에 닿게 하면서, 상대편의 딱지를 겨냥하여 친다. 뒤집힌 딱지와 원 밖으로 나간 딱지는 상대편에게 빼앗긴다. 일정한 시간이 되면 서로 딱지 수를 세어서 많이 소유하고 있는 편이 승자가 된다.

(≪청양의 민속≫, 청양문화원, 1994.)

(12) 공기놀이

① 대치면 대치리의 공기놀이

공기놀이는 둘이서 5알의 공기를 가지고 꺾기를 해서 승부를 겨루는 놀이이다. 공기알은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크기이다.

(대치면 대치리, 강재금)

② 남양면 온암리의 공기놀이

작은 돌을 5개로 여자아이들이 땅바닥에서 주로 하는 놀이였다. 5개의 돌 중 4개를 뿌리고 1알만 잡으면서 시작한다. 그 뒤로 2알, 3알, 4알, 5알의 순서대로 잡으면서 논다.

여자아이들은 흙 땅에서 공기놀이를 많이 해서 손이 모두 까져 있을 정도였다. (남양면 온암리, 정일순)

③ 화성면 장계리의 공기놀이

공기놀이는 공기돌 5개를 가지고 손에 얹으며 노는 놀이이다. 이때 꺾기를 할 때 '옥 받는다'라고 하며, 꺾어서 받지 않고 손등과 손바닥만 움직일 때 이를 '자세 받는다'라고 한다.

공기돌은 조그만 돌을 주워서 했는데, 돌을 많이 주워 손에 올린 후 꺾어서 많은 돌을 받은 사람이 이기는 놀이이다.

(화성면 장계리, 이순이)

④ 청양 지역의 공기놀이

공기놀이는 주로 여자아이들이 노는 놀이로, 밤알 만한 작은 돌 5개를 땅에 깔아놓고, 두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편을 짜서 논다.

먼저 오른손으로 하나를 공중에 던지고, 그 돌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재빠르게 땅바닥에 갈린 돌 중에서 하나를 집는다. 그리고 던졌던 돌과 함께 오른손으로 움켜쥐는데, 이 단계를 '하나집기'라고 한다. 만일 이 때에 깔려있는 돌을 건드리거나

던졌던 돌을 손에 쥔 돌과 함께 받지 못하면 실격이 되어 상대방과 교대해야 한다.

'하나집기'가 끝나면 다음은 '둘집기', '셋집기'를 한다. 둘집기는 둘씩 2번 집고, 셋집기는 셋을 집고 남은 하나를 집는다. 다음 넷을 막 집는데, 그래서 '막집기'라고 한다. 막집기까지 끝나면 공기돌 5개를 한번에 집어던지고 손등으로 받는다. 손등에 올려놓은 돌을 다시 공중에 던지고 손아귀로 잡아챈다. 이때 잡은 돌 개수만큼 점수를 딴다. 이렇게 되풀이하면서 따낸 점수를 누계하여 일정 시간에 점수가 많은 쪽이 승자가 되는 것이다. (≪청양의 민속≫, 청양문화원, 1994.)

(13) 고무줄놀이

① 대치면 대치리의 고무줄놀이

고무줄놀이는 주로 여자아이들이 고무줄을 갖고 노는 놀이이다. 고무줄을 양쪽에서 한 사람씩 들고 있으면, 상대방이 고무줄을 뛰어넘는 방식이다. 높이는 위아래로 자유롭게 이동하며, 높이 뛰어넘으면 이기는 방식도 있다.

(대치면 대치리, 강재금)

② 남양면 온암리의 고무줄놀이

㉠ 잇생도까 : 다같이 '잇생도까 조생징구'라는 노래를 부르며 양쪽에서 한 줄로 된 고무줄을 붙잡고 가운데에서 발로 노

는 놀이이다.

② 사까다찌 : 양쪽의 동무들이 고무줄을 붙잡으면, 손을 땅에 짚고 다리를 올려서 물구나무를 서서 한 줄 고무줄을 넘는 놀이이다. 고무줄 놀이를 할 때는 일본노래를 주로 불렀다. 우리말 노래는 거의 없었다. 놀이 용어도 모두 일본어였다.

(남양면 온암리, 정일순)

③ 화성면 장계리의 고무줄놀이

고무줄 놀이는 처음에는 발목 높이부터 시작하여, 점차 높이를 높이는데, 높을수록 재주를 넘듯이 한다. 한 단계씩 높이며 노는데 가장 높이 올라간 사람이 이긴다.

고무줄 넘기(줄넘기)는 2명이 양쪽에서 고무줄을 잡고 돌리면, 한 명 또는 두 명이 가운데에 들어가서 '폴짝' 넘는다. 이때 고무줄이 아니고 새끼줄로 넘는 경우도 있었다.

(화성면 장계리, 이순이)

④ 화성면 선정리의 고무줄놀이

소녀들이 주로 겨울철에 즐기는 놀이로, 가늘고 길다란 고무줄을 이용하여 고무줄을 양쪽에서 잡고 다리에 고무줄을 걸고 여러 가지 노래에 맞추어 앞과 옆, 뒤로 뛰면서 놀이를 한다.

우리나라에서 보편화된 시기는 1910년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일제시대하에서 신체단련의 종목으로 많이 실시하였다. 최소한 3명이나 여러 명이 짝을 지어 즐길 수 있는 놀이로 양쪽에

서 사람이 고무줄을 밟거나 잡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람이 적을 경우에는 기둥이나 전봇대 같은 곳에 고무줄을 매어 놓고 놀기도 한다.

고무줄 놀이 방법에는 고무줄에 닿지 않게 넘기, 고무줄에 얼마나 높이 다리를 걸 수 있는가를 겨루는 것, 물구나무로 뛰어넘기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또한 한 줄 고무줄이 있고, 고무줄 매듭을 묶어서 두 줄 고무줄로 놀기도 한다.

(화성면 산정리, 이태근)

⑤ 정산면 역촌리의 고무줄놀이

㉠ 한 줄 고무줄 : 이 놀이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까지 줄을 올려 얼마만큼의 높이까지 다리를 걸고 넘을 수 있느냐에 따라 승부가 결정된다. 즉 여기에서 처음에는 앉아서 무릎-어깨-머리의 높이에 맞추어 실시하고, 그 후 선 상태에서 허리-겨드랑이-어깨-머리-까치발의 순서로 줄의 높이를 높여가며 놀이를 한다. 고무줄을 뛰는 사람은 발을 벌려 줄을 걸친 후, 노래에 따라 여러 가지 동작을 하면서 논다. 도중에 줄에 닿지 않으면 실격이 되어 교대한다.

㉡ 두 발로 고무줄 넘기 : 높이 설정은 한 줄 고무줄과 같으나, 다만 한 줄에 양손으로 지면을 짚고 두 발로 고무줄을 뛰어 넘는다. 물구나무서기의 동작으로 고무줄을 뛰어 넘어서 먼저 끝까지 통과하면 이기게 된다. (정산면 역촌리, 유영자)

(14) 소꿉장난

① 운곡면 신대리의 소꿉장난

주위에서 구하기 쉬운 사금파리나 얇은 돌, 또는 조개껍질을 이용해 소꿉장난을 한다. 이런 것을 주워다가 솥을 걸고, 밥그릇과 반찬그릇으로 삼고, 모래나 흙으로 밥을 짓는다. 그리고 풀잎과 나뭇잎을 따다가 반찬을 만들어 살림살이 흉내를 낸다. 한편 아버지와 어머니를 정하고, 손님까지 초청하여 접대하는 놀이까지 하였다. (운곡면 신대리, 김영자)

② 대치면 대치리의 소꿉장난

소꿉장난은 주로 여자들이 하는 놀이로 풀을 뜯어서 각시를 만들며 노는 놀이이다. 곧 풀을 뜯어서 각시를 만들어, 머리도 땋고, 낭자도 꽂으며 놀았다. (대치면 대치리, 강재금)

(15) 숨바꼭질

① 대치면 대치리의 숨바꼭질

여자들은 주로 숨바꼭질을 하며 놀았다. 술래 - 이 용어는 이곳에서 사용하지 않았음 - 를 정해서 눈을 감게 한다. 이 때에 나머지는 적당히 숨는데, 만약에 들키면 그 사람이 술래가 된다. (대치면 대치리, 강재금)

② 남양면 온암리의 숨바꼭질

숨바꼭질은 해가 져서 어둑어둑한 밤에 많이 하였다. 술래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라고 노래를 몇 번 부르면, 다른 아이들은 곳곳에 흩어져 숨는다.

그리고 숨은 사람이 술래가 있는 기둥에 발각되지 않고 먼저 손을 치게 되면, 술래는 바뀌지 않는다. 아이들은 마을의 변소, 개울가 할 것 없이 별의별 곳에 다 숨는다. 찾기가 매우 힘들었지만, 매우 재미난 놀이였다. (남양면 온암리, 정일순)

③ 화성면 산정리의 숨바꼭질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진 아이가 술래가 되고 다른 아이들은 숨는다. 술래가 벽이나 전봇대를 집으로 정하고, 얼굴을 대고 정한 숫자를 세든지, 아니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10회 반복한다. 그 사이에 다른 아이들은 모두 숨는다.

술래는 다른 아이들이 숨을 때까지 횟수를 반복한 후 "숨었니?" 하면 다른 아이들은 "찾아라"하고 대답한다. 술래가 "숨을 꽁, 찾을 꽁"하면서 찾는데, 숨은 아이를 발견하면 이름을 부르고 집을 찍어야 한다. 그러나 발견된 아이가 술래보다 집을 먼저 찍으면 살게 된다. 술래가 된 아이가 많으면, 가위 바위 보를 하여 다음 차례의 술래를 정한다. 술래 몰래 재빨리 달려와 집을 찍으면 살게 된다.

집을 찍은 아이들은 술래가 찾으러 다니는 동안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어디 어디 숨었니?"를 합창하면서 술래

를 놀려대 약을 올리기도 한다. 술래가 한 사람도 찾지 못하면, 또 술래가 되어 놀이는 계속된다. (화성면 산정리, 이태근)

④ 운곡면 신대리의 장님술래

가위 바위 보로 술래를 정한 뒤 수건으로 술래의 눈을 가린다. 다른 사람들은 술래 주위에서 "나 잡아 봐라" 하고 박수를 치거나 노래를 불러, 자기의 위치를 알려준다. 그러면 소리에 따라 눈을 가린 채 움직여서, 다른 사람들을 잡으면 그 사람이 술래가 된다. 또 잡은 후에 누구인지 이름을 알아 맞추면 술래를 면하게 되고, 잡힌 사람이 술래가 된다.

(운곡면 신대리, 김영자)

⑤ 청양지역의 술래잡기

술래잡기 놀이는 임진왜란 때 생긴 강강수월래에서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청양 지방에 있는 술래잡기 놀이의 형태는 ①짝 술래 ②한 손 술래 ③놀리기 술래 ④수 늘리기 술래 ⑤자리 뺏기 술래 ⑥이어달리기 술래 ⑦자리잡기 술래 등이다.

놀이 방법을 보면, 한사람이 원심을 향하여 일렬 원형으로 선 다음, 지름이 10m 정도의 원을 그려놓고, 술래는 가운데서서 시작신호를 기다린다. 술래는 원 안에 들어가 있고, 10여 명의 아이들은 술래를 놀리기 위하여 선을 중심으로 선다.

시작신호에 맞추어 뛰어나간 아이들은 다시 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술래는 이 아이들을 쫓아다니며 잡는다. 원 안

으로 오다가 잡히면 그 아이가 다음 술래가 된다. 여러 아이들은 손을 잡고 큰 원을 만들고 있다가, 술래가 통과하려면 제지한다. 한편 원 안으로 들어온 아이들은 앉아서 쉰다.

(≪청양의 민속≫, 청양문화원, 1994.)

⑥ 청양의 눈 가리고 잡기 놀이

여름에서 가을철까지 달 밝은 밤에 마당에서 아이들은 가위바위보로 술래를 정한 후, 수건으로 술래의 눈을 가린다. 다른 사람들은 술래 주위에서 박수를 치거나 노래를 불러 자기의 위치를 알린다. 술래는 눈을 가린 채 주위에 있는 사람을 잡으면 그 사람이 술래가 된다.

(≪청양의 민속≫, 청양문화원, 1994.)

⑦ 운곡면 신대리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

이 놀이는 술래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외치고 뒤를 보는 순간, 움직이는 것이 발견되면 잡히게 된다. 잡힌 사람은 술래 뒤에 줄줄이 늘어서 있다가, 그 중에서 나중에 술래를 정한다. 이 놀이는 아이들의 순발력과 재치를 키워주는 놀이이다.

놀이의 방법은 전봇대나 벽의 목표물로부터 10m 되는 거리에 선을 그어 놓고 술래를 정한다. 술래는 벽에 기대어 뒤돌아 서서 눈을 감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외치고 재빨리 뒤를 돌아본다. 술래가 외치는 동안 다른 아이들은 걸음을

술래 쪽으로 옮긴다. 되돌아보았을 때 움직이는 것이 발견되면 술래 뒤에서 새끼손가락을 걸고 늘어선다 다른 아이들이 술래 가까이 다가가서 손가락으로 연결된 것을 끊으면 늘어선 사람들은 재빨리 출발선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 때 술래는 달려가서 다른 아이들을 손으로 쳐야 하는데, 손이 닿은 사람이 술래가 된다. 만약 술래 뒤에 늘어선 사람이 없으면 술래 등을 치고 출발선으로 돌아온다, 이때에도 치면 술래가 되고, 움직이는 것이 들켜서 모두 다 늘어서게 되면 가위바위 보를 하여 다음 놀이의 술래를 정한다.

(운곡면 신대리, 김영자)

(16) 제기차기 놀이

① 정산면 송학리의 제기차기

엽전에 창호지를 씌워서 직접 손으로 제기를 만들어 놀았다. 발기술로는 다리 안으로 차기, 밖으로 차기 등이 있다. 주로 남자 아이들이 많이 놀았고, 여자 아이들은 하지 않았다.

(정산면 송학리, 오영범)

② 청양지역의 제기차기

이 놀이는 계절이 따로 없지만 주로 음력 정월이 되면 많이 했다. 제기는 엽전 같은 것에, 흰종이로 싸고 끝 부분은 가위로 오려서 잘 나풀거리게 만든다. 주로 사내아이들이 많이 하

는 개인놀이의 일종으로, 놀이방법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다.

㉠ 발 안쪽으로 차기 : 제기를 찰 때마다 오른쪽(왼쪽) 발을 땅에 대면서 발 안쪽으로 찬다. 발을 땅에 대지 않고 계속해서 발 안쪽으로 차고, 오른쪽 발과 왼쪽 발을 번갈아 가면서 차는 경우도 있다.

㉡ 발 안쪽과 바깥쪽으로 번갈아 차기 : 제기를 찰 때마다 발을 땅에 대면서 발 안쪽과 바깥쪽으로 번갈아 찬다. 한편 발을 땅에 대지 않고 번갈아 차는 경우도 있다.

㉢ 승부 정하기와 규칙 : 발로 찬 수를 세어서 승부를 정하되, 편을 나누어 단체로 할 때는 찬 수를 누계해서 승부를 결정한다.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제기를 던져주며, 이긴 사람은 이를 멀리 차버린다. 이긴 사람이 찬 제기를 진 사람이 받으면 놀이가 일단 끝나게 된다. 또 이긴 사람이 찬 제기를 진 사람이 발로 도로 받아 차면, 규칙 따라서 서로 입장이 바뀐다.

(≪청양의 민속≫, 청양문화원, 1994.)

③ 목면 안심리의 제기차기

일반적인 제기차기는 많이 차는 것이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편을 정하고 한 발로, 또는 두발을 이용해서 많이 차는 편이 이긴다. 옛날에는 짚신을 신고 찼기 때문에 높이가 일정하게 올라가지 않아 많이 차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두꺼운 종이를

신발과 발목 안쪽에 대고 찼다. (목면 안심리, 권오현)

④ 운곡면 신대리의 동네제기차기

동네제기차기를 '돌려차기'라고도 한다. 여러 사람이 둘러서서 제기를 차게 되는데, 주위의 어떤 사람에게 보내주기를 계속한다. 제기를 발로 받아 차올리지 못하거나, 차다가 떨어뜨리는 경우, 또는 어떤 사람에게 제기를 보냈는지 분간하기 어려운 경우는 실격처리된다.

실격자는 다른 사람 모두에게 벌칙으로 '놓어주기'를 한다. 진 편이 이긴 편에게 벌칙으로 '넣어주기'를 한다. 차기 좋게 넣어주어서 이긴 자가 찬 제기를 수비자가 받으면 실격이 되고, 받지 못하면 계속한다. 편을 갈라서 할 때에는 공격을 하는 편이 모두 실격이 되어야 끝이 나고, 다시 놀이를 하려면 많이 차기부터 다시 시작한다. (운곡면 신대리, 김영자)

(17) 가마타기 놀이

두 사람이 마주서서, 서로 바른 손으로 자기 왼편 팔목을 잡고 왼손으로는 상대방의 바른 팔목을 잡아 네모진 가마를 만든다. 그리고 나서 네모진 가마 위에 나머지 한 명을 태운다. 말이 달려서 위에 태운 말이 떨어지지 않고 목표물을 돌아오면, 다음 말이 차례를 이어 달린다. 위에 탄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가마를 만든 사람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는다.

한편이 출발할 때 '시집간다'하고 소리치면 다른 편은 '장가간다'하고 말을 받는다. 이러한 요령으로 놀이를 계속하여 먼저 끝난 편이 이긴다. (≪청양의 민속≫, 청양문화원, 1994.)

(18) 달맞이 놀이

① 남양면 온암리의 달맞이 놀이

정월 보름에 보름달이 뜨면 아이들이 달을 보러 갔는데, 그때 달맞이 노래를 부르면서 소원을 빌었다.

〈달맞이 노래〉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저기저기 저 달고개
계수 나무 박혔으니
옥도끼로 찍어내어
금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삼간 집을 짓고
양친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 지고. (남양면 온암리, 정일순)

② 화성면 장계리의 달맞이놀이

정월 대보름날 밤에는 달을 보고 소원을 빌기도 하고, 점을 치기도 하였다.

보름달을 보고 달의 모양이 얇은 쪽 마을은 올해에 가뭄이 심할 것이라고 점을 쳤다. 반대로 달의 모양이 두꺼운 쪽 마을은 풍년이 된다고 믿었다. (화성면 장계리, 이순이)

③ 화성면 산정리, 대치면 시전리의 달맞이놀이

달을 보며 손에 손을 잡고 간단한 춤을 추며 윤석중의 〈달〉이란 노래를 부르며 달맞이놀이를 했다.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어디 떴나, 남산위에 떴지.
달달 무슨 달 낮과 같이 밝은 달
어디어디 비추나 우리동네 비추지.
달달 무슨 달 거울같은 보름달
무엇무엇 비추나 우리 얼굴 비추지.

또한 대치면 시전리의 경우, 달맞이가 끝나면 여자들은 무리를 지어 원을 그리며 노래를 한다.

(화산면 산정리, 이태근./ 대치면 시전리, 한태순)

④ 청양지역의 달맞이놀이

세시풍속 가운데 달맞이 놀이는 우리 고장에서 즐겼다. 일년 중에 정월 대보름 달맞이 놀이와 팔월 한가위 달맞이로 나뉘는데, 주로 정월 대보름에 많이 한다.

음력 정월 대보름날 동네의 남녀노소가 동네 동산에 올라

보름달을 맞이한다. 보름달이 떠 올라 동녘 하늘이 밝아지면, 양손을 합장하고 각기 축원을 한다.

달의 밝기에 따라 농사의 풍년과 인사의 길흉을 점치기도 한다. 달이 밝으면 풍년이 들고, 흐리면 흉년이 들며, 남쪽으로 기울면 해변가에 풍년이 들고, 북쪽으로 기울면 산촌에 풍년이 들 징조라고 믿었다.

산간지방에서는 사방에 대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청솔 가지를 꺾어 둘레에 가득 싸놓고, 그 가장자리에 마른 솔잎을 채워놓았다가, 보름달이 뜨는 시각에 맞추어 최고령자가 점화한다. 불길이 하늘로 치솟으면서 폭죽의 소리가 요란하면 농악이 울려 퍼지고 액막이 한다하여 그간 날리던 연을 불사르기도 한다. 그리고 타다 남은 숯불을 가지고 아이들은 편을 갈라 불놀이를 하기도 하며 쥐불놀이도 한다.

(≪청양의 민속≫, 청양문화원, 1994.)

(19) 가래질 놀이

가래질 놀이는 권농을 목적으로 시작했던 것으로 전해온다. 가래질을 하던 농부들이 휴식시간에 웃고 즐기기 위하여 많이 해 온 것인데 이것이 아이들의 놀이가 된 것이다.

놀이방법은 10명 정도가 조를 구성하여 조별로 놀이를 하는데, 먼저 가위바위보로 술래를 정한다. 여럿이 술래의 양다리와 양팔을 잡고 노래에 맞추어 전후로 흔들다가 노래가 끝나

면 술래를 내려놓고 50m 전방에 있는 목표지점까지 달려간다. 이어 되돌아서서 술래의 집을 거쳐 처음의 자리(가래질 터)까지 되돌아온다.

술래는 술래의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되돌아오는 사람을 때려 맞춘다. 술래에게 맞은 어린이가 다음 번 술래가 되며, 술래에게 맞은 사람은 2명 이상일 때는 가위바위보로 다음 번 술래를 정한다. (≪청양의 민속≫, 청양문화원, 1994.)

(20) 그네뛰기

① 정산면 송학리의 그네뛰기

5월 단오 때에 그네를 뛰었다. 마을 입구에 있는 등나무에 그네를 매달았다. 여자들은 물론이고 남자들도 뛰었으며 두 명이 마주보고 그네를 뛰기도 하였다. 단오가 오기 전부터 그네연습을 하였으며, 단오날에는 대회를 열어 가장 높이 올라가는 사람에게 상품을 주기도 하였다. (정산면 송학리, 오영범)

② 남양면 온암리의 그네뛰기

단오 때에 마을의 큰 팽나무에 그네를 매달고 탔다. 5월 단오날과 나흗날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같이 타고 놀았다. 그네를 탈 때는 한 명씩 탔으며, 그네가 많이 나가는 사람에게 잘한다고 손뼉을 치며 칭찬하였다. 그네의 줄은 동아줄을

엮어 사용했으며, 발을 놓는 발판 부분을 "받이"라고 하여, 줄을 꼬아서 손으로 직접 만들어 연결하였다. 마을에서 대회는 열리지 않았다.

(남양면 온암리, 정일순)

③ 비봉면 녹평리 그네뛰기

그네뛰기는 단오놀이로, 이 마을에서는 그네를 녹평리와 강정리의 마을 경계지점에 있는 버드나무에 매달아 놀았다. 두 마을 사람들이 다같이 모여서 시합을 벌이는 일이 많았다.

(비봉면 녹평리, 명제헌 · 최순길)

④ 청양의 그네뛰기

그네뛰기, 곧 추천(鞦韆)은 오월 단오날 주로 여자들이 많이 뛰었다. 큰 나무 가지에 동아줄을 틀어서 그네를 만들어 뛴다. 녹음이 짙은 사이에서 빛깔이 찬란한 옷을 입은 젊은 여자들이 뛰는 모양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청양의 민속≫, 청양문화원, 1994.)

⑤ 목면 안심리의 쌍그네뛰기

이 지역에서는 그네를 '근듸'라 부르기도 하며, 주로 여자들이 즐겨 했다.

두 사람이 그네를 탈 때는 한 사람은 서서, 다른 한사람은 앉아서 타는 경우도 있고, 두 사람 모두 서서 타기도 한다. 두 사람이 교대로 그네를 굴러, 힘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야 힘차게 높이 올라간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⑥ 대치면 시전리의 외그네 뛰기

그네는 주로 혼자 타는데, 앉거나 서서 탄다. 잘 날기 위해, 앞뒤로 다리와 허리의 탄력을 이용해야 한다. 눈짐작으로 그네가 누가 높게 오르느냐, 또한 앞에 있는 나뭇잎을 누가 따느냐에 따라 승부를 결정한다. (대치면 시전리, 한태순)

(21) 널뛰기

① 화성면 장계리의 널뛰기

설날에는 넓은 마당에 널을 깔고, 많은 여자들이 뛰면서 놀았다. (화성면 장계리, 이순이)

② 청양지역의 널뛰기

널뛰기는 설날이나 팔월 추석 한가위 때에 여인들이 많이 했다. 길다란 널판을 짚 묶음이나 가마니뭉치 위에 절반을 걸쳐놓고, 널판 양 끝에 한사람씩 올라서서 서로가 구르면서 몸솟음을 하여, 오르락내리락 하며 뛴다. 젊은 여자가 빛깔 찬란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새해 새날에 공중을 향하여 서로가 번갈아 뛰어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며 노는 것이다. 높이 뛰고, 오래도록 실수 없이 잘 뛰는 것이 중요하다.

(≪청양의 민속≫, 청양문화원, 1994.)

③ 청남면 천내리의 널뛰기

이 마을에서는 예전부터 널을 유난히 잘 뿌리는 여인네가 씨를 뿌리면, 그 해에는 곡식이 잘 자란다고 한다. 또한 옛말에 정월에 널을 뛰지 않으면 발에 쥐가 난다는 말도 있다.

널을 뛰다가 발을 잘못 디디어 떨어지면 실수한 사람이 물러나고, 다른 사람이 널에 올라와서 널뛰기를 한다.

(창남면 천내리, 황순창 · 소사영)

④ 정산면 용두리의 널뛰기

널뛰기를 하면 무좀에 걸리지 않는다.

(정산면 용두리, 최웅매)

⑤ 비봉면 녹평리의 널뛰기

널뛰기는 주로 처녀들이 즐겨 했다. 새해맞이 널뛰기를 위해 몇 달 전부터 머리를 기르기도 한다. 널뛰기를 할 때는 예쁜 댕기를 하고 빨간 치마와 노란 저고리를 입었다. 이 마을에서는 20여년 전까지 실시하였다. (비봉면 녹평리, 지유순)

(22) 문(門)놀이

달 밝은 여름밤, 어린아이들이 골목에서 이 놀이를 많이 한다. 사람 수는 대개 열 사람 정도로, 그 중에서 두 사람을 내어 문지기로 삼는다. 이 문지기는 나와서 두 손을 마주잡고 위로 쳐들어 문을 만든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군사라고

하여, 일렬로 줄을 지어서, 어깨를 잡거나, 허리를 잡고, 차례로 문으로 들어갔다 나온다. 계속 돌아가면서 서로 문답의 노래를 주고받으면서 논다.

먼저 군사들이 열을 지어 문으로 들어가려고 문 앞까지 가면 문지기가 두 손을 내려서 문을 닫는다. 그리고서 '어디 군사냐?'라고 물으면, 군사들은 '경상도 군살세', 또는 '전라도 군사다'라고 대답하면, 문지기는 닫았던 문을 열어서 군사들을 통과시킨다. 그러면 군사들은 문으로 들어갔다가 돌아 나온다. 계속해서 들어갈 때마다 일문일답을 하며 노는 것이다.

(≪청양의 민속≫, 청양문화원, 1994.)

(23) 소리개 놀이

여름철에서 가을 추석 때까지 여자아이들이 행하는 놀이이다. 우선 모인 인원 중에서 소리개 1명과 암탉 1명을 정한다. 암탉을 선두로 다른 사람들은 병아리가 되어 차례로 앞사람의 허리를 팔로 감고 일렬로 늘어선다.

소리개는 여러 가지 조그마한 물건을 손에 들고 병아리를 유혹한다. 소리개가 '여봐라 먹이감' 하면 암탉이 '올라, 나 주어' 식으로 대화가 계속된다. 맨 나중에 소리개가 암탉 뒤에 늘어선 병아리들 가운데 맨 끝에 선 병아리를 잡으러 뒤로 돌아가면, 암탉은 잡으러 가지 못하게 한다. 이때 소리개가 맨 끝의 병아리에 손을 대면 잡힌 것으로 되어 줄에서 빠진다.

이런 방법으로 마지막 한 마리가 남을 때까지 놀이가 계속된다. 이때 병아리들은 앞사람의 허리를 안은 손을 떼서는 안되고 끝까지 암탉을 따라 이리저리 소리개를 피해 돌아다녀야 한다.

(≪청양의 민속≫, 청양문화원, 1994.)

(24) 불넘기 놀이

남녀구별 없이 정월대보름날에 불넘기놀이를 한다. 동네의 빈터나 논에 통나무와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지른 다음, '넘자 넘자 불을 넘자'하고 합창을 하며 불을 뛰어넘는다.

이처럼 불을 넘으면 한여름동안 더위를 먹지 않게 되고 액막이를 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이 불넘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모두 한복을 입은 경우에, 반드시 저고리의 동정을 뜯어서 불 속에 던져 태우는 풍습이 있었다.

(≪청양의 민속≫, 청양문화원, 1994.)

(25) 남대문놀이

남대문놀이는 여자아이들 약 10여명이 참가한다. 우선 2사람이 나와 두 손을 마주잡고 위로 쳐들고 서서 남대문을 만든다. 그러면 나머지 8사람은 줄지어 서서 차례로 그 밑으로 지나간다. 남대문을 만든 아이가 '좋구나 좋구나' 하면서, 그 아이들

을 툭툭 친다. 그 중에 한 아이를 속으로 들여보내서, '너 뭐 먹고 살았니'하고 물으면, '밥 먹고 살았지'라고 대답하면 들여보내지 않는다. 만약 '젖 먹고 살았지' 하면 내어보낸다.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노는 놀이이다.

(≪청양의 민속≫, 청양문화원, 1994.)

(26) 그림자밟기놀이

① 청양지역의 그림자밟기놀이

이 놀이는 날씨가 맑은 가을철 달밤에 남녀 아이들이 논다. 인원은 제한이 없으나, 보통 5명에서 10명이 즐긴다.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진 사람이 술래가 되어 다른 아이들의 그림자를 밟아야 한다. 그림자를 밟힌 자는 술래가 되며, 다시 상대방의 그림자를 밟기 위해 열심히 뛰어 다니며 밤늦게까지 뛰어다니며 논다.

(≪청양의 민속≫, 청양문화원, 1994.)

② 대치면 시전리의 그림자밟기

남녀 어린이들이 즐기는 놀이로, 인원 제한이 없으나, 보통 5~10명이 놀이를 한다. 먼저 가위 바위 보로 술래를 정하고, 술래인 아이는 다른 아이의 그림자를 밟는다. "네 그림자가 크니? 내 그림자가 크다."라고 노래를 부르며, 술래에게 밟힌 아이는 술래가 된다. 이것을 반복하며 놀이가 이루어진다.

(대치면 시전리, 한태순)

(27) 그림자놀이

① 목면 안심리의 그림자놀이

한 손 또는 양손으로 벽이나 문에 불빛을 이용해서 모양짓기를 해서 여우, 중, 토끼, 개 등의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든다. 그림자의 모습을 보며 즐기고 또한 알아 맞추기도 한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② 청양지역의 그림자 밟기

60년대 초반까지 농촌에서는 밤에 등잔불이나 초로 불을 밝혔다. 불을 밝히면 벽이나 문에 그림자가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아이들은 손으로 개, 여우, 닭, 말 등 여러 가지 모형을 만든다. 벽에 비추어 나타난 그림자의 모습을 보고 즐기고, 또한 알아 맞추기도 하는 등 그림자 놀이를 했다.

(≪청양의 민속≫, 청양문화원, 1994.)

(28) 멍석 말아풀기 놀이

농가에서 곡식을 말릴 때 사용하는 멍석을 말고 펴는 시늉을 하며 노는 놀이이다. 가위 바위 보로 술래를 정하여 가운데에 세워두고, 나머지 사람들은 손을 서로 이어 잡은 채로 '어야라 멍석말기'라고 합창을 한다. 그리고 펄쩍펄쩍 뛰면서 술래를 빙빙 감아 돈다. 이렇게 하여 완전히 감으면, 반대로

맨 끝에 사람을 선두로 하여 '어여로차 멍석풀기'라고 하면서 술래를 풀어낸다.

풀려난 술래는 나머지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둥근 원을 그리며 노래를 부른다. 이어 다른 사람을 술래로 정해서 다시 멍석 말아 풀기를 반복한다. 놀이에 참가한 사람이 전부 교대로 술래가 될 때까지 계속한다.

(≪청양의 민속≫, 청양문화원, 1994.)

(29) 못치기 놀이

① 정산면 대박리의 못치기

주로 겨울철에 소년들이 즐겨하던 놀이로 못을 구하기 힘든 시대에 즐겨했다. 놀이를 할 때에는 대개 큰 못을 사용한다. 못이 없을 때에는 나무를 뾰족하게 깎아서 대신 사용하였다.

못을 따 먹는 방법은 자기의 못을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 끼고 땅에 박힌 상대방의 못을 힘껏 내려쳐 쓰러뜨리고, 자기의 못이 땅에 박히면, 상대의 못을 따먹을 수 있다.

(정산면 대박리, 정진우 · 최용남)

② 목면 안심리의 못치기

놀이의 방식은 우선 줄을 긋고 상대 진영으로 돌아온다. 놀이 순서를 정한 다음, 공격권을 얻은 사람부터 실시한다. 자기

진영의 기점에서 큰 못의 머리를 쥐고, 땅에 꽂히게 하여, 자기 집에서 못이 박힌 곳까지 직선으로 이어간다. 그런데 그 거리가 함 뼘을 초과하면 실격이 되어 상대에게 공격권이 넘어간다. 이렇게 하여 선을 이어서 상대 진영에서 돌아오면 이기게 되는데, 중간에 상대방을 방해하여 나오지 못하도록 하여 승부를 걸기도 한다.

놀이를 계속하다가 나갈 길이 없거나, 길이 좁아 전진이 불가능해지면 사실상 지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가 실격이 되면 공격권이 넘어오는데, 앞서 실격된 그 지점부터 시작한다. 못이 상대가 그은 선을 넘어가서도 안 된다. 따라서 실격이 잦아서 놀이가 길어지거나, 진행방향이 적당하지 못해서 나갈 길이 없으면 무승부가 되기도 한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③ 정산면 덕성리의 못치기

땅을 빼앗는 방식은 직경 2m의 원을 그려놓고 못치기로 선을 그어 상대방의 땅을 빼앗는다. 땅을 점령한다는 의미에서 '전쟁놀이'라고 부른다. (정산면 덕성리, 장광현)

④ 청양지역의 못치기

소년들이 주로 하는 놀이인데, 2~3사람 정도의 적은 수가 참가하는 '줄긋기'와 여럿이 하는 '따먹기'의 두 가지가 있다.

㉠ 줄긋기 : 큰 못의 머리를 쥐고 땅에 던져서 못이 땅에 박히면 자기 집에서 못이 박힌 곳까지 선을 이어가는데, 그 거

리가 한 뼘을 초과하면 실격이 된다. 이렇게 계속하여 선을 이어가 땅을 점령한다. 이때 못이 넘어지면 실격이다. 이렇게 땅 빼앗기도 하지만, 남의 집의 선을 넘거나 건드리지 않고 쳐들어가서, t상대방을 나오지 못하도록 입구를 막게 하여 승부를 걸기도 한다.

㉡ 따먹기 : 땅에 박혀있는 상대방의 못을 힘껏 자기의 못으로 내려쳐 쓰러뜨려, 못 머리가 땅에 닿게 되면 따먹게 된다. 이때 상대방의 못은 뽑아야 하지만 자기의 못은 반드시 땅에 박혀야 한다. (≪청양의 민속≫, 청양문화원, 1994.)

(30) 실뜨기 놀이

① 남양면 온암리의 실뜨기

2명이 실을 잡고 주고받는 놀이이다. 실을 양쪽 손에 감고 모양을 낸다. 그러면 상대방이 다른 모양을 만들고, 그 모양 내기로 서로 시합한다. 그러다가 더 이상 모양이 나오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이 지게 된다. 하지만 실뜨기는 승패를 가리는 놀이라기보다는 재미를 위한 즐기기 놀이였다. 실뜨기는 여자 아이들과 남자 아이들 모두 함께 놀았다.

(남양면 온암리, 정일순)

② 운곡면 신대리의 실뜨기

옛날부터 소녀들이 바느질하는 어머니 옆에서 남은 실을 가

지고 놀이를 하던 것이 발전하여 방안에서 즐기는 놀이가 된 것 같다. 실을 한 발 가량 끊어서 양 끝에 매고 양손으로 팽팽하게 당긴 후 실을 한번씩 감아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뜨기를 한다.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데 모양에 따라 명칭이 있으며 그 변화에 따라 흥미롭게 엮어간다.

㉠ 장구 : 한사람이 실을 두 손에 한번 감아서 걸고 다시 두 손 가운데 손가락으로 감은 실을 걸어 뜬 뒤에 상대편에게 차례를 넘긴다.

㉡ 쟁반 : 실 양쪽의 가위처럼 벌어진 부분을 엄지와 검지 두 손가락으로 끌어 쥐고, 아랫줄 밖으로 둘러서 위쪽 가운데로 올려 뜬다.

㉢ 젓가락 : 엄지와 검지 두 손가락으로 바둑판 가운데의 줄이 교차한 두 각을 걸어 쥐고, 바깥 줄을 밖으로 빼었다가 위쪽 가운데로 올려 뜬다.

㉣ 절구통 : 두 새끼 손가락으로 가운데 두 줄을 걸었다가, 서로 반대쪽으로 당겨서 늘린다. 그리고 엄지와 검지로 바깥 줄을 걸어서 아래로부터 가운데로 올려 뜬다.

㉤ 쟁반 : 엄지와 검지로 절구통의 양쪽 각을 걸어 쥐고 밖으로 빼었다가 이번에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 뜬다.

㉥ 비행기 : 쟁반을 젓가락으로 만들 때처럼 위로 떠올린다. 그러면 가운데가 마름모꼴이 된다.

㉦ 톱질 : 먼저 장구를 만들어 가위 줄 밑으로 가로 걸린 한쪽 줄을 잡고, 반대쪽의 가로 걸린 한쪽 줄을 입으로 물고, 가

운데 손가락에 걸린 줄이 벗겨지지 않도록 안으로 내려 뽑는다. 이것을 서로 이리저리 당기면 마치 톱질을 할 때와 같이 실이 엇갈려서 왔다갔다하게 된다. (운곡면 신대리, 김영자)

③ 청양 지역의 실뜨기

소녀들 사이에 주로 하는 놀이로 소년들이 가담하는 수도 있다. 50cm 내지 1m에 달하는 길이의 실 끝을 매어 양쪽 손가락에 걸고 두 사람이 마주앉아 뜨기를 한다.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는데, 뜨기에 따라 젓갈이나 장고, 거미줄 등 여러 가지 명칭이 있으며, 그 변화에 따라서 흥미롭게 엮어 가는 것이다. 옛날부터 소녀들이 바느질하는 틈에 하던 것이 놀이로 발전한 것이라 한다. (≪청양의 민속≫, 청양문화원, 1994.)

(31) 두꺼비집짓기 놀이

① 대치면 시전리의 두꺼비집짓기

모래를 모아 놓고 왼손을 판판한 땅 위에 놓은 다음, 모래를 손등 위에 올리고, 오른손바닥으로 손등 위에 있는 모래를 다독거리면서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또는 "두껍아, 두껍아, 네 집 어디 있니? 꼭꼭 숨어라."를 3번 반복한 다음 살며시 손을 뺀다.

이 때 손을 빼어도 모래가 허물어지지 않으면 이기게 되고,

한편 지은 집이 깊은가를 비교하여 승부를 겨루기도 한다. 그 후 두꺼비집 밑바닥을 조금 파고 물을 부어 가재, 물고기나 올챙이를 넣어 놓고 재미있게 놀기도 한다.

(대치면 시전리, 한태순)

② 청양 지역의 두꺼비집 짓기

냇가나 또는 비 온 후 모래가 모여있는 곳에서 소년 소녀들이 두꺼비집짓기 놀이를 한다. 모래를 모아놓고 왼손을 판판한 땅위에 놓은 다음 모래를 손등 위에 올리고 오른손 바닥으로 손등 위에 있는 모래를 다독이면서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께 새집 다오.'를 세 번 반복한 다음 살며시 손을 뺀다. 이때 손을 빼어도 모래가 허물어지지 않으면 이기게 된다.

(≪청양의 민속≫, 청양문화원, 1994.)

(32) 서울 구경 놀이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른들은 장난을 청하여 놀이를 한다. 그 예로, '얘 너 서울 구경 시켜줄까?'하면 어린이들은 반색을 하며 따라든다. 그때 두 손바닥을 어린이의 두 귀에 대고 위로 올리며 '보이냐 안보이냐' 하며 물어본다. 서울이 보일 리가 없지만 어린이는 눈을 두리번거린다. 이때 어른은 안 보인다고 하면 손바닥으로 지긋이 눌러 아프게 하여 더 높이 들어올리면 어린이는 귀가 아프니까 보인다고 소리친다. 이때 옆에서

보고있는 어린이들은 정말 보이는 줄 알고 자기도 보여달라고 모여든다. (≪청양의 민속≫, 청양문화원, 1994.)

(33) 눈(目)싸움 놀이

① 운곡면 신대리의 눈(目)싸움

둘 중 한사람이 '시작'이라 하면, 동시에 눈을 크게 뜨고 상대방을 쳐다본다. 깜빡이지 않아야 하며, 먼저 깜빡거리는 사람이 지게 된다. 이 때 상대편에 깜빡이도록 손을 내두르기도 하고, 얼굴 짓을 하거나, 손가락으로 상대방의 눈앞 언저리를 닿지 않게 자극하기도 한다. 또한 놀이 중에 눈물을 흘리며 이기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러다가 너무 오랫동안 버텨서 승부가 나지 않는 경우, 타협에 의해 비기기도 한다. 지는 사람에게는 미리 약속한 대로 벌칙을 받는다. (운곡면 신대리, 김영자)

② 청양지역의 눈싸움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눈을 부릅뜨고 깜빡이지 않는 시합이다. 동시에 시작하여 눈을 크게 뜨고 깜빡이지 않으려고 서로 노력하는데, 먼저 깜빡인 사람이 지게 된다. 이때 상대편에 깜빡이도록 손을 내둘러 방해하는 적도 있다.

(≪청양의 민속≫, 청양문화원, 1994.)

(34) 잎따내기 놀이

① 화성면 산정리의 잎따내기

여름철 나무 그늘 밑에서 아이들이 같은 수의 잎사귀가 달린 아카시아 줄기나 참죽나무를 가지고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이긴 사람이 한 잎씩 퉁겨 잎사귀를 따내는 놀이이다. 주로 아카시아 잎을 이용하여 놀이가 이루어 졌는데, 일제시대 이전에는 아카시아가 귀했기 때문에 이 놀이는 일제 시대 이후에 성행했을 것으로 본다. (화성면 산정리, 송필현)

② 정산면 역촌리의 잎따내기

시작하기 전에 잎 수가 같은지 확인을 하고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아카시아 잎을 먼저 집게로 퉁겨, 전부 따내는 사람이 이기게 된다. 줄기를 잡고 위에서 아래로 한 잎 한 잎 따기도 하고 노래에 맞추어 잎을 딴다. 이 때 잘못 퉁겨 잎을 따지 못하면 다시 할 수 없고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아카시아 잎을 딴다. (정산면 역촌리, 유영자)

③ 화성면 장계리의 잎새따기

아카시아 꽃줄기를 뜯어서 동무와 함께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서로 이긴 사람이 잎새를 하나씩 뜯는다. 잎새를 빨리 모두 뜯어 낸 사람이 이긴다. (화성면 장계리, 이순이)

④ 청양 지역의 잎따내기

여름철 나무그늘 밑에서 아이들은 아카시아 잎을 따서 가위바위 보 하여 이긴 편이 잎을 하나씩 따내는 놀이이다. 이 놀이는 시작하기 전에 잎 수가 같은지를 확인하고 시작하며, 먼저 다 따내는 편이 이기게 된다.

(≪청양의 민속≫, 청양문화원, 1994.)

(35) 땅개비 놀이

여름과 가을철에 아이들이 풀밭이나 들판에서 땅개비(방아깨비)를 잡아 긴 뒷다리 두개를 잡고 흔들면 땅개비는 스스로 껑충껑충 뛴다. 마치 방앗간에서 방아를 찧듯이 계속해서 흔들어, 이를 보고 '방아찧기'한다고 한다. 아이들은 땅개비가 방아찧기를 할 때에는 '아침거리 찧어라. 저녁거리 찧어라. 콩콩 찧어라'하면서 노래도 부르는데, 땅개비는 이 노래에 박자를 맞추듯이 껑충껑충 계속해서 뛴다. 아이들은 이것을 보며 즐거워한다. (≪청양의 민속≫, 청양문화원, 1994.)

(36) 바람개비 놀이

① 대치면 탄정리의 바람개비 놀이

바람을 이용하여 노는 어린이 놀이로 지방에 따라 '풍차',

'팔랑개비', '뺑돌이', '도르래'라고도 한다. 바람이 세게 불면 빨리 돌아서 팔랑개비는 보이지 않고, 무지개 빛의 원이 도는 것 같이 보여 어린이들이 재미있어 한다.

정월 보름에 이 바람개비를 화간(난가리대)에 달아 잘 돌아야 길(吉)하고 잘 돌지 않으면 불길하게 여기는 지방도 있다. 그 이유는 정초부터 맹조나 흉조의 접근은 나쁘기 때문에 잘 돌면 솔개나 까마귀들의 날짐승들이 날아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놀이 방법은 빳빳한 종이나 색종이를 여러 가지 갈래로 자르고 그 귀를 구부리어 한데 모아서 성긴 톱니바퀴처럼 만들어 중심점에 수수깡이나 대나무에 성냥개비나 못으로 꽂아서 돌린다.

이것을 바람받이에 마주 세우면 바람을 잘 받아서 바람개비는 잘 돌지만 바람이 불지 않으면 돌지 않아 아이들은 힘껏 달려서 바람을 일으켜 바람개비를 돌린다. 간혹 무궁화 꽃을 이용하여 바람개비를 만들어 돌리기도 한다.

(대치면 탄정리, 복진세)

② 청양지역의 바람개비놀이

골목길을 신나게 달리면서 아이들은 바람개비 놀이를 한다. 일반적으로 종이를 접어서 나무에 꽂아서 돌린다. 또한, 대나무를 얇게 칼로 훑어내어 양쪽을 반대방향으로 가늘게 깎아 그 곳에 종이를 붙인 다음, 중심점에 못으로 끼어 수수깡이나

가는 대나무에 꽂아서 만들어 돌리기도 한다.

바람이 잘 불면 바람을 맞는 곳에 서서 가만히 있어도 잘 돌지만,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바람개비도 돌지 않는다. 이럴 때면 아이들은 달음질을 쳐서 바람을 일으켜 돌리게 된다.

(≪청양의 민속≫, 청양문화원, 1994.)

(37) 꽈리불기 놀이

여름철 음력으로 7월쯤 되면 꽈리(땍꼴)가 새빨갛게 익어간다. 소녀들은 꽈리의 열매를 따서 가운데 꼭지를 따내고 바늘로 구멍을 뚫어 겉껍질을 상하지 않게 한다. 이어 속을 전부 꺼내버리고 물에 씻어, 입 안에 넣고 공기를 채워 잇몸과 혀로 돌려가며 지그시 누르면 소리가 난다. 이를 '꽈리 분다'고 하는데 소녀들은 서로 소리를 크게 내려고 애쓰기도 한다.

(≪청양의 민속≫, 청양문화원, 1994.)

(38) 기차놀이

동네 아이들은 긴 새끼줄을 양쪽 끝을 잡아 맨 다음 여러 명의 아이들이 그 안에 들어가 양손으로 새끼줄을 잡고 줄지어 서서 '칙칙폭폭 칙칙폭폭'하면서 뛰어다니며 노는 놀이이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역을 만들어 아이들을 내리고 태우기도

하는 손님놀이도 한다. (≪청양의 민속≫, 청양문화원, 1994.)

(39) 장기놀이

나무로 된 판 위에 가로 10줄, 세로 9줄을 그어 장기판을 만든다. 그 위에 초(楚), 한(漢) 양 군으로 말을 나누어 싸우는 놀이이다. 양쪽의 말 수는 같으며 차(車), 마(馬), 상(象), 포(包), 사(士)가 각각 2개씩 있고 졸(卒)이 5개씩 있어 궁실을 포위하여 공방한다.

이 놀이는 주로 성인 남자들이 즐겨한다. 말의 진행법은 차는 직선으로 나가고, 포는 어느 말이든 관계없이 한 개를 넘어서 나가며, 마는 일자(日字), 상은 용자(用字)로 나간다. 졸은 앞이나 좌우로 한 금씩만 갈 수 있으며 뒤로 물러갈 수는 없다. 그리고 대장과 사는 궁 안에서만 한 발씩 가게되어 있다. 승부는 궁, 즉 대장이 잡히게 되면 지는데 상대편의 궁을 잡으려는 말이 있을 때는 '장군'이라고 알려준다. 이때 자기의 궁이 잡히지 않도록 방어를 하면서 '멍군'이라 하며 피한다. 피할 수 없을 때는 궁이 잡혀서 지게된다.

(≪청양의 민속≫, 청양문화원, 1994.)

(40) 나무동무

이 놀이는 동무들끼리 문답형식으로 빠르게 말을 주고 받으며 노는 놀이의 일종이다. (정산면 송학리, 오영범)

(문) 나무동무! 나무하러 가세!
(답) 배 아파 못 가겠네
(문) 무슨 배인가?
(답) 자루배일세.
(문) 무슨 자루?
(답) 어업자루.
(문) 무슨 어업?
(답) 진주어업.
(문) 무슨 진주?
(답) 고월진주.
(문) 무슨 골?
(답) 샛골.
(문) 무슨 새?
(답) 할매새.
(문) 무슨 할매?
(답) 니 할매.

(41) 씨름

① 정산면 송학리의 씨름

추석 때 웃솔티(상송)와 아랫솔티(하송)가 동네대항 씨름대회를 열었다. 마을의 동구나무가 있는 둥글고 큰 마당에서 씨름판을 벌였다. 샅바는 없고 허리춤을 잡고 한다. 씨름내기를 하여 진 사람이 밀주를 사서 다같이 마시고 놀았다.

씨름대회의 첫 번째는 '애기씨름'으로 시작한다. 7~8세정도

의 아이들의 씨름대회로 시작하여, 나이순으로 올라가 20대 청년들의 '장정씨름'에 이르러 대회는 절정에 다다른다. 3판 2선승제로 한다. 백중 때 정산시장에서 씨름대회를 많이 열었다. 단오 때는 씨름을 하지 않았다. 청년들끼리 붙는 씨름대회를 '총각마구리'라고 하였는데, 이때에는 상품이 많이 걸린다. 각지에서 힘이 세다고 하는 장정들이 한 데에 붙어서 경합을 벌였다. 총각마구리에는 긴 장대에 고무신, 양말, 모자 등의 상품을 죽 걸어놓는다. 또한 근방 지역 총각들만의 대회를 '상땍거리'라고 하였는데 이때에는 상으로 큰 털송아지를 걸어 놓았다. 총각마구리를 하고 나서 상땍거리를 한다. 씨름대회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장사가 잘되므로 상품은 정산시장 내에서 돈을 걷어서 마련한다.

씨름용어에 '아내기'는 안으로 고개를 빼고 배를 잡아 당겨서 쓰러뜨리는 기술이고, '반드름'은 손을 순간적으로 잡아채면서 상대를 옆으로 매치는 기술이다. (정산면 송학리, 오영범)

② 화성면 용당리의 씨름

씨름은 8월 보름에 행하여 졌다. 산에 있는 조정승 산소에서 이루어졌는데, 예전부터 그곳에서 씨름을 하면 절대 다치지고 한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놀았으며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끝까지 이겨 더 이상 물리칠 사람이 없으면 승리하게 된다.

(화성면 용당리, 강연석)

③ 장평면 미당리의 씨름

씨름은 마을에서 넓은 마당에 자리를 잡고 소를 걸고 대회를 하였다. 이기면 돈을 상품으로 주기도 했다. 소를 놓고 대결을 하는 장정들끼리의 내기 씨름을 '쇠거리'라고 한다. 세 번 이기면 절을 한번 받았다. (장평면 미당리, 서기복 · 김평길)

④ 목면 본의 1리 무수동의 씨름

가을에 되면 인근 안심리에 장에서 씨름판이 벌어진다. 이 장은 철마장이고 하는데, 4 · 9일장이다. 근래에 교통이 좋아지면서 이 장은 없어졌다. 씨름판이 벌어지는 시기는 추수 전이다. 이것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를 걸고 대개 5일 정도 씨름을 했다. 씨름하는 방법은 한사람이 질 때까지 계속해서 상대방과 붙는 방식이다. 따라서 대적할 사람이 없을 때까지 계속 한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다 대적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 우승한 사람에게 시장 번영회에서 내 놓은 소를 상금으로 준다. 씨름이 없어진 것은 한 40년쯤 되었다. 이때 여러 놀이패도 와서 놀았는데, 남사당패도 있고, 노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목면 본의 1리 무수동, 김홍식)

⑤ 대치면 탄정리의 씨름

㉠ 동네씨름 : 동네 장정들이 어울려 힘 자랑을 하던 놀이로 경기장을 마련하지 않고 쉬는 시간에 풀밭이나 모래밭에서 즐겼다. 샅바도 없이 허리띠를 잡거나 바지 가랑이를 잡고 하였

는데 상품은 없었다.

㉡ 상씨름 : '회거리'라고도 하여 백중이나 단오 때면 씨름판이 벌어지는데, 마을에서 힘이 있는 장정들이 참가하여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된다. 우승자에게는 장사 칭호와 황소를 상으로 주는 것이 상례이다. 황소를 탄 장사는 마을을 돌면서 농악과 구경꾼들이 함께 어우러져 마을의 축제가 된다. 이 지역에서는 가을에 실시하는 칠갑문화제 행사 때 상씨름이 이루어져 상품으로 황소 한 마리를 걸고 흥미 있는 군민들의 축제가 벌어진다.

㉢ 총각씨름 : 12세 이상의 소년들을 중심으로 씨름이 이루어지며, 그 나이에 맞게 1등부터 5등까지 상품을 준다.

(대치면 탄정리, 복진세)

⑥ 남면 대봉리의 애기씨름

애기씨름은 어린아이들끼리 대개 샅바를 매지 않고 하는 씨름을 말한다. 한 어린이가 연속해서 세 어린이를 물리치면 승리자가 되어 엿이나 문구류 등의 상품을 받는다.

(남양 대봉리, 강희배)

⑦ 정산면 덕성리의 편씨름

이 마을에서는 관례적으로 추석 명절을 전후에 아랫마을과 윗마을로 편을 나누어 편씨름을 한다. 이기는 마을은 다음 해의 농사가 풍년이 들고, 지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정산면 덕성리, 장광현)

(42) 갈퀴치기

① 장평면 미당리의 갈퀴치기

산에서 나무를 한 다음에 나무짐을 모아놓고 갈퀴를 가지고 놀았다. 갈퀴를 던져서 엎어지면 점수가 없고 젖혀지면 점수를 딴다. 점수를 많이 따서 이긴 사람이 쌓아 논 나무를 모두 가져가는 내기 성격의 놀이이다.

(장평면 미당리, 서기복 · 김평길)

② 운곡면 후덕리의 갈퀴치기

갈퀴치기는 갈퀴를 가지고 노는 놀이이다. 나무를 하러 간 소년들이 주로 했는데 나무 해온 것을 모두 모아서 이긴 사람이 가져간다. 놀이 방식은 갈퀴를 던져서 갈퀴가 엎어지면 이기는 것이고 젖혀지면 지는 것이다.

(운곡면 후덕리 대동마을, 명해동 · 명효식 · 명제빈)

③ 청양읍 송방리의 갈퀴치기

가을이나 초겨울에 낙엽을 긁으러 산에 갔을 때, 나무꾼들이 갈퀴를 던져서 이기고 지는 것을 겨루는 놀이이다. 이 놀이는 지방에 따라 '갈퀴던지기', '칼땅치기'라고도 부르고, 갈퀴는 지금과 같이 쇠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대나무로 만든 갈퀴를 이용하였다. 주로 내기가 이루어지는데, 낙엽이나 솔가지를 긁어모아 이긴 사람이 나뭇짐을 차지한다.

(청양읍 송방리, 이서동)

④ 남양면 구룡리의 갈퀴치기

먼저 갈퀴를 던질 위치를 정해놓고, 그로부터 5m 정도 되는 거리에 선을 그어 놓는다. 두 손으로 갈퀴자루의 끝 부분을 잡고 어깨에 멘 다음, 손으로 힘차게 밑으로 당겨서 한 바퀴 돌려 밖으로 떨어지게 한다.

이 때 선 안에 떨어지면 실격이 되고 선을 넘어서 엎어지면 이기고 젖혀지면 지게 된다. 만약 엎어진 사람이 둘 이상이면 실격자와 젖혀진 사람을 제외하고 다시 던져 승부를 결정한다. 이긴 사람은 내기를 건 일정량의 낙엽을 모두 차지한다.

(남양면 구룡리, 김동만)

⑤ 정산면 덕성리의 갈퀴치기

일반적인 방식으로 갈퀴치기를 하면 갈퀴가 망가질 우려가 있으므로 던지지 않고. 갈퀴의 발이 위로 가게하고 정지한 상태에서 갈퀴를 회전시켜 놓아, 엎어지면 이기고 젖혀지면 지게 된다. 엎어진 사람이 둘 이상이면 젖혀진 사람을 제외하고 다시 던져 승부를 결정한다. 내기로는 한 전씩 나무를 거는데, 15전이 지게의 한 짐이 되고, 한 전이라 함은 나무의 한 아름의 양이다.

(정산면 덕성리, 장광현)

(43) 낫치기

① 운곡면 후덕리 대동마을의 낫치기

나무를 하러 산에 모인 소년들이 낫의 날 끝을 잡고 던져서 던진 낫이 땅에 꼿꼿히 꽂히면 이기는 놀이이다. 이기게 되면 해온 나무들을 모두 가져갈 수 있었다.

(운곡면 후덕리 대동마을, 명해동 · 명효식 · 명제빈)

② 남양면 구룡리의 낫치기

던질 자리에 선을 긋고, 그 선으로부터 5m 정도의 거리에 선을 그어 놓고 놀이를 한다. 어떤 방법으로 낫을 던지든 낫이 꽂히면 이기게 되는데, 내기로 건 풀이나 나무를 차지한다. 꽂힌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꽂힌 상태에서 낫 높이가 제일 높은 사람이 이기게 되고 낫이 꽂히지 않거나 선 안쪽에 낫이 꽂히면 실격이 된다. (남양면 구룡리, 김동만)

(44) 강다리놀이

이 놀이는 미당리에서 전해진다. 강다리놀이는 밀용지라는 얇은 종이로 봉투를 만들어서 말린다. 봉투의 양 옆에 대를 세워 고정시키고 가운데 송방망이를 만들어 단다. 정월보름날 저녁때 달이 떠오르면, 가운데 있는 송방망이에 불을 붙인다. 이때에 송방망이가 그 봉투를 올리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

면 연기를 팡팡 피우며 높이 올라가는데 그 모습이 참 보기 좋다고 하였다. 이때 봉투에는 마을 이름과 액땜을 바란다는 내용의 글귀를 적었다. 그 외에 모양을 칠하는 일은 없었다. 이를 '강다리 놀이'라고 하였고 '등 올린다'라고도 하였다.

다른 마을에서는 이 놀이에 대해서 들어 본 적이 없고 연기군에서 살다가 내직리로 들어온 어떤 사람이 소개를 하였다고 한다. 제보자가 내직리에서 태어나, 살던 소년시절 많이 하고 놀던 놀이이다. 이 놀이는 내직리 이외의 마을에서는 하지 않았다. (장평면 미당리, 서기복)

(45) 닭싸움(쩔뚝발이싸움)

① 정산면 송학리의 절뚝발이 싸움

닭싸움과 같은 놀이이다. 발 하나는 올려 손으로 잡고 깽깽이 발로 상대편을 넘어뜨리는 놀이이다. 올렸던 한쪽 발을 내려놓거나 넘어지면 진다. (정산면 송학리, 오영범)

② 대치면 탄정리의 닭싸움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 편을 나누고 각자가 두 손으로 한 쪽의 발꿈치나 발목, 바지 자락을 움켜 쥔 채, 다른 한 발로 서서 무릎이나 몸으로 상대방을 쓰러뜨린다. 붙잡은 손을 놓치거나 손으로 밀어서도 안되며, 힘이 든다고 발을 바

꾸어서도 안 된다. 상대방을 다리로 위에서 내리 찍거나 위로 올리거나 달려오는 탄력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 때 먼저 넘어지거나 잡고 있던 팔을 풀어버리면 지게 된다. 또는 원을 그려 놓고 상대방을 원 밖으로 밀어내어 승부를 가리게 되는데 밀어낸 사람이 이기게 된다. (대치면 탄정리, 복진세)

(46) 꼬리잡기(진도리)

① 남양면 온암리의 진도리

진도리놀이는 꼬리잡기 놀이와 같은 것이다. 여러 명이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상대편의 꼬리를 끊는 놀이 형태이다. 인원은 상관이 없고 많을수록 좋다. (남양면 온암리, 정일순)

② 남양면 구룡리의 꼬리따기

'꼬리잡기'라고도 부르며 대개 10~20여 명이 놀이를 하며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처음 이긴 아이가 머리가 되고 순서에 따라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끝까지 진 아이가 술래가 된다. 술래는 시작과 동시에 꼬리를 잡기 위하여 이리저리 뛴다. 이 때 머리가 된 아이는 재빠르게 팔을 벌려 술래의 앞을 막으며 방해한다.

늘어선 아이들은 이리저리 피해 움직이는데 이 때 줄이 끊어지면 허리를 놓친 아이가 술래가 되고, 술래가 그 자리로

들어간다. 그렇지 않고 술래가 맨 나중의 아이를 붙잡고 힘껏 당기면 한 사람이 떨어지기도 하고 술래가 힘이 세면 많은 아이들이 떨어지는 수도 있는데, 그때는 술래는 머리가 되고 먼저 번의 머리는 두 번째 자리에 선다. 만약 떨어지는 수가 많을 경우에는 떨어진 사람끼리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술래를 정하고 계속하여 놀이를 한다. (남양면 구룡리, 김동만)

(47) 살가지잡기

살가지 잡는 놀이는 강강술래의 형태와 유사한 놀이이다. 호두나무가 있는 마을의 큰 마당에서 놀았는데 여러 명이 원을 그려 삥 둘러서면 가운데에 '살가지'라고 하여 한사람이 들어간다. 여기서 살가지라 함은 닭을 잡아먹는 짐승이라 한다. 그 사람이 밖으로 나갈라고 하면 손에 손을 잡은 둘레의 사람들이 못 빠져나가도록 팔을 오므려 막는 놀이이다.

인원은 상관이 없으며 많을수록 좋다. 주로 9살짜리 어린 아이들부터 시집 안간 여자들까지 13명에서 15명 정도가 함께 모이면 많이 하고 놀았다. 주로 10살 내외의 여자아이들이 노는 놀이이다. (남양면 온암리, 정일순)

(48) 복조리 달기

① 남양면 구룡리의 복조리 달기

복조리는 상인들이 갖고 다니면서 파는 것을 2~3개씩 산다. 상인들이 문 안쪽으로 던지고 가면 나중에 돈을 받으러 오기도 한다. 또한 집안의 어른들이 사온다. 그 속에 쌀, 돈, 초(합천리) 를 넣어두기도 하며 아무 것도 넣어두지 않는 집도 있다. 복조리는 문 위에 놓아두며 설전에 복조리를 사는데 보름이 지나면 떼어서 쓴다. (남양면 구룡리, 김동수)

② 정산면 광생리의 복조리 달기

정월 초하루 대나무로 복조리를 만들어 팔았고, 집집마다 이것을 사서 문 앞에 걸어두었다. 그 안에 쌀이나 돈을 넣었다고 한다. (정산면 광생리, 오세형)

③ 운곡면 모곡리의 복조리 달기

복조리는 보름날 아침에 두 개정도 사서 걸어두었는데, 그 안에 쌀, 돈, 실을 넣어두었다. (운곡면 모곡리, 윤주완)

④ 청양 지역의 복조리 달기

보름날에는 복조리를 산다. 이는 복을 불러들이기 위해서이고 새벽에 장사꾼이 마당에 복조리를 던져두고 갔다가 날이 새면 돈을 받아간다. 이들은 대부분 외부에서 들어 온 장사꾼

이며 복조리 값으로 곡식이나 돈을 준다. 복조리는 대개 2개로 사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사놓은 복조리는 안에 쌀, 엿, 성냥 등을 넣고 안방문 위에 걸어놓는다. (≪청양군지≫, 1995)

⑤ 비봉면 녹평리의 복조리 달기

정월 열나흗날에는 복조리를 사다가 출입구에 단다. 복조리의 의미는 집안에 복이 들어오라는 뜻이다. 복조리 안에는 쌀과 성냥을 넣어두는데 여기서 쌀의 의미는 농사가 잘 되길 바라는 것이고 성냥은 불이 타오르듯이 돈이 많이 들어오라는 뜻이다. (비봉면 녹평리, 명제헌 · 최순길)

(49) 오곡밥 훔쳐먹기

① 비봉면 녹평리의 오곡밥 훔쳐먹기

정월 보름에는 집집마다 오곡밥을 해먹었다. 오곡밥 안에는 수수, 조, 팥, 콩, 쌀 등을 넣어서 만들었다. 열나흗날에 아이들끼리 놀다가 "아무개네 가서 밥 좀 훔쳐와 먹자!"라고 의견이 모아지면, 그 집에 가서 부엌에 덜어놓은 오곡밥을 가져와 나눠 먹었다. 이 날은 당연히 서로 오곡밥을 훔쳐먹으려니 생각하고 있었다. 보름날은 오곡밥 말고도 나물을 많이 해서 먹었는데 아주까리 잎, 시래기, 취나물, 무수나물, 고사리 등을 무쳐서 오곡밥과 함께 먹었다. (비봉면 녹평리, 명제헌 · 최순길)

② 운곡면 위라리의 대보름 음식과 놀이

대보름에는 오곡밥과 나무새(나물)를 준비해서 간단하게 먹는다. 나물은 보통 시래기나물, 취나물, 시금치나물, 콩나물 정도로 3~4가지 준비한다. 9가지 나물을 준비하기는 어렵다. 이날 오곡밥으로 쌀, 보리쌀, 콩, 팥, 조를 넣어서 지어먹었다.

부럼은 예전에 밤을 깠으나, 요즘 세상에 그런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다. 한편 귀밝이술은 예전에 어른들이 아래 사람에게 내렸다.

대보름날에 엿을 먹어야 일년 동안 밥맛이 좋다고 한다. 그래서 이날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식사하기 전에 엿 한 숟갈을 퍼서, "이거 먹고 여름내 밥맛 좋으라"고 말하며 먹여 준다. 이때 엿은 집에서 고은 토종엿을 사용한다.

(운곡면 위라리, 윤빈귀)

③ 목면 본의 1리 무수동의 오곡밥 얻어먹기

오곡밥에는 찹쌀, 보리, 팥, 콩, 조, 수수, 좁쌀을 넣는다. 나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산나물이다. 이에는 취나물, 고사리, 콩나물, 숙주나물, 무나물, 고구마순, 피마자 등이 있다. 숙주나물은 값이 비싼 편이라 잘 사용하지 못 했다. 그리고 각 집집마다 다니면서 얻어먹으면 좋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녔다. (목면 본의 1리 무수동, 김홍식)

④ 화성면 장계리의 오곡밥 훔쳐먹기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먹으라고 부엌에 오곡밥을 해놓으면, 가져다가 재미로 먹었다. (화성면 장계리, 이순이)

⑤ 청양 지역의 오곡밥 훔쳐 먹기

정월 보름에는 오곡밥, 잡곡밥을 먹는다. 반찬은 콩나물, 호박가지, 시래기 삶은 것 등을 무친 나물이 있다. 오곡밥을 다하면 성주, 조왕, 터주대감께 나물과 함께 바치고, 3갈래 길의 거리신에게도 음식을 바친다. 저녁이 되면 아이들은 오곡밥을 얻거나 훔치러 다니기도 했다. (≪청양군지≫, 1995)

(50) 용알 뜨기

① 비봉면 녹평리의 용알뜨기

정월 보름날 이른 새벽부터 우물에 가서 처음으로 물을 뜨게 되면 복이 들어 온다고 하여 보름날이 시작되는 새벽부터 마을의 우물에는 물을 뜨러 온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비봉면 녹평리, 명제헌 · 최순길)

② 화성면 장계리의 용알뜨기

정월 아침에는 일어나서 가장 먼저 우물에서 물을 뜨는 사람이 운이 좋다고 하였다. 물을 뜰 때는 한 사 당 한 동이씩만 떴다. (화성면 장계리, 이순이)

(51) 더위팔기

① 비봉면 녹평리의 더위팔기

보름날 해가 뜨기 전부터 더위를 팔아야 한다. 더위를 팔 집 앞에 찾아가서 "○○야~"하고 불러서 대답을 하면, "내 더위~" 하고 도망쳤다. 그러면 더위를 판 사람은 한 해 동안 더위를 먹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믿었다.

(비봉면 녹평리, 명제헌 · 최순길)

② 정산면 덕실리의 더위팔기

정월보름날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이웃집에 가서 "먼저 더위" 또는 "네 더위 내 더위, 먼저 더위"라고 외친다. 그러면 상대가 멋모르고 "누구여", 혹은 "예"라고 대답하면 더위를 판 것이 된다. 대답한 사람은 두 사람 몫의 더위를 먹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상대가 대답을 하지 않고, "먼저 더위"라고 반문하면, 처음 말한 사람이 더위를 사가서 그 해 더위를 더 먹게 된다고 한다. (정산면 덕실리, 장광현)

③ 대치면 시전리의 더위팔기

더위팔기의 다른 놀이 방법으로 집 앞에서 밤과 호두를 하나씩 던지고 나서, 더위를 사가라는 뜻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다고 한다. (대치면 시전리, 한태순)

④ 화성면 화암리의 더위팔기

정월 보름날 아침에 해뜨기 전 아침 먹기 전에 "내 더위 내 더위 먼저 더위" 하면서 더위를 팔았다. 보통 아침 일찍 불러서 대답을 하면 더위를 팔 수 있었다.

(화성면 화암리, 송요선 · 송필현 · 조병철 · 최종기)

⑤ 운곡면 모곡리의 더위팔기

보름날 아침에는 더위팔기를 했는데, "○○야" 하고 불러서 대답을 하면 "내 더위"라고 말하면서 판다. 만약 대답 대신에 "먼저 더위"라고 말하면, 오히려 부른 사람에게 더위가 간다고 한다.

(운곡면 모곡리, 윤주완)

⑥ 청양 지역의 더위팔기

정월보름 새벽에 아이들이 식전에 일어나서 내 더위를 다른 사람에게 판다. 더위를 파는 방법은 "아무개!"라고 사람을 부른다.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이 대답하지 않고 "먼 더위(먼저더위)" 라고 하면 내 더위가 그 사람에게 간다고 한다. 또 사람들은 "아무개 자식 더위 팔러 왔구나"라고 생각하고 욕도 한다. 그러나 더위를 팔러 온 것이 아니라면 "나 더위 팔러 온 거 아니야!"라고 해야, 상대편에서 대답을 하며 일을 볼 수 있었다.

더위를 산 사람은 다른 곳에 가서 다시 판다. 이때 더위를

산 사람은 2배로 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더위를 팔면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고 건강히 보낼 수 있다고 한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대치면 농소리, 최재만/ 정산면 광생리, 오세형)

(52) 콩볶아 먹기

2월 초하루가 되면 집안에 노래기가 끼지 말라고 집집마다 콩을 볶으며 주술적 의미로 기원을 한다. 여기서 노래기라는 것은 짚을 썩게 만드는 조그만 검은 벌레를 말한다. 노래기 낀다는 것은 초가집에 노래기가 번식해 까맣게 부식되고 냄새가 나는 것이다.

(화성면 장계리, 이순이)

(53) 풀각시놀이

① 운곡면 신대리의 각시풀놀이

각시풀을 실로 묶어 나뭇가지 끝에 매고, 옥수수 수염으로 만든 머리를 땋아서 소녀의 댕기처럼 만든다. 치마와 저고리를 만들어 입히기도 하고, 할미꽃으로 족두리를 씌워 각시를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시집을 보낸다고 하여 신랑을 만들고 병풍·이불·요·베개 등으로 신방까지 꾸며 놓고 재미있게 놀이를 한다.

(운곡면 신대리, 이영자)

② 남양면 온암리의 풀각시놀이

풀을 접어서 인형을 만들어 논다. 이것을 "풀각시 만든다"라고 하였는데 여자인형, 남자인형을 만들어서 소꿉장난을 하였다.

(남양면 온암리, 정일순)

③ 정산면 덕성리의 풀놀이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놓고 여러 가지 풀잎을 모아서 하나씩 이름을 대고 비교하여 양쪽이 같은 것은 버리고, 상대방이 없는 풀잎만을 세어 그 수가 많은 쪽이 이기게 된다.

(정산면 덕성리, 장광현)

④ 목면 안심리의 풀싸움

질긴 한 잎의 풀을 뜯어서 양손으로 서로 잡고 풀을 대어 힘을 가하게 되는데, 이때 먼저 끊어지는 쪽이 지게 된다. 또한 두 사람이 진달래 수염을 이용하여 '서로 끊기'로 겨루기를 한다.

(목면 안심리, 김익수)

⑤ 화성면 장계리의 각시풀 인형

여자아이들이 동산에 놀러가서 풀로 각시인형을 만들어서 인형놀이를 하였다.

(화성면 장계리, 이순이)

(54) 줄넘기

① 목면 안심리의 줄넘기

줄넘기에는 혼자 혹은 둘이서 하는 줄넘기가 있다. 이 놀이는 짧은 새끼줄을 가지고 혼자서 줄을 앞으로 넘겨 뛰는 방법, 뒤로 넘겨 뛰는 방법, 두 손을 엇갈려서 뛰는 방법, 그리고 한 번 뛸 때 줄을 두 번 돌리는 방법 등이 있다. 이 밖에도 둘이 하는 것으로 혼자 뛰고 있을 때 다른 한 사람이 들어가 마주 보며 뛰는 방법도 있다.

이 지역에서는 한번 뛰어서 두 손을 엇갈려서 뛰기와 줄을 두 번 돌리기를 많이 실시하였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② 운곡면 신대리의 줄넘기

여럿이 하는 줄넘기는 주로 여자 어린이들이 즐겨하는 놀이이다. 먼저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진 두 사람은 6~7m정도 되는 새끼줄을 양쪽에서 잡고, 큰 원을 그리게 하여 땅에 닿게 줄을 돌린다.

다른 사람들은 순서를 정하여 뛰어 들어가 줄을 뛰어 넘는다. 일렬로 서서 차례로 뛰는데 놀이 중간에 줄을 밟거나 줄에 걸린 사람은 돌리는 사람과 교대를 한다. 하나, 둘, 셋, 넷 등으로 박자를 맞추어 한 사람씩 뛰어 들어가는 경우와 2~3명이 동시에 뛰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노래 가사에 맞추어 간단한 동작을 취하게 되고, 노래의 가사는 지역에 따라 차이

가 있다.

이 지역에서 불리는 노래는 다음과 같다.

똑똑, 누구십니까?
손님입니다.
들어오세요.
하나, 둘, 셋, 넷.

하고 줄 안에 들어오면 줄을 잡은 사람이 요구하는 노래의 가사에 따라 뛰면서 동작을 취한다.

영희야 영희야. (동작을 취하지 않는다)
인사를 하거라. (전부 다 인사를 한다.)
영희야 영희야, 뒤로 돌아라. (뒤로 돈다.)
돌아서 돌아서, 땅을 짚어라. (땅을 짚는다.)
그리고, 그리고, 만세를 불러라. (만세를 부른다.)
영희야 영희야, 잘가거라. (줄 밖으로 나간다.)

(운곡면 신대리, 김영자)

(55) 팽이치기

① 화성면 농암리의 팽이치기

팽이치기에는 오래 돌리기로 시합을 한다. 2가지 방식이 있는데, 여러 명이 동시에 팽이채로 힘껏 내리쳐 오래 돌리는

사람이 이기는 것과 팽이채로 치지 않고 가장 오랫동안 돌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있다.

또한 두 사람, 아니면 여러 사람이 편을 짜서 출발선에서 팽이를 치면서 일정한 목표 지점까지 먼저 돌아오는 편이 이기는 방식도 있다. (화성면 농암리, 송필현)

② 운곡면 모곡리의 팽이싸움

팽이를 치다가 두 팽이가 부딪혀서, 상대방의 팽이를 먼저 넘어뜨리는 사람이 이기게 된다. (운곡면 모곡리, 양지석)

(56) 구슬치기

남자들이 주로 하는 놀이로 별다른 도구 없이 구슬만 있으면 놀 수 있는 놀이이다. 유리 공업이 발달한 해방 이후부터 실시하였을 것으로 본다.

출발선을 긋고 3m 간격에 구멍을 파놓는다. 출발선에서 각자 구멍으로 던져 순서를 정한다. 홈에 들어가면 1순위가 되고 그 다음은 홈에 가까운 순으로 한다. 먼저 1순위가 구슬을 멀리 던진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그 구슬을 따먹으려 맞힌다.

맞히거나 한 뼘 안에 있는 구슬은 그냥 먹고, 한 뼘 밖에 있는 구슬은 구슬이 있는 지점에서 왼손으로 한 뼘을 재고 왼손의 새끼손가락과 구슬을 잡은 오른손의 새끼손가락으로 걸고 구슬을 퉁겨 상대의 구슬을 맞혀 따먹는다. (정산면 서정리, 윤흥수)

(57) 다리밟기

① 정산면 대박리의 노두돌 건너기

징검다리의 돌인 '노두돌'을 밟는 놀이를 말한다. 주로 부녀자들이 정월 14일에 노두돌로 만든 징검다리를 여러 번 밟으며 오갔다. 이 놀이를 하면 무좀이 없어진다는 속설이 있다.

(정산면 대박리, 정진우)

② 비보면 녹평리의 다리밟기

정월보름날 저녁에 다리병이 걸리지 않는다고 하여 어릴 때 어머니와 같이 다리를 오가며 건넜다. (비봉면 녹평리, 강만근)

③ 청양읍 송정리의 널빤지 밟기

널빤지 밟기는 정월 대보름날 밤에 남녀 구분 없이 했다. 주로 어린이들이 즐겨했는데, 이것은 다리에 병이 걸리지 않기 위하여 나무판으로 된 널빤지를 밟는 것이다.

(청양읍 송정리, 이서동)

④ 목면 안심리의 망태기 밟기

연초에 조선조 토정 이지함(李之函, 1517~1578)이 만든 토정비결이나 점을 보아 일년신수가 나쁘게 나오면, 정월보름날에 망태기(씨앗을 보관하기 위한 짚으로 만든 용기)에 돌을 넣어 징검다리를 만들어 수십 번 밟고 다녔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58) 불넘기놀이

① 화성면 화강리의 불넘기

동네의 빈터나 논과 밭에 통나무와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지른 다음 "넘자 넘자 불 넘자"라고 합창을 하며 뛰어 넘는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불을 넘었는데, 주로 어린이들이 즐겨 하였다. 이때 자기 나이 수대로 넘으면서 소원을 빌었다.

(화성면 화강리, 이두순)

② 운곡면 신대리의 불넘기놀이

불넘기 놀이에 참가하는 부녀자들은 대개 한복을 입었는데, 저고리와 동정을 뜯어서 불 속에 던져 태우기도 하였다. 이처럼 불놀이를 하면 그 해의 액막이를 할 수 있다는 속설이 있다고 한다.

(운곡면 신대리, 김영자)

(59) 골패(骨牌)놀이

대개 두 사람이 하며, 선후를 결정하여 12쪽씩 패를 나누어 갖는다. 선이 먼저 패를 한 쪽 내려놓으면 상대는 선이 내려놓은 패의 아래쪽에 수에 맞게 내려놓는다. 이와 같이 계속하여 상대숫자에 맞는 것을 내지 못하면 진다. 이 놀이는 학식 있는 사람이 즐겼기 때문에 '신선놀음'이라고 부른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60) 쟁경도놀이

① 정산면 대박리의 쟁경도놀이

이 지역의 쟁경도(爭卿圖)놀이는 '승경도 놀이'라고도 한다. 10년 전까지 집안 식구들과 어울려 실시를 하였다고 한다.

이 놀이의 판은 보관을 위해 기름칠을 한다. 이 판은 유학에서부터 입문해서 영의정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조선조의 관직이 총 망라하여 그리기도 하지만, 만드는 사람에 따라 확대하기도 하고 축소하기도 하고, 관직의 수도 증감하여 적기도 한다.

조선시대 후기 서울과 지방의 관직이 촘촘히 적혀있고, 관직 밑에 1부터 5까지의 숫자가 적혀있어 숫자에 따라 승진하거나 사임, 혹은 파직 당할 수도 있다. 관직 외의 '만고의 소임', '간신배'같은 항목을 넣어 놀이의 재미를 높이는 경우도 있다.

(정산면 대박리, 정진우)

② 정산면 서정리의 종경도놀이

종경도 판은 장방형의 마분지나 창호지의 전지 한 장에 대략 가로 10행, 세로 14행으로 칸으로 나누어, 써넣고자 하는 관직의 수를 적는다. 전국 고을 360개와 지방의 관직까지, 그리고 귀양지인 진도, 흑산도, 제주도 등이 기록되어 있어 1000여 개가 넘는다고 한다.

놀이 방법은 개인 또는 4~10명이 편을 나누어 순서를 정하고 주사위를 던져 중앙의 영의정이 먼저 되는 사람이 이기게

된다. 또한 문과와 무과를 정하여, 문과로 출발한 사람은 영의정을 거쳐 사궤장(賜机杖)에 도착한 사람이, 무과로 출발한 사람은 도원수를 거쳐 70세 이상이 되어 봉조하(奉朝賀)로 퇴임하는 사람이 이기게된다.

이 지역에서는 이 놀이를 할 때 주사위를 가지고 놀았으며, 말판은 직접 만들어 사용하였다고 한다.

(정산면 서정리, 윤흥수)

(61) 투전(鬪牋)

① 정산면 서정리의 투전

투전은 19세기 말경 일본으로부터 전래 된 화투와 함께 놀음의 도구로 병행되었는데, 일제시대 후반기에 일인이 화투를 보급시킬 목적으로 투전을 압수했다고 하고 국민들은 왜색이 짙다고 하여 화투를 기피하기도 하였다.

해방 후부터 6.25 사변까지 투전이 성행하다가 6.25 이후에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정산면 서정리, 윤흥수)

② 청양읍 송방리의 투전

투전지는 창호지를 여러 겹을 붙여서 마분지처럼 두텁게 만든 다음 길이 18cm, 폭 1.5cm 정도의 크기로 오려낸다. 기름을 먹여 만들기 때문에 탄력이 좋고 오래 사용 할 수 있다.

투전지는 한 면에 인물, 새, 동물, 벌레, 물고기 등의 형상과 1부터 10까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각각의 숫자별로 6장씩 있어 한 목이 60장도 있으나, 주로 40장씩 40장이 한 목이 되는 투전지를 많이 사용한다.

놀이의 명칭도 사용되는 매수나 인원수, 또는 내용에 따라 돌려대기, 꼽사치, 적찍이, 가구, 쫄팔이 등으로 구분한다. 이들 중에서 40장을 가지고 노는 돌려대기가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이를 갑오잡기, 둘레태기(강원도), 짓구땅이(함경도), 땅이(황해, 평안도)라고도 한다. 본 지역에서는 '갑오잡기'라 부르고 해방 이후에 성행하였다. (청양읍 송방리, 이서동)

③ 목면 화양리의 투전

이 지역에서는 놀이 방법으로 '감워지기'가 있었는데, 이 놀이는 패를 2장씩 갖고 술집에 가서 먹은 후 패를 보아 끗수가 제일 낮은 사람이 돈을 내는 도박성이 매우 강한 놀이였다고 한다.

한편 모듬따기는 모든 놀이꾼이 일정액의 돈을 중앙에 묻고 시작한다. 이 돈을 '원봉'이라고 한다. 한편 모든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만의 돈을 모아서 다른 개임이 이루어지는데 돈을 그 앞에 따로 놓는다. 이를 '단살'이라고 한다. 모듬따기는 이렇게 두 가지의 돈을 놓고 시작한다.

이 지역에서는 뀌미는 3장 중 2장은 패가 같고, 1자가 끼어야 된다고 말한다. (목면 화양리, 우영제)

(62) 화투(花鬪)

① 정산면 서정리의 화투

약의 명칭	내 용	점수
홍 단	1월의 5끗, 2월의 5끗, 3월의 5끗 3개를 모두 먹었을 때	30
청 단	6월의 5끗, 9월의 5끗, 10월의 5끗 3개를 모두 먹었을 때	30
초 단	5월의 난초 4짝을 모두 먹었을 때	40
비 약	12월의 비 4짝을 모두 먹었을 때	20
풍 약	10월의 풍 4짝을 모두 먹었을 때	20

일본인이 통치수단으로 한국인의 정신을 분열시키기 위해 화투를 보급시켰다고 한다. 민화투는 약과 점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정산면 서정리, 김윤종·백용태)

② 목면 화양리의 화투(짓고땡과 돋따)

'짓고 땡' 이라고도 부르며 재래의 투전놀이 방식과 유사하다. 똥(십일)과 비(십이)와, 그리고 일에서 십까지의 알맹이를 재외하고, 껍데기 20장으로 한다.

물주(오야)가 일정량의 놋돈을 놓고 사람의 수에 따라 보통 화투표 3장과 물주표 1장을 깔아 놓으면 놀이꾼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놋돈(물주가 건 돈)에 맞추어 돈을 건다. 물주는 자기 화투표와 바닥의 화투표에 4장을 더 놓아 5장을 만든다. 그러면 각자 5장을 가지고 3장을 더하여 열, 이십, 삼십을 만들어 짓고 나머지 2장으로 끗수로서 승부를 결정한다.

끗수의 서열은 높은 땅으로부터 '갑오, 여덟 끗, 일곱 끗---'의 순서로 한다. 한 끗(따라지), 무대(끗수가 없음)의 순서이다. 만약 놀이꾼이 짓지를 못하면 물주가 먹고, 놀이꾼이 땡이 나오면 물주는 건 돈의 2배를 주어야 한다. 본 지역에서는 물주가 건 돈을 놀이꾼이 전부 다 갔을 때만 땡값을 준다고 한다.

돋따는 완전한 도박게임으로 단지 끗수만으로 승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도리 짓고 땡'과 같이 껍데기 20장만으로 한다. 물주가 놋돈을 놓아 바닥에 5장을 횡으로 늘어놓고 자기의 화투 표를 갖는다. 이 때 물주의 표는 3번 정도 골라서 표를 가질 수 있다. 놀이꾼은 놋돈에 맞게 돈을 건다. 물주는 우측으로부터 표를 보이지 않게 엎어서 한 장 씩 더 준다. 끗수가 좋아 놀이꾼이 "알로"하면, 물주는 다음 놀이꾼에게 표를 주고 좋지 않으면 "때려"하면 표가 보이게 뒤집어 한 장을 더 준다.

대개 다섯 끗 이상이면 때리지 않고 그대로 둔다. 물주도 놀이꾼으로부터 한 장의 화투 표를 받아 놀이꾼과 같이 하여 나중에 끗수로 놀이꾼과 대결하게 된다.

(목면 화양리, 우영제)

③ 운곡면 모곡리의 만단놀이

만단놀이는 민화투와 비슷하나 약의 종류가 무척 많다. 20~30년 전부터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통 4인이 참여하고 48장의 화투표를 속칭 '밤일 낮장'이라 하여 4사람이 한 자의 표를 뽑는데, 이 때 밤에 놀이를 할 때는 낮은 표를 잡은 사람이, 낮에 놀 때는 높은 표를 잡은 사람이 선이 된다. 3인이 놀이를 할 경우, 선은 바닥에 6장을 깔고 각각 7장씩의 표를 나누어주며, 나머지 20장은 한번 칠 때마다 1장씩 깐다.

약의 명칭	내 용	점수	비 고
5광	5개의 광을 다 먹었을 때	500	
4광	4개의 광을 다 먹었을 때	400	비광을 포함하면 300
홍단	홍단 3개를 먹었을 때	200	1, 2, 3의 홍단
청단	청단 3개를 먹었을 때	200	6, 9, 10의 청단
한짝 따기	1, 5, 6, 7, 8, 9, 10, 11, 12를 4짝을 먹었을 때	100	
〃	2,4를 4짝 먹었을 때	200	
〃	3을 4짝 먹었을 때	300	
5띠	5개의 띠를 먹었을 때	200	띠 하나 추가 시 100점 추가
6띠	6개의 띠를 먹었을 때	200	열끗 짜리 하나 추가시 100점 추가
껍데기 따기	껍데기(피)를 12장 먹었을 때	200	피 하나 추가시 100점 추가
싸리	4와 7의 4짝을 먹었을 때	400	흑싸리와 홍싸리
백팔구	1과 8의 네짝을 먹었을 때	400	

판을 끝내고 나서 따다 놓은 표를 정리하고 각자 약을 헤아려 다른 사람으로부터 약에 해당하는 점수를 넘겨받는데 상대의 약만큼 제하고 나머지만 받는다.

상대가 딴 해당 점수만큼 내기를 하는데 보통 100점 당 얼마씩의 돈내기를 걸고 놀이를 한다. 이 놀이는 4명이 서로 견제하기 때문에 약을 하기 어렵지만 일단 약을 하면 3명으로부터 모두 해당 점수를 받게 된다. 약의 종류와 점수는 앞의 표와 같다.

(운곡면 모곡리, 양지석)

④ 목면 화양리의 받싸리

화투놀이 중 칠갑산을 중심으로 북서부에서는 만단놀이, 남동부의 4개 면에서 만단 놀이와 유사한 놀이가 있는데 이를 '받싸리'라 한다.

놀이 방법은 만단 놀이와 유사하여 4명에게 패를 돌려 선은 치지 않고 들어간다. 내기로는 돈이 오가며 흉하게 보여 10,000원을 내고 사 돈 대신 콩으로 주고받고 놀이를 하며 놀이가 끝나면 콩을 돈으로 계산하여 돌려 받는다. 약으로 '곱거리'와 '단거리'가 있는데, 곱거리를 하면 2인으로부터 콩을 2개씩 받고 단거리를 하면 약의 점수 합이 아무리 많아도 콩 하나를 받게 된다. 약의 종류와 점수는 다음과 같다.

(목면 화양리, 우영제)

⑤ 남양면 구룡리의 피내기

약의 명칭	내 용	점 수	비 고
진사광	비광을 제외한 4개의 광을 먹었을 때	곱거리	콩 2개를 준다.
오광	5광을 먹었을 때.	곱거리	콩 2개를 준다.
싸리	흑싸리, 홍싸리의 4짝을 먹었을 때.	곱거리	콩 2개를 준다.
4광	비광을 포함한 4광을 먹었을 때.	600	끗발점수(단거리)
한짝 따기	1을 4짝 먹었을 때	100	〃
〃	2를 4짝 먹었을 때	200	〃
〃	3을 4짝 먹었을 때	300	〃
〃	5를 4짝 먹었을 때	500	〃
〃	6을 4짝 먹었을 때	60	〃
〃	8을 4짝 먹었을 때	80	〃
〃	9를 4짝 먹었을 때	90	〃
〃	10을 4짝 먹었을 때	20	〃
〃	11을 4짝 먹었을 때	40	〃
〃	12를 4짝 먹었을 때	20	〃

피내기를 '피보기'라고도 하며 민화투와 놀이 방식이 비슷하고 규칙과 약이 매우 간단하여 노인정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다.

대개 4인이 놀이를 하며 선은 바닥에 8장을 깔고 각자 5장씩의 표를 나누어주며, 나머지 20장은 한 번 칠 때마다 1장씩 깐다. 피만 가지고 점수를 계산하는데, 피를 6장을 따면 기본

이고 7장을 따면 100점, 8장이면 200점, 9장이면 300점으로 계산하고 피 1장 추가 시마다 100점씩 추가된다. 피를 적게 딴 사람은 딴사람에게 100점 당 얼마 정도의 돈내기를 한다.

한편 뽕은 도박의 성격에서 벗어나 부녀자들이 등수를 정하여 먹기 내기를 하였던 순순한 놀이라 볼 수 있다. 간혹 일정한 돈을 내어 그 판에서이긴 자에게 얼마 정도의 돈을 주기도 한다.

다른 화투의 놀이 방법은 높은 끗수가 이기는데 비하여 이 놀이는 낮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이기게 된다. 단판에 끝나지 않고, 보통 10회~12회 전까지의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놀이 방법으로, 표를 잡은 사람이 5장씩을 돌리고 나머지 패는 바닥에 놓는다. 표를 돌린 사람부터 바닥의 표를 한 장씩 가져와 6장으로 약을 맞추어 보고, 필요 없는 한자의 표를 바닥에 버린다. 계속하여 진행 하다가 약이 맞추어 지면, 스톱을 하게 되는데 위의 표와 같이 약과 점수에 따라 마이너스와 0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들고 있는 표를 합한다.

(남양 구룡리, 김동만)

⑥ 목면 화양리의 뽕

뽕은 자신이 들고있는 표의 합을 줄여야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줄이는 방법으로 '뽕'이 있다. 다른 사람이 내놓은 숫자의 끗수를 두 장 가지고 있으면, '뽕'이라 하여 가지고 있는 같은 두장을 내놓고 추가로 1장을 더 버린다. 그래서 2장

만을 가지게 된다. 뽕을 하지 않아도 표를 털 수 있는데 똑같은 숫자 3장을 들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뽕을 할 수 있어 '자연'이라 하고, 3장을 버리고 추가로 1장을 더 버려 2장을 가질 수 있다.

약의 명칭	내　　용	점　수
10 부족	똑같은 숫자 4장과 똑같은 숫자 2장	-10
	6장을 합쳐서 10끗 이하일 때	합친 수만큼 마이너스
60 부족	6장을 합쳐서 60끗 이하일 때	〃
기　차	번호 순서대로 6장을 맞출 때	〃
3장과 3장	똑같은 숫자 3장씩 들어 있을 때	〃
2장이 3패	똑같은 숫자 2장씩 들어있을 때	〃

표를 2장 들고 있는 사람은 스톱을 할 수 있다. 두 장의 합이 5이어야 스톱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 중 뽕을 한 사람이 있어야 스톱을 할 수 있고, 스톱을 한 사람은 끗수의 합으로 따지고, 다른 사람은 손에 들고 있는 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그런데 스톱을 하였는데 다른 사람이 낮은 숫자를 가지고 있으면 바가지를 씌운다. 씌운 사람은 0점이고, 바가지를 쓴 사람은 자기 수에 30이나 50을 더하게 된다.

또한 뽕을 한 사람이 똑같은 숫자 2장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나이롱'이라 외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숫자를 내놓으면 바가지를 쓴다. 바가지를 쓴 사람은 자신의 수에 30을 합산하고 바

가지를 씌운 사람은 0이 된다. 이런 방법으로 점수를 기록하여 점수의 합계가 제일 적은 사람이 1위가 되고,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꼴찌가 된다. 순위에 따라 돈을 내어 먹을 것을 사와 즐겁게 먹고 마시기도 한다. 혹은 정월대보름 날에는 순위에 따라 음식을 훔쳐먹는 것기도 한다. 약의 명칭과 점수는 앞의 표와 같다.

(목면 화양리, 우영제)

⑦ 정산면 서정리의 고스톱

이 지역의 고스톱은 다음과 같다.

약의 종류	내 용	점수	비 고
고도리	2자, 4자, 8자의 10끗을 3장 먹었을 때	5	
홍단	홍단 3장을 먹었을 때	3	
청단	청단 3장을 먹었을 때	3	
구사	사, 오, 칠의 띠 3장을 먹었을 때	3	
3광	광 3개를 먹었으 때	3	비광이 끼면 2점
4광	광 4개를 먹었을 때	4	
5광	광 5개를 먹었을 때	15	
10피	껍질 10장을 먹었을 때	1	질 한 장 추가시 1점 더함
5열	10끗짜리 5장을 먹었을 때	1	10끗 한 장 추가시 1점 더함
5띠	5끗 짜리 5장을 먹었을 때	1	5끗 한 장 추가시 1점 더함

㉠ 광이나 약팔기 : 선은 무조건 치고 다음 두 삶이 칠 수 있는데 순서가 빠른 사람이 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은 광이나 약을 팔 수 있다.

㉡ 흔들기 : 같은 숫자가 3장이 들어 왔을 때 치기 전에 보여 주고 '흔들었다'하여 점수가 나면 돈을 2배로 먹는다.

㉢ 뻑 : 숫자가 같은 짝을 치고 같은 짝을 까면 '뻑'이라 하여 그 사람이 먹지 못하고 그 짝을 까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먹는다. 처음 돌릴 때 뻑을 하면 '첫뻑'이라 하여 일정액의 돈을 받는다.

㉣ 바가지 : 껍질로 점수를 나서 고스톱을 했는데 상대가 껍질을 6장 이상 따지 못했을 경우, 또는 꽝으로 점수를 났는데 상대가 광을 먹지 못했을 때 바가지를 쓰는데 이 때는 2배의 돈을 주어야 한다.

㉤ 독박(독바가지) : 놀이를 할 때 서로 짜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사람이 필히 날 수 있는 표를 냈을 때를 말하고 혼자서 다른 사람이 줄 돈까지를 주어야 한다. 또한 자기가 점수가 나서 '고'를 하였는데 다른 사람이 점수를 났을 때 '고독박'을 쓴다.

㉥ 고 : 일단 3점이 났는데 다른 사람이 점수를 날 수 있는 확률이 적을 때 더 많은 점수를 얻기 위하여 계속 경기를 하는 것으로 한번 고를 하면 1점을 보텐 점수를 합산한다. 그리고 고를 3번하면 '쓰리고'라 하여 딴 점수의 두 배로 돈을 받는다.

ㅅ 스톱 : 자기가 점수를 낮지만 다른 사람도 점수를 날 수 있는 확률이 크므로 그만 게임을 끝내자는 말이다.

ㅇ 따 : 10끗 짜리 7장으로 3점을 났을 때를 말하며 2배의 돈을 받는다.

기본적인 약은 위와 같고 구 10끗 짜리, 똥 10끗, 비 껍질은 '쌍피'라고 하며 껍질 두장으로 쳐준다. 단 구 열 끗은 10끗 짜리 혹은 쌍피로도 사용 할 수 있다. 약과 점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정산면 서정리, 김윤종)

⑧ 목면 화양리의 표때기

상대와 내기를 하지 않고 혼자 실시하는 놀이로 1년 또는 당일의 운수를 점치는 심심풀이로 한다. 주로 나이 많은 노인이나 화류계의 여인들이 주로 했다.

이 놀이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방법이 있고 대체로 떨어지는 끗수의 다과로 점을 치거나 표를 해석하여 운수나 재수를 점치는데 1자부터 12자 까지 해석하는 의미와 뜻이 있다. 1자는 소식[消息], 2자는 임[愛人], 3자는 산보[散步], 4자는 근심, 유혹[誘惑], 5자는 술[酒], 6자는 기쁨[喜], 7자는 횡재[橫財], 8자는 달밤[月夜], 9자는 국수, 10자는 근심, 11자는 돈[貨幣], 12자는 눈물로 해석하나 지방에 따라 좀 다르다.

(목면 화양리, 우영제)

⑨ 운곡면 신대리의 갑오떼기 화투놀이

1부터 10까지 화투 표만을 가지고 세로로 5장을 놓은 다음 계속하여 오른쪽으로 늘여가면서 3정을 합하여 갑오(합이 9, 19, 29)가 되면 빼어 내어 따로 둔다. 이렇게 계속하다가 모두 떨어지면 최종적으로 3자가 남는데, 3광이면 운수가 좋고 3의 띄와 피면 좋지 않다라고 한다. 또 5장씩 나누어 '도리짓고 땡'의 형식으로 끗수를 재어 끗수의 합이 20이상이 나노면 운수가 좋다 라고 한다.

이 지역의 망통떼기는 갑오떼기와 비슷하게 망통(세 장의 합이 10, 20, 30)을 맞추어 떼는데 모두 떨어지고 나면 마지막에 10장이 남는데 남는 것이 10끗 자리이면 우수가 좋고 띠, 피면 운수가 나쁘다고 한다. (운곡면 신대리, 김영자)

⑩ 정산면 서정리의 운수보기 화투

가로로 4줄, 세로로 4장을 엎어놓고 마지막 다섯 번째의 장을 뒤집어 놓는다. 손에 있는 표 한 장씩 뒤집으면서 숫자가 맞는 것끼리 맞추어 바닥표의 윗편에 4줄로 정리해 간다. 반복하여 다 떨어지면 위의 4줄로 정리한 것 중에서 같은 수 4장이 있으면 그것만을 골라서 그 날의 운수나 재수를 본다.

(정산면 서정리, 백용태)

⑪ 목면 화양리의 일년표 화투놀이

가로 11줄, 세롤 44장을 정리한 후 손에 있는 표 한 장을 뒤

집어 1월부터 11월까지 위를 찾아 넣는데 위로부터 꽝(열끗), 열끗(피), 띠(피), 피의 순서에 넣는다. 이렇게 계속하다가 12(비)가 나오면 제하고 다시 손의 표를 한 장 뒤집어 계속 진행한다.12(비)가 4장 나오면 끝나는데 먼저 떨어진 숫자의 달이 가장 좋다고 한다.

피라미드표는 화투표를 피라미드형으로 처음 줄에는 정점 1장, 두 번째 줄에는 2장, 이런 방법으로 아홉 번째 줄에는 9장을 놓는다. 정점의 1장과 마지막 9장을 뒤집어 놓고 숫자가 맞는 표끼리 떼어서 두 군데로 나누어 차례차례 쌓아간다. 그런데 짝이 맞아 떼어낸 곳은 다음 표를 뒤집을 수 있는데 아무 표도 물리지 않아야 한다. 모두 떨어지면 두 군데에 쌓아둔 표를 합쳐서 가로로 4장을 놓고 계속 밑으로 놓아 똑같은 숫자 4장이 떨어지는 표의 숫자로 운수를 점친다.

십자표는 가로 9장, 세로 7장씩 27장을 바닥에 엎어 넣는다. 바닥에 열 십자(+)가 4개가 그려질 수 있도록 사이사이 표를 뒤집어 놓는다. 다른 표는 숫자만 맞으면 떼어내는 반면에 이 표는 알은 알대로 껍질은 껍질대로 맞추어 떼어서 놓는다. 떼어내는 순서 중 +자중 4귀퉁이에 걸리는 표가 없이 다 떨어지면 중장의 표를 뒤집고 중앙의 표가 떨어지면 4장을 뒤집는다. 이렇게 하여 떨어진 표는 두 군데로 쌓아 두었다가 모두 떨어지면 피라미드와 같이 운수를 점친다.

(목면 화양리, 우영제)

(63) 썰매타기

얼음판 위에서 썰매나 날이 달린 신을 신고 타기도 한다. 썰매는 한 자 정도의 장방형 널빤지 밑에 직경 5cm, 길이 30cm 되는 막대를 위에는 넓게 아래는 각이 지게 깎아서 대고, 각이 진 부분에 철사를 댄다. 썰매가 잘 나가도록 막대기에 송곳을 박은 긴 막대기를 이용해서 얼음을 찍어 앞으로 나가게 한다. 타는 방법에는 혼자 타기와 둘이 타기로 나누고 또 자세에 따라 서서 타기 앉아서 타기, 무릎을 꿇어 타기로 나눌 수 있다. 놀이 방법에는 누가 빨리 목표 지점까지 갔다 오느냐에 따라 승부를 결정한다. (대치면 탄정리, 복진세)

(64) 말타기

먼저 편을 갈라서 각각 대장을 선정하여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진 편은 대장이 벽이나 나무에 기대어 서면, 한 사람은 허리를 굽히고 두 손으로 대장의 허리를 잡은 다음 머리를 사타구니 사이로 끼워 넣는다. 진 편의 나머지 사람들은 앞사람의 사타구니 사이로 머리를 끼우고 다리를 잡으며 길게 말을 만든다. 이긴 편에서는 멀리서부터 가속도를 이용해 달려와 두 손으로 말 등을 잡고 세 차례를 굴러서 깊숙이 탄다. 이 때 깊숙하게 타지 않으면 뒷사람이 탈 수 없게 되어 중간에 떨어지거나 발이 땅에 닿아 교대된다. 말이 힘이 없어 무너지면

다시 말을 만들게 하여 올라탄다. 다 탈 때까지 무너지지 않으면 대장끼리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이긴 편은 타게 되고 진 편은 다시 말을 만들어 놀이기 계속된다.

(정산면 대박리, 정진우)

(65) 목침화로 빼앗기

① 정산면 서정리의 목침화로 빼앗기

주로 농촌에서 일꾼들이나 동네의 떠꺼머리 총각들이 사랑방에 모여서 세끼를 꼬거나 짚신을 삼으며 기나긴 겨울밤을 보냈다. 이때 모인 사람들끼리 심심하여 팔을 이용한 힘자랑으로, 집에서 구하기 쉬운 나무토막으로 만든 배개인 목침을 가지고 서로 빼앗는 놀이를 하였다. 이 놀이를 통하여 술내기를 하였고, 이기기 위해서 팔 힘보다는 악력이 센 사람이 유리하였다고 한다.

목침 빼앗기와 유사한 놀이로 화로 빼앗기가 있는데 목침 빼앗기보다 위험하기 때문에 힘보다는 기술적인 요인이 더 필요했다고 한다.

(정산면 서정리, 윤홍수)

② 남양면 대봉리의 목침화로 빼앗기

육면체로 된 목침을 가지고 내기놀이를 하는데 두 사람이 목침을 가운데에 놓고 배를 쭉 깔고 하거나 앉아서 하거나 책

상 위에 놓고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목침을 한 손으로 맞잡고 힘을 주어 당겨 빼앗기는 쪽이 지고 빼앗는 쪽이 이기게 된다. 화로 빼앗기는 화로에 불씨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위험하여 반드시 방바닥 위에 앉아서 기술적으로 실시했다고 한다.

(남양 대봉리, 강희배)

(66) 발씨름

이 놀이는 주로 농촌에서 동네의 일꾼들이나 총각들이 사랑방에 모여서 새끼를 꼬거나 짚신을 삼으면서 기나긴 겨울밤을 보내려니 지루하였다. 그런 지루함을 달래려고 아무 준비물이 없이 다리의 힘자랑으로 발씨름을 통해 술내기를 하여 한바탕 웃는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놀이방법은 방 안에서 두 사람이 바지를 무릎까지 올리고 다리를 내밀어 장딴지 옆을 서로 대고 반대방향으로 힘을 주어 항복을 받아내거나, 다리가 자기 쪽으로 쓰러지게 되면 지게 된다. 옆에서 구경꾼들이 응원이 대단하고 뼈와 뼈가 부딪힐 때의 아픔을 참느라 씨름을 하는 두 사람의 얼굴은 새빨개지고 살이 움푹 들어가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 놀이를 이기려면 힘도 필요하지만 아픔을 참는 인내심이 더 요구된다고 한다.

(정산면 대박리, 정진우)

(67) 방아개비 놀이

① 목면 안심리의 방아개비놀이

여름과 겨울철에 아이들이 풀밭에서 방아개비를 잡아 스스로 깡충깡충 뛰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한다. 마치 방앗간에서 발로 디디어 찧는 디딜방아처럼 방아를 찧듯이 계속해서 흔들고 있어 이를 보고 방아찧기를 한다고 하고 이 놀이를 '방아개비 놀이', '땅개비놀이'라고도 부른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② 비봉면 녹평리의 방아개비놀이

방아개비를 잡아 두 개의 긴 뒷다리를 잡고 흔들면 방아개비는 스스로 깡충깡충 뛴다. 이 때 아이들은 방아개비가 방아찧기를 할 때 "아침거리를 찧어라 저녁거리를 찧어라 콩콩 찧어라"라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방아개비가 이 노래에 맞춰 깡충깡충 계속해서 뛰는 것을 보고 신기한 듯 재미있어 한다.

(비봉면 녹평리, 지유순)

③ 청양 지역의 땅개비요(謠)

땅개비야 땅개비야
아침거리를 찧어라.
저녁거리를 찧어라.
우리 아씨 흰떡 방아
네가 대신 찧어라.
앞집 처녀 보리방아
네가 대신 찧어라. (청양 문화원 1994:391)

(68) 서울구경놀이

서울구경놀이는 옛날에 농촌에 사는 어린이들은 서울에 가는 것이 꿈이었고 큰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서울에 갔다온 어린이가 부럽기도 하여 아버지에게 조르기도 한다. 이놀이는 그 마음을 달래주려 순진하고 착한 어린이를 짓궂은 어른들이 장난치려고 만든 놀이라고 할 수 있다.

놀이의 방법은 어른은 두 손바닥을 펴서 어린이의 두 귀에 대고 위로 들어올린다. 그 후 "서울이 보이니? 안보이니?" 하고 물어본다. 위로 올라간 어린이는 서울을 보려고 두리번거린다.

"안 보이는 데요"라고 하면 손바닥으로 지긋이 눌러 아프게 하고 더 높이 들어올린다. 어린이는 귀가 아프니까 보인다고 소리친다. 이때 옆에서 보고 있던 어린이들은 정말 보이는 줄 알고 자기도 보여 달라고 졸라댄다.

(대치면 탄정리, 복진세)

(69) 선생님놀이

① 운곡면 신대리의 선생님놀이

이 놀이는 소녀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어린이들을 돌볼 때 마주 앉아 노래와 동작을 같이 하면서 즐기는 놀이이다. 본 지역에서는 '선생님', '구리구리 가위바위보', '아침 바람 하

자' 놀이라고 한다.

놀이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뉜다.

㉠ 쎄쎄쎄- 쎄쎄쎄 : 양손 끝을 아래 위로 서로 걸어서 아래 위로 서너번 흔든다.

㉡ "아침바람 찬바람에" : 자기 손뼉을 치고 앞사람의 오른손 손바닥과 마주치고 자기 손뼉을 치고 앞사람과 왼손바닥 마주치기 동작을 2회 실시한다.

㉢ "울고 가는" : 양손으로 얼굴의 눈물을 닦는 동작을 취한다.

㉣ "저 기러기" : 오른 손으로 들어 하늘에 날고 있는 기러기를 가리키는 동작을 취한다.

㉤ "우리 선생" : 오른팔로 가슴 앞에 대고 왼팔로 가로 댄다.

㉥ "계신 곳에" : 팔짱을 낀 채로 머리를 좌우로 흔든다.

㉦ "엽서 한 장 써주세요" : 왼손바닥에 오른 손으로 글씨 쓰는 시늉을 한다.

㉧ "구리 구리" : 두 주먹을 바깥 쪽으로 굴린다.

㉨ "가위 바위 보" : 그 후 진 사람은 머리를 숙이고 이긴 사람은 어느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누르고 "어느 손" 하며 손가락을 내밀면 진 사람이 고개를 들고 그 손가락을 맞추게 된다. 맞추었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맞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맞출 때까지 계속하게 된다. (운곡면 신대리, 김영자)

② 청양지역의 선생님놀이요(謠)

아침 바다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
우리 선생 계실 적에
엽전 일전 주어볼까
일전 말고 이전이요
이전 말고 삼전이요
삼전 말고 사전이요
사전 말고 오 전이요
오전 말고 육전이요
육전 말고 칠전이요
칠전 말고 팔전이요
팔전 말고 구전이요
구전 말고 십전이요
구리구리 구리
하나 둘 셋-. (청양 문화원 1994, 393쪽)

(70) 성냥치기

① 목면 안심리의 성냥치기

이 놀이는 성냥이 귀했던 시대에 겨울철에 소년들이 실내에서 즐겨하던 놀이로 몇 개의 성냥개비로 여러 규칙을 정하여 놓고 성냥개비를 따먹는데 도박 성격이 조금 가미 된 놀이라고 할 수 있다.

찔러 먹기는 편을 정하고 4개의 성냥개비를 엄지와 검지. 그리고 중지에 짚고서 돌려 틀어 성냥개비로 삼각형을 만든다. 그 후 만들어진 삼각형 안에 성냥개비를 넣으면 그 넣은 개수를 다른 사람에게서 모두 받는다. 모양이 크게 만들면 많은 성냥개비를 넣어서 성냥개비를 많이 딸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순서에 따라 놀이가 진행된다. 삼각형을 만들지 못하거나 성냥개비를 넣다가 건드리면 실격이 되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게 된다.

(목면 안심리, 김익수)

② 대치면 탄정리의 성냥치기

㉠ 칠성예 : 먼저 한 사람(물주)이 일곱 개의 성냥개비를 가지고서 몇 개를 뽑아 손안에 숨기고 그 앞에 7줄의 선을 그어 놓는다. 다른 사람들은 물주가 뽑은 개수에 맞게 한 개라고 생각되면 첫 번째 줄에, 두 개라고 생각하면 두 번째 줄에, 그리고 일곱 개라고 생각하면 일곱 번째 줄에 성냥개비를 건다. 맞추게 되면 맞춘 사람은 성냥개비를 놓은 숫자대로 따먹게 되고 맞추지 못하면 물주에게 잃게 된다.

㉡ 때려먹기 : 성냥개비 대여섯 개를 가지고 1)과 같은 방법으로 놓은 다음 겹쳐져 있는 성냥개비를 때려서 떨어지게 하면 모두 따먹는다.

(대치면 탄정리, 복진세)

(71) 수건돌리기

아이들이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술래를 정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원을 그려 앉는다. 술래는 수건을 감춘 채 원 밖으로 돌다가 앉아있는 아이의 엉덩이 뒤에 수건을 살짝 떨어뜨려 놓고 걸어서 돈다. 이 때 앉아있는 어린이들은 술래가 지나간 뒤에 혹시 자기 뒤에 수건을 놓지는 않았는지 손으로 확인해 보기도 한다. 자기 뒤에 수건이 떨어져 있으면 재빨리 수건을 들고 원 밖으로 돌고 있는 술래를 쫓아가 잡으려한다. 술래에게 잡히면 술래가 되고 잡히지 않고 일어선 아이의 자리에 앉으면 술래를 면하게 된다.

그러나 자기 뒤에 수건이 떨어져 있는지를 모르고 앉아 있을 때는 술래가 원을 한바퀴 돌고 나서 그 아이의 등을 가볍게 친다. 그러면 그 아이는 가운데로 나와서 다른 아이들이 내린 벌칙을 받고 나서 술래가 된다. 벌칙으로 노래부르기, 엉덩이로 이름 쓰기, 동물 울음소리 흉내내기 등을 많이 내렸다. 수건이 가벼워 바람에 날릴 수가 있어 수건 안에 반지를 넣기도 하였다.

(화성면 산정리, 이태근)

(72) 여우잡기

먼저 가위 바위 보로 술래인 여우를 정한다. 술래는 작은 원 안에서 머리를 수그리고 쪼그려 앉는다. 다른 아이들은 앉기

도 하고 서서 놀이를 한다. 서서 손에 손을 잡고 술래와 문답식으로 노래를 주고 받는다.

(다른 아이들)	(여우)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잠잔다.
잠꾸러기	세수한다
멋쟁이	밥 먹는다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살았니? 죽었니?	살았다(또는 죽었다)

여우가 '죽었다'라고 대답할 경우에는 다른 아이들이 다시 죽었니 살았니 하고 묻는데 이때 죽었다 고 하면 몇번이고 다시 묻는다. 만일 여우가 갑자기 살았다 라고 하면 아이들은 달아나고 여우는 도망가는 아이들을 쫓아가 손으로 친다. 그러면 치인 아이는 여우(술래)가 되고 놀이는 계속한다.

(운곡면 신대리, 김영자)

(73) 역마싸움

지금과 같이 함을 지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랑 친구들은 일단 신부의 집에 들어가 함을 주고" 세수하려 하니 놋대야에 물을 받아 오라" 라고 한다.

놋대야에 물을 받아오면 물을 쏟아 버리고 미리 준비한 보

자기에 대야를 넣어 가지고 가려 한다. 그러면 신부집에서 난감해 질 수밖에 없다. 놋대야가 무척 비싸기도 하지만 미풍으로 생각하고 신랑 친구들을 달래 보려 놋대야를 사려한다. 신부집에서는 헐값에 사려고 하고 신랑 친구들은 비싸게 팔려고 하고 그런 중에 말다툼이 오가며 역마싸움이 벌어진다.

돈을 받으면 그 돈을 '대야 값'이라 하여 신랑 친구들은 그 돈으로 주막에 가서 술을 먹으며 신부에게 빼앗긴 신랑을 그리워하면서 마음을 달랜다. (청양읍 송방리, 이서동)

(74) 유리보기 놀이

4~7명의 여자아이들은 깨진 유리조각을 가지고 모여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놓고 놀이를 시작한다. 각자 10cm 정도 깊이로 땅을 파고 흙을 적당히 깔고 그 위에 분꽃, 복숭아 꽃, 채송화 등의 꽃과 잎으로 장식을 한다. 그런 후 그 위에 유리를 깔고 흙으로 덮는다.

자기 순서가 돌아오면 흙으로 덮인 것을 천천히 헤쳐 유리를 통하여 본 모양을 서로 비교한다. 멋있고 화려한 정도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서로 멋있다고 자랑을 한다.

(운곡면 신대리, 김영자)

(75) 자리개질 놀이

농촌 마을의 벼 수확 철이 되면 품앗이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타작을 하게 된다. 하루 종일 볏단의 이삭을 떨어내는 일이 쉽지 않고 지루한 노동이므로 공동작업의 놀이 성격을 띄우며 재미있게 놀이를 하였다. 이 놀이를 '자리개질놀이'라고 한다.

놀이방법은 보통 8명에서 10명이 타작(바심)을 하게 된다. 두 사람이 마주보고 가운데에 큰 통나무, 도구통에 볏단의 이삭을 때려 구성진 노래를 부르며 타작을 한다. 그 중의 한 사람이 선창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후창을 하게 된다.

"어려 옛" 하면 모든 사람들은 볏단을 꼭 잡고 위로 쳐든다. "에야헤(선창)", "에야헤"(후창) "저 건너 산에 에야헤(선창)". "에야헤(후창), ", "비가 들어온다 에야 헤(선창)", "에야 해(후창)", "어허 에야호 어허 디어라 나가세(선창)" "어허 디어라 나가세(후창)"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타작을 한다. 볏단을 개상 위에 때려서 노래에 맞추어 한번 부르면 한 단이 떨어지게 된다. 계속 반복하여 개상에 볏단을 내리쳐 타작을 하게 된다.

타작이 다 끝나가면 노래는 바뀌게 된다. "이번 참에는 에야해(선창)" "애야헤(후창)". "긴 놈 잡아다 개상제 지내자 에야해(선창)", "에야해(후창)", "닭 잡고 술 먹자 애야헤(선창)" "애야헤(후창)" 라고 노래를 부른 후 집주인을 묶어 개상에

붙잡아 매고 "너 닭을 몇 마리 잡을래", "술은 몇 통을 가져올래" 라고 주인에게 물으면 주인의 대답에 따라 놀이는 끝나고 피로를 잊는 술자리가 펼쳐진다. (대치면 탄정리, 복진세)

(76) 잠자리 잡기

① 대치면 탄정리의 잠자리 잡기

"잠자리 꽁꽁 앉은 자리 앉아라, 멀리멀리 가면 똥물 먹고 죽는다."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살금살금 가까이 간다. 이 때 잠자리는 마치 노래를 듣는 것처럼 날아가지 않고 고개머리만 흔들면서 앉아 있다. 이럴 때 천천히 이동하면서 살며시 잠자리의 꼬리를 잡는다.

낚싯대 끝에 파리를 달아 매달아 흔들면 잠자리가 파리를 물게 될 때 잠자리를 잽싸게 잡는다.

꽃잎이 작은 줄기를 꺾어 잠자리 앞에서 돌리면 잠자리는 꽃을 물게 되는데 이때 잠자리를 잡는다.

(대치면 탄정리, 복진세)

② 남양면 구룡리의 잠자리 시집 보내기

잠자리를 잡아 개구쟁이 아이들이 꼬리를 끊어 버리고 그 안에 가늘고 짧은 나무토막을 넣어 날려 보낸다. 이때 아이들은 잠자리를 '시집 보낸다' 혹은 '장가 보낸다'라고 한다.

(남양면 구룡리, 김동만)

(77) 종지돌리기

종지를 찾아내는 놀이인데, 먼저 가위 바위 보로 술래를 정한 다음에, 술레를 가운데 앉게 한다. 다른 사람들은 무릎을 세우고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술래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종지를 계속해서 돌리다가 멈춘다.

이 때 술래는 종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면 그 사람은 노래, 춤 등의 벌칙을 받게 되고, 술래가 된다. 만약 찾아내지 못하면 종지를 찾아낼 때까지 계속 술래를 해야 한다.

(운곡면 신대리, 김영자)

(78) 진(陣)뺏기 놀이

먼저 인원수에 맞추어 편을 가르고,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진(陣)에 손을 대고 서 있는다. 그리고 시작과 함께 자기 진을 떠나 상대편 진영에 가서, 손을 대고 만세를 부르면 이기게 된다.

진에서 늦게 나온 사람이 일찍 나온 사람을 치면 죽게 되며, 다만 일찍 나온 사람은 늦게 나온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즉 진에서 먼저 떠난 사람이 쫓기게 되며, 자기보다 진을 먼저 떠난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서 쫓아야 한다. 또는 나보다 늦게 떠난 상대편이 누구인가를 잘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두 진에는 진을 지키는 아이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상대편을 잡기 위해 떠나게 된다. 달리기를 잘 하는 아이

가 유리하나, 작전을 세워서 공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들의 편놀이에서 꾀가 많은 여자아이들이 승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죽은 사람은 상대편의 진영에 가서 서 있어야 하고, 서 있을 때 되도록 손을 벌리고 길게 서서 구원을 요청한다. 이때 같은 편 사람이 죽은 한 아이의 몸에 손을 땋기만 해도 모두 풀려나게 된다.

상대편이 많이 죽으면 진을 점령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가 적은 편은 진을 떠나지 않고 적을 방어만 한다. 그런데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든지 적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적에게 치이지 않도록 진을 찍어야 이길 수 있다. 오랫동안 진을 빼앗지 못할 때에는 죽은 사람의 수를 따져서 승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지역에서는 추석 명절에 주로 성행하여 남녀 어린이가 함께 놀았다. 간혹 남녀로 편을 나누어 놀면, 힘으로만 노는 남자아이들보다 바람잡이를 잘 이용하여 잔꾀를 쓰는 여자들이 곧잘 이기게 된다. (운곡면 신대리, 김영자)

(79) 참새잡기

① 화성면 화암리의 새잡기

겨울에 참새를 잡아서 구어 먹었다. 겨울에 잡는 참새가 일년 동안 많이 먹어 살이 쪄서, 맛이 좋다고 한다. 특히 납향날에 많이 잡아먹었다. (화성면 화암리, 송필현 · 조병철 · 최종기 · 송요선)

② 청양의 새잡기

섣달 그믐날 밤에 새를 잡는다. 겨울철 새고기는 맛이 진미이며. 특히 제석의 새고기는 약이 된다고 해서 농가에서는 제석에 새잡기를 한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③ 남양면 구룡리의 참새잡기

12월 겨울이 되면 참새를 잡아 구어 먹었다. 이곳에서는 지게의 바지게나 삼태기로 새를 잡는다. 참새가 잘 모이는 장소에 왕겨나 쌀, 보리를 조금 뿌리고 그 위에 지게 바지게나 삼태기를 놓아 한 자 정도의 나무토막으로 고이고 비스듬히 세워 맷돌 등 무거운 것을 올려놓은 뒤, 고인 막대에 새끼줄이나 가느다란 선을 매어 새가 보이지 않게 숨어서 기다린다. 참새들이 내려앉아 안에 들어가 모이를 먹으면 재빨리 줄을 당겨 참새를 덮쳐 잡는다. (남양면 구룡리, 김동만)

④ 목면 안심리의 그물로 새잡기

참새가 잘 다니는 길목에 물고기 그물을 몇 사람이 잡고 있다가 참새를 쫓아 몰면 재빨리 그물을 채어서 잡는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80) 총놀이

① 정산면 서정리의 물총놀이

먼저 직경이 약 3cm 정도에 마디가 있는 긴 대나무를 준비하여, 한 쪽은 마디 밖으로 자르고, 다른 한 쪽은 구멍이 뚫리도록 안쪽을 자른다. 마디가 막힌 부분의 중앙에 조그만 구멍을 뚫어 놓고, 대나무 길이보다 더 긴 나무 끝에 헝겊으로 대나무 통에 꽉 끼이도록 칭칭 감는다. 이것이 풀어지면 공기가 새어 물이 나가지 않으므로 잘 맞추어야 한다.

통속으로 헝겊을 잡아 맨 부분을 밑에까지 밀어 넣는다. 그리고 물 속에 넣어 막대를 잡아 올리면, 통 속에는 물이 가득 빨려 들어온다. 이것을 다시 밀어 넣으면 압력에 의해 조그만 구멍으로 물이 힘있게 나가게 된다.

놀이 방법으로는, 편을 나누어 물총에서 나가는 물로 싸우기도 하고, 누가 물을 멀리 보내는지를 겨루기도 한다.

(정산면 서정리, 윤흥수)

② 목면 안심리의 종이총알놀이

대나무를 잘라서 만든 개관된 통의 양쪽에 종이를 잘라 집어 넣는다. 그런 후에 공기의 압축을 이용하여 앞으로 밀면 종이 뭉치가 총알같이 나간다. 이렇게 쏘아서 상대를 맞추며 논다.

여름에는 씹은 종이 대신 팽나무 열매를 이용했기 때문에,

매우 위험했다. 따라서 위험하다고 하여, 하지 못하게 하였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81) 콩주머니놀이

① 대치면 농소리의 콩주머니놀이

두 개 혹은 세 개의 콩 주머니를 양쪽 손으로 옮겨가며 받는 놀이이다. 이때 노래를 부르며, 여러가지 기교를 부린다.

(대치면 농소리, 이태근)

② 비봉면 녹평리의 콩주머니피구놀이

피구와 유사하게 실시하는데, 차이점은 공 대신 콩주머니를 사용한다. 먼저 편을 갈라 공격과 수비를 정한다. 이때 공격은 안에, 수비는 밖에 위치한다. 수비는 인원을 반으로 나누어 양쪽에 배치한다.

밖에 있는 수비 편은 안에 있는 공격 편을 콩주머니로 던져서 맞춘다. 맞은 사람은 실격이 되어 밖으로 나간다. 수비편이 던진 콩 주머니를 공격자가 받아서 던져서, 수비편을 맞히면 죽었던 사람 중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실격된 사람이 없으면 점수로 계산할 수 있다. 공격자가 모두 콩주머니에 맞아 실격이 되면 공격과 수비를 교대하여, 놀이를 계속한다.

(비봉면 녹평리, 이한숙)

(82) 팔씨름

팔씨름을 하는 방식에는 3가지가 있다.

① 일반적인 팔씨름은 개인경기로 이루어지는데, 서로 엄지를 걸고 손바닥을 마주 쥔 상태에서, 나머지 한 손은 편 채로 상대의 팔꿈치 안쪽을 대어서 팔꿈치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잡은 손에 힘을 빼고 있을 때, 심판이 두 사람의 손이 정확히 중앙에 있는지, 그리고 손등과 팔목이 일직선상에 있는 지를 확인한다.

'시작' 하는 구령이 떨어지면, 손에 힘을 주어 상대의 손을 넘어뜨린다. 곧 상대의 손등을 자기 몸 쪽으로 닿게 하면 이기게 된다. 청장년층은 주로 술내기를 하였는데, 구경꾼들과 같이 술자리가 벌어졌다. 해방 전에는 주로 팔꿈치를 자기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실시하였다.

② 목잡고 겨루기는 실제 팔 힘의 차이가 날 때 실시하는 방식으로, 상대의 팔목을 잡고 첫 번째의 요령으로 실시한다.

③ 손가락 겨루기는 내기의 성격에서 벗어나 재미로 하는 방식으로, 서로 검지를 걸고 첫 번째의 요령과 같이 실시한다.

(대치면 탄정리, 복진세)

(83) 호드기 불기

① 정산면 덕성리의 호드기불기

악기가 제대로 없었던 시절에, 농촌 어린이의 악기놀이로 호드기 부는 것이 있다. 이른봄부터 개나리, 버드나무, 미루나무가 물이 올랐을 때, 껍질이 쭉 빠지게 하여, 이것으로 호드기를 만들어서 불었다. 버드나무로 만든 호드기를 '버들피리', 보릿대를 잘라서 만든 것을 '보리피리'라고 한다. 이 지역에서는 호드기를 '호떼기'라고 부른다. (정산면 덕성리, 조재순)

② 화성면 산정리의 호드기불기

나무들(시기적으로 개나리, 버드나무, 미루나무 순으로 이용)이 물이 오르면 가지를 잘라서 한번 비틀어 길이가 약 6~7cm정도 되게 껍질을 칼로 도려내어 속에 들어 있는 나무 속을 빼내어서 겉껍질만 남게 된다. 이것의 끝을 얇게 베껴 혀를 내어 불면 호드기가 된다. 호드기를 만들어 두 손으로 감싸고 손을 움직여 노랫소리나 재미있는 소리를 내기도 하고 숨을 들이마신 후 한번에 길게 소리를 낼 수 있는 지를 겨루기도 한다. 또한 호드기의 효시는 갈대로 만들었고 갈대 겉을 하얗게 벗겨서 소리나는 혀를 만들어 불렀다고 한다.

(화성면 산정리, 송필현)

③ 돌피 불기

돌피잎을 따서 입으로 부는데, 빽빽 소리를 내면서 피리 부는 흉내를 내며 논다. (화성면 장계리, 이순이)

(84) 호미놀이

① 청양읍 송방리의 호미걸기

놀이를 하는 사람끼리 가위 바위 보로 순서를 정한다. 여러 명의 농부들이 제각각 호미를 한 개씩 팔에 걸어 힘을 과시한다. 팔에 줄줄이 호미를 걸어서, 거는 호미의 숫자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대개 술내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청양읍 송방리, 이서동)

② 청양읍 읍내리의 호미치기

10여보 앞에 선을 그어 놓고, 선을 넘어 던지게 하여 호미가 엎어지거나 선을 넘어가지 못하면 지게 되고, 호미가 꽂히면 이기게 된다. 보통 내기를 하는데, 진 사람은 이긴 사람 대신 밭고랑을 매어 주든지 일이 끝난 후 깔 한전 - 풀 한 아름 정도 - 를 베어 주든지, 막걸리를 사 주든지 한다. 그때 그때에 따라 여러 가지 내기를 하였다. (청양읍 읍내리, 복기율)

(85) 가래질놀이

① 화성면 산정리의 어른들의 가래질놀이

달빛이 좋은 음력 팔월 보름날 밤에 어른들이 달맞이를 하다가, 권농을 목적으로 달빛 아래에서 가래질을 하는 시늉을 내면서 농악에 맞추어 노래를 부른다. (화성면 산정리, 송필현)

② 정산면 서정리의 아이들 가래질놀이

10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놀이를 하는데, 먼저 가위 바위 보로 술래를 정한다. 술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술래의 양다리와 양팔을 잡고 노래에 맞추어 앞뒤로 가면서 흔들다가, 노래가 끝나면 내려놓는다. 그리고 50m 전방에 표시한 지점까지 달려갔다 오면서, 술래의 집을 거쳐 처음의 자리인 가래질터까지 되돌아온다.

술래는 술래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되돌아오는 사람을 처음의 자리로 가기 전에 챈다. 잡아 채인 사람은 술래가 되며, 술래가 많을 경우에는 가위 바위 보로 정한다. 또한 가래질 놀이의 동작을 여러 놀이의 벌칙으로 내리기도 한다.

(정산면 서정리, 윤흥수)

(86) 가마놀이(싸움)

① 목면 안심리의 가마싸움

가마싸움은 수시로 했고, 사람을 한 명씩 태워서 싸우기도 했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② 대치면 탄정리의 가마놀이와 가마싸움

가마는 옛날 탈 것의 하나로 한 사람이 들어앉고, 두 사람 또는 네 사람이 메고 다녔다. 이 놀이는 가마 타는 것을 본 따서 생긴 어린이의 놀이라고 볼 수 있다. 몇몇의 사람들이 서로 팔목을 잡고 가마같이 만들어 놀이를 하였는데, 이 놀이를 가마놀이·거마(去馬)놀이라고도 한다.

한편 가마싸움도 있다. 편을 나누어 앞의 방법으로 잡고, 그 위에 한 사람을 태워서 서로 가마에 탄 사람끼리 싸워서, 상대방을 쓰러뜨린 수에 따라 승부를 정한다. 이때 가마를 만든 사람은 손으로 상대의 가마 만든 사람을 잡으면 실격이 된다. 후에 가마싸움이 발전하여 기마전놀이로 된 것으로 본다.

(대치면 탄정리, 복진세)

③ 정산면 대박리의 가마놀이

주로 편을 나누어 놀이를 하는데 두 사람이 마주서서 오른손으로 자기편 왼 팔목을, 왼손으로 오른 팔목을 꽉 잡아 정(井)자 모양의 네모진 가마를 만든다. 그 위에 한 사람을 태우

고 두 편에서 말을 달려 목표물을 정해 돌아오게 한다. 이 같이 이어 달리기를 되풀이하여 먼저 끝난 편이 이긴다. 말이 달릴 때 한 편에서는 "장가간다"라고 외치면, 다른 편에서는 "시집간다"라고 답하여 흥을 돋운다. (정산면 대박리, 정진우)

(87) 고리찾기

나무를 하러 간 10세 이상의 남자 아이들이 나무그늘 아래에서 모래나 흙 속에 숨겨놓은 고리를 찾는 놀이이다. 이 지역에서는 '고리미끼', '끼미씹'이라고 부르고, 놀이의 특성상 남자들만 실시하였다. 고리를 소나무 뿌리, 칡넝쿨이나 쑥 뿌리로 만들어서, 정한 순서에 따라 가느다란 나무 막대나 쇠꼬챙이로 흙 속에 있는 속에 끼운다. 그래서 이를 먼저 찾게 되면 이기게 된다. (정산면 덕성리, 장광현)

(88) 고생받기

주로 여름철에 잔디밭이나 모래밭에서 실시하며, 남자어린이들이 즐겨한다. 규칙을 정하여 놓고 서로 상대방을 넘기거나 쓰러뜨리는 레슬링과 비슷한 힘 겨루기의 놀이 형태이다.

두 명이나 여러 명이 힘 자랑으로 편싸움을 하기도 한다. 유도와 레슬링, 그리고 씨름의 혼합형식으로, 서로 겨루어 상대

가 "고생"이라고 항복할 때까지 겨룬다. 이때 상대를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때리면 실격이 된다. 겨루기가 진행되다가 "고생"을 받아낸 사람이 이기게 된다. (정산면 덕성리, 조재순)

(89) 국수가닥 늘리기

부녀자들이 옥수수나 밀 등의 가루를 반죽하여 구성지게 노래를 부르면서 국수가닥을 만든다. 누가 얇고 길게 국수가닥을 만드느냐에 따라 승부가 결정되고, 우승팀에게는 국수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진 편에서는 각각 국수를 만들어 우승팀을 대접하고 동네사람들에게 배불리 국수를 먹일 준비를 한다. (정산면 서정리, 양매임)

(90) 글씨찾기

① 정산면 덕성리의 글자 알아 맞추기

가위 바위 보로 이긴 사람이 먼저 상대가 보이지 않게 뒤로 돌아서 땅바닥에 나무막대나 못을 이용하여 자기가 쓰고 싶은 글자를 새긴다. 그리고 모래로 글자를 덮어놓고 두들기든지, 또는 발로 밟아서 다지기도 한다. 상대방은 모래를 헤쳐가면서 글자를 알아 맞추게 된다. 알아 맞추면 교대를 하고 알아 맞추지 못하면 두 번이나 세 번이나 다시 하게 된다. 이때 정한 규칙에 따라 벌칙을 내리기도 한다. (정산면 덕성리, 장광현)

② 청양읍 송방리의 글자 찾기

주로 실내에서 글자 찾기를 하였으며 서당에 다니는 학동들 사이에서 즐겨했다. 한문으로 된 책자는 가로 세로가 일정하고 띄어쓰기가 되지 않아 글자 찾기가 무척 힘들다. 글자를 배우는 학동들이 글자가 신기하여 글자 찾기를 재미있어 했는데, 둘이나 여러 명이 놀이를 한다. 순서를 정하여 한 사람이 글자를 대면 여러 사람이 함께 찾는다. 찾으면 다음 사람이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고 찾지 못할 경우는 글자를 알려주기도 한다.

(청양읍 송방리, 이서동)

(91) 기마전

여러 명의 남자 아이들이 편을 나누고, 네 사람이 한 조가 된다. 각 조에서 말 한 필을 만드는데, 좌우에 한 사람씩 깍지를 껴서 말의 어깨에 얹는다. 그리고 기수가 된 사람이 팔 사이로 발을 끼우며 탄다. 규칙을 정하여 상대의 말을 쓰러뜨리는 숫자, 혹은 기수가 쓴 모자를 빼앗은 숫자에 따라 승부를 결정한다. 만약 말을 만든 사람끼리는 싸우면 실격이 된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92) 길쌈놀이

마을의 길쌈하는 부녀자들이 같이 한 곳에 모여 삼을 삼으면서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마음으로 길쌈놀이를 한다. 추석 전후에는 마을에서 길쌈내기를 하는데 진 사람은 맛있는 요리로 마을 사람을 대접한다.

오늘날 베틀이나 놓아볼까.
하는지 베틀이나 놓아볼까.
구름 잡아 임을 들고
대추나무 연기부기
박달나무 바지지기
옥 짜는 소리 먼데
사람 듣기 좋고
같이 있는 사람 보기 좋고
낮에 짜면 일광단요,
밤에 짜면 야광단일세.
우리 서방님 양복거리
와이셔츠거리가 훌륭하다. (화성면 수정리, 강만근)

(93) 깡통차기

먼저 직경 50cm 정도의 원을 그리고, 그 안에 깡통을 놓고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술래를 정한다. 그 후 나머지 한 사람이 숨기 위해 한 번 깡통을 차고 숨는다. 술래는 차서 멀리 가

있는 깡통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숨은 사람을 찾기 시작한다.

숨은 사람을 찾을 경우에는 찾은 사람의 이름을 대고 돌아와 원 안에 있는 깡통을 밟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숨은 사람을 다 찾으면, 잡힌 사람끼리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새로운 술래를 정한다.

그러나 찾았어도 술래보다 먼저 와서 깡통을 원 밖으로 차면 다시 숨을 수 있고, 이 때 차는 횟수는 제한이 없다. 술래가 찾은 사람이 많아도 숨어있는 한 사람이 술래보다 먼저 또는 술래 몰래 깡통을 차면, 잡혔던 사람도 다시 숨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놀이가 진행된다.

(운곡면 신대리, 김영자)

(94) 눈(雪)싸움

20~30여 명의 아이들이 양편으로 나누어 적당한 간격을 두고 서서 '시작' 신호에 따라 땅 위에 쌓인 눈을 뭉쳐서 서로 던지며 노는 놀이이다. 이 때 대항하지 못하고 피하는 편이 지게 되는데, 몇 명이 합심하여 한 사람에게 집중 공격하여 기선을 잡기도 한다. 개구쟁이 소년들은 눈 뭉치 속에 작은 돌을 넣어 던지기도 하고, 한 사람만을 잡아서 눈 위에 굴리기도 한다.

(대치면 탄정리, 복진세)

(95) 다리걸고 놀기

5~8명의 어린이들이 원을 만들어 다리를 건다. 균형을 잡기 위하여 깡충 깡충 뛰면서 손뼉을 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신나게 논다. "찌지 빠바 스스매 노고가고가 센세이 와"라는 일본 노래를 부르면서 놀이를 했다. (화성면 산정리, 이태근)

(96) 다리세기

주로 추운 겨울철에 방안에서 많이 하는 놀이로, 남녀어린이들이 두 줄로 마주 앉아, 서로 다리를 엇갈리게 뻗고, 다리를 세어 가면서 놀이를 한다. 이 놀이를 '발헤기', '다리셈놀이'라 하고, 제일 늦게까지 다리가 남는 사람을 도둑이라 하여, 이 놀이를 '도둑놈놀이'라고도 한다.

보통 5~6명의 아이들이 서로 마주 앉아 서로 다리를 엇갈리게 뻗고서 노래에 맞추어 손바닥으로 한 번씩 짚으면서 세어간다. 이렇게 세어 가다가 "땡", "꿍"에 해당하면 다리를 오므리며, 또 노래를 부르고 몇 번이고 거듭하는 사이에 두 다리를 먼저 오므린 사람이 이기게 되는데, 그를 '장수, 또는 순경'이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오므린 사람을 '닭'이라 하고, 그 다음을 '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리가 남게 된 사람을 '도둑'이라 한다. 도둑이 된 어린이에게는 정한 벌칙을 주게 된다.

(정산면 덕성리, 조재순)

이 때에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른다.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인사 만사 주머니끈
똘똘 말아 장두칼
제비줄에 허리빠, 요땡. (정산면 용두리, 최웅매)

(97) 들돌놀이

① 화성면 산정리의 들돌놀이

돌의 무게에 따라 두 손으로 잡아 들어올리기, 가슴에 붙여 들기, 배에 붙여들기, 들고 허리를 펴기, 들어서 일어서기, 들고 몇 걸음 또는 멀리 걷기, 돌을 안아서 어깨 뒤로 들어서 던지기 등이 있다. (화성면 산정리, 송필현)

② 목면 안심리의 들돌놀이

돌의 무게는 176근으로 이 동리에서는 '들고 누가 멀리 가느냐'에 따라 승부를 가리었다고 한다. 보통 장정은 100보 정도 이상 돌을 들고 이동하는 놀이를 하였다. 그러나 단지 힘 자랑으로 끝났지, 이긴 자에게 상품을 없었다고 전한다.

(목면 안심리, 김재복)

③ 대치면 탄정리의 들독놀이

드림독을 들어서 어깨 뒤로 던지는 사람을 '삐비장정'이라

하여, 장정 중에서 장정이라고 불렀다.

(대치면 탄정리, 복진세)

(98) 마부놀이

먼저 가위 바위 보를 하여 마부와 말을 정한다. 마부는 말을 오른쪽 옆구리에 머리를 대고, 오른손으로 말의 눈을 가리어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도록 한다. 마부가 말을 이리 저리 끌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은 재빨리 말 등에 올라타기도 하고, 타려는 시늉으로 장난을 치기도 한다.

그 후 올라탄 기수가 뛰어 내릴 때 말의 뒷발질로 차이는 사람은 말이 되고, 말이 되었던 사람은 마부가 된다. 또는 올라타려고 접근하는 사람이 뒷발질로 차이면, 그 사람이 말이 되고 말이 되었던 사람은 마부가 된다. 이렇게 말, 마부, 기수의 역할을 반복적으로 교대하면서 말 타는 놀이가 계속된다.

(정산면 대박리, 정진우)

(99) 막대다리놀이

남자 어린이들이 2~3m 정도 되는 2개의 통나무에 올라가서 걷거나 달리는 놀이이다.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발판을 대개 40~50cm 위치에 만들어 세워서 올라간다. 올라설 때는

긴 나무가 양쪽 겨드랑이 앞부분에 있도록 해야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놀이 방법으로 목표지점을 정해놓고 빨리 다녀오기와 누가 긴 시간동안 가느냐에 따라 승부가 결정된다.

(대치면 탄정리, 복진세)

(100) 목자치기(사방치기, 돌차기)

① 송산면 송학리의 목자치기

납작한 돌이나 사기그릇 깨진 것 따위를 '목자'라고 하였다. 곱돌을 주워다가, 마당에 가로 2칸, 세로 3칸, 모두 네모 6칸을 그린다.

놀이는 편을 나눠서도 하기도 하고, 일대일로 놀기도 한다. 첫 칸에서 시작하여 목자를 발로 차서 한 칸씩 옮기면서 진행한다. 목자를 찬 다음 사람이 움직일 때는 깽깽이 발로 이동한다. 목자를 칠 때 그려진 칸 밖으로 목자가 나가거나 선에 닿으면 상대편으로 순서가 바뀐다. 남녀 모두가 함께 즐기는 놀이이다.

(정산면 송학리, 오영범)

② 남양면 온암리의 목자차기

땅에 선을 그어 판을 만든 후, 시작하는 곳에서 목자(말)를 친다. 목자를 칠 때 그려놓은 선에 닿으면 지거나, 순서가 상대편으로 넘어간다. 목자를 친 다음 이동할 때는 깨금 쳐서(깽

깽이) 간다.

하얀 돌로 이와 같은 형식으로 하는 놀이가 또 있는데, 이를 "고똑치기"라고 하였다. (남양면 온암리, 정일순)

③ 화성면 산정리의 사방치기

이 지역에서는 돌차기, 목자치기라고 하며, 놀이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가위 바위 보로 순서를 정하고 순서에 의해 시작한다.

㉡ 1단은 목자를 1칸에 놓고 2칸부터 8칸까지 몸만 가는데, 2 3칸은 앙감질로, 4~5칸은 동시에 한발로 딛고, 6칸은 앙감질, 그리고 7~8칸은 동시에 한발로 딛는다. 그리고 7~8 칸에서 몸을 180도 회전하여 역순으로 2칸까지 와서 1칸에 놓인 목자를 집어들어 땅으로 나온다.

㉢ 2단은 목자를 2칸에 던져 놓고, 1단과 같은 요령으로 실시한다.

㉣ 3단은 목자를 3칸에 던져 놓고, 1~2칸은 한발씩 동시에 놓고, 3칸은 건너뛰며, 4~5칸은 한발씩 동시에, 6칸은 앙감질, 7~8칸은 한발씩 놓아 쉰다. 나올 때는 역순으로 4~5칸에서 목자를 잡고 1~2칸을 거친 다음, 땅으로 나온다.

㉤ 4단은 목자를 4칸에 놓고, 1~2칸은 동시에, 3~5칸은 한발씩 앙감질로, 7~8칸은 동시에 놓는다. 되돌아 올 때는 위와 반대로 한다.

㉤ 5단은 목자를 5칸에 던져 놓고 4단과 같은 요령으로 한다.

㉥ 6단은 목자를 6칸에 던져 놓고 6칸을 건너뛰어 앞과 같은 요령으로 한다.

㉦ 7단은 목자를 7칸에 던져 놓고 앞과 같은 방법으로 하되 6칸에서 8칸으로 앙감질로 갔다가 8칸에서 7칸의 목자를 들고 나온다.

㉧ 8단은 목자를 8칸에 던져 놓고 7단과 같이 한다. 하늘은 목자를 위로 던지고 앞과 같은 방법으로 하늘에 간 다음, 목자를 발 등 위에 놓고 올려 받는다. 그리고 목자를 들고서 들어갈 때의 역순으로 땅까지 나온다.

㉨ 던지기는 땅에서 뒤로 돌아 목자를 머리 위로 던져서 목자가 들어가는 칸이 '자기 땅'이 된다. 자기 땅은 자기만의 표시를 하며, 이 땅에서는 두 발을 동시에 놓아 쉴 수 있고, 상대방은 밟을 수 없다.

놀이 규칙으로 선을 밟든가, 목자를 잡지 못하거나, 목자가 밖으로 나가든가, 목자가 선에 물리면 실격이 된다. 그러면 공격권이 상대에게 넘어간다. 그리고 돌을 주워서 나올 때 발을 주춤거리면 실격이 된다. '하늘 방'일 경우, 한 손으로 땅을 짚고 다른 한 손으로 목자를 주우면 실격이 되고, 반드시 땅을 짚지 않고 목자를 주워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계속 반복하여 나중에 칸을 많이 차지하는 편이 이기게 된다.

(화성면 산정리, 이한숙)

④ 청양의 사방치기(돌차기)

봄·가을철에 넓은 마당이나 운동장에서 어린 소녀들이 즐겨하는 놀이이다. 평평한 땅에다 일정한 규격의 신을 그어 바둑판 모형의 칸을 만든 다음,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순서를 정하고, 어린애 손 만한 크기의 납작한 돌이나 사금파리 등을 목자(막자)로 한다.

순서대로 시작하는데, 목자를 첫째 칸에 던져놓고 한발을 들고 외짝발로 차서 둘째, 셋째, 넷째 등 순서대로 각 칸을 거친다. 다음에는 둘째 칸에 던져놓고 각 칸을 다 마치면, 뒤로 목자를 던져 그 떨어진 칸은 본인의 소유가 된다. 그 칸에는 두 발을 땅에 놓고 쉴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된다. 칸 수를 그릴 때는 정해서 그리면 되지만, 목자가 선에 걸리거나 밖으로 나가면 실격이된다. 이어 다음 순번자가 하도록 하는 이 놀이는 사방치기라고도 한다. (≪청양의 민속≫, 청양문화원, 1994.)

제보자 및 참고문헌

(1) 조사팀의 2001~2002년 현장조사 때의 제보자

-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염태섭(남, 77세, 농업, 2대째 거주, 파주 염씨), 2001. 7. 27., 제보자의 집, 정형호·송지영 조사.
-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강재금(여, 78세, 충청도 출신, 24살 시집 와서 32살에 남편이 사망, 2남 2녀, 기독교), 2001. 7. 27., 제보자의 집, 송지영 조사.
- 청양군 대치면 광금리, 노광호(남, 57세, 7대째 거주, 대졸, 전직 교사, 기독교, 제관과 이장 경력, 월남전 고엽제 피해, 생업으로 양잠, 동충하초 재배), 2001. 7. 27., 마을회관, 김혜연·이동아 조사.
- 청양군 청양읍 적누리 1구, 노병두(남, 66세, 농업, 16대째 거주, 교화 노씨), 2001. 7. 27., 제보자의 집, 정형호·송지영 조사.
- 청양군 청남면(靑南面) 왕진리(汪津里) 1구 원왕진(元王津), 김정운(남, 67세, 농업, 2대째 거주, 경주 김씨), 2001. 7. 28., 정형호·서종원 조사.
- 청양군 청남면 상장 1리, 우성림(남, 58세, 3대째 거주, 새마을 지도자, 자녀 6남매), 마을 정자나무, 2001. 7. 28 , 홍정모·김선숙 조사.
-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김명하(남, 63세, 농업, 19대째 거주, 연양 김씨, 자녀 4남매, 16세부터 12발 상모를 돌리고, 19세

부터 법고잽이 역할을 함. 벼농사 이외에 주로 수박 농사 지음. 돌모와 채를 직접 수리·제작함. 은산농악에 가서 상모를 돌리기도 함.), 2001. 7. 29., 마을회관, 정형호 조사.

- 청양군 청남면 천내 2리, 전철규(남, 85세, 담양 전씨, 17대째 거주, 5년간 유사, 아들이 이장), 2001. 7. 28., 김혜연, 이동아 조사.
- 청양군 정산면 남천리, 김원중(남, 69세, 농업, 3대 거주, 달궁소리 충남지역 기능보유자, 공주시 우성면 봉현리), 2001. 7. 29., 제보자의 집, 정형호 조사.
- 청양군 정산면(定山面) 용두리(龍頭里) 1구, 이신우(남, 66세, 경주 이씨, 3대째 거주), 김홍배(여, 69세, 공주시 국사봉이 고향), 2001. 7. 27., 서종원 조사.
- 청양군 정산면 송학리, 오영삼(남, 58세, 3대째 거주), 2001. 7. 24., 이동아 조사.
- 청양군 목면(木面) 본의(本義) 1리 무수동(無愁洞), 김홍식(남, 76, 안동 김씨, 공주군 의성면 어천리에서 6. 25때 이주.), 윤종오(남, 78, 칠원 윤씨, 4대째 거주), 2001. 7. 28., 마을 입구 정자나무, 정형호·서종원 조사.
- 청양군 목면 본의2리, 김천식(남, 61세, 10대째 거주, 동막리 이장), 2001. 7. 28., 이동아·김혜연 조사.
- 청양군 남양면(南陽面) 매곡리(梅谷里) 1구, 최창호(남, 67, 5대째 거주, 현 이장), 2002. 7. 25., 마을 정자나무, 정형호·서종원 조사.

- 청양군 비봉면 신월리 1구, 조성매(여, 69세, 주 제보자), 명성옥(여, 61세), 김천수(여, 77세), 정풍자(여, 61세), 2001. 7. 26., 마을 공터, 정형호 · 서종원 조사.
- 청양군 장평면 낙지리, 윤갑중(남, 76세, 4대째 거주), 심윤섭(남, 73세, 3대째 거주), 2001. 7. 29., 김혜연 · 이동아 조사.
- 청양군 장평면 분향1리 조민행(남, 78세, 4대째 거주), 김완수(남, 58세, 중림리에 살다가 30년전 이사), 2001. 7. 29., 김혜연 · 이동아 조사.
- 청양군 장평면 미당리, 김평길(남, 73세, 5대째 거주), 서기복(남, 83세, 청남면 내직리 출생), 미당노인회관, 2002. 7. 23. 정형호 · 류재인 조사.
- 청양군 정산면 송학리, 이덕종(남, 73세, 농업, 송학리 상쇠, 풍장 60년 경력, 호의적), 제보자의 집, 2002. 7. 23. 정형호 · 류재인 조사.
- 청양군 정산면 송학리, 吳永範(남, 69세, 농업, 4대째 거주, 송학리 동화제로 충남무형문화제 지정보유자, 호의적이고 기억력 우수), 제보자의 집, 2002. 7. 23. 정형호 · 류재인 조사.
- 청양군 장평면 도림리, 강영순(남, 67세, 진주 강씨, 4대째 거주, 79년에 온천 발견, 89년부터 개발, 온천개발 책임자), 2002. 7. 23., 도림리 온천개발사무실, 정형호 · 류재인 조사.
- 청양군 남양면 온양리, 정일순(여, 74세, 하동 정씨, 부여군 외산면 저동에서 출생, 16세때 온양리로 시집을 옴. 4남 1녀, 54살 때 남편 사별, 꼬댁각시 노래 가창능력 우수, 기억

력 뛰어남, 매우 호의적), 2002. 7. 24., 제보자의 집, 정형호·류재인 조사.

- 청양군 화성면 용당리, 강연석(남, 82세, 진주 강씨, 청양읍 장성리 2구에서 10살 때 용당리로 이주), 2002. 7. 24., 용당리 노인정, 정형호·류재인 조사.
- 청양군 비봉면 녹평리, 명제헌(남, 73세, 운곡면 위라리에서 30세때 이주), 최순길(남, 68세, 3대 거주), 2002. 7. 25., 녹평리 노인정, 정형호·류재인 조사.
- 청양군 비봉면 방한리, 이성찬(남, 80세, 14대째 거주, 마을 노인회장), 2002. 7. 25., 제보자의 집, 정형호·류재인 조사.
-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이순이(여, 70세, 보령군 청소면 평전리에서 시집 옴. 호의적), 2002. 7. 25., 제보자의 집, 정형호·류재인 조사.
- 청양군 운곡면 후덕리, 이의유(여, 75세, 광천리에서 시집을 옴), 조정인(여, 80세), 2002. 7. 26., 마을 정자나무 아래, 정형호·류재인 조사.
- 청양군 운곡면 후덕리, 명해동(남, 71세, 토박이), 명효식(남, 73세, 토박이), 명제빈(남, 77세, 마을 상쇠), 2002. 7. 26., 마을 정자나무 아래, 정형호·류재인 조사.

(2) 이완주가 2000년 조사 당시의 제보자

● 출전 : 이완주, 〈청양지역 민속놀이에 대한 조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2.

●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이서동(남, 86세), 2000년 4~8월, 이완주 조사.

●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복기율(남, 80세), 2000년 4~8월, 이완주 조사.

● 청양군 운곡면 송방리, 김광제(남, 64세), 2000년 4~8월, 이완주 조사.

● 청양군 운곡면 모곡리, 양지석(남, 72세), 2000년 4~8월, 이완주 조사.

● 청양군 운곡면 신대리, 윤주완(남, 81세), 윤주표(남, 75세), 김영자(여, 61세), 2000년 4~8월, 이완주 조사.

● 청양군 운곡면 후덕리, 명균식(남, 63세), 2000년 4~8월, 이완주 조사.

● 청양군 대치면 탄정리, 복진세(남, 75세), 2000년 4~8월, 이완주 조사.

● 청양군 대치면 시전리, 한태순(여, 72세), 김동심(여, 76세), 2000년 4~8월, 이완주 조사.

● 청양군 대치면 농소리, 이태근(여, 66세), 2000년 4~8월, 이완주 조사.

- 청양군 대치면 주정리, 정순경(남, 76세), 2000년 4~8월, 이완주 조사.
- 청양군 정산면 대박리, 최용남(남, 62세), 정진우(남, 74세), 2000년 4~8월, 이완주 조사.
-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윤홍수(남, 69세), 백용태(남, 78세), 김윤종(남, 62세), 양매임(여, 73세), 2000년 4~8월, 이완주 조사.
- 청양군 정산면 덕성리, 장광현(남, 80세), 2000년 4~8월, 이완주 조사.
- 청양군 정산면 송학리, 인연길(남, 60세), 황복환(여, 56세), 2000년 4~8월, 이완주 조사.
- 청양군 정산면 덕상리, 조재순(여, 79세), 조정숙(여, 49세), 2000년 4~8월, 이완주 조사.
- 청양군 정산면 용두리, 최웅매(여, 67세), 2000년 4~8월, 이완주 조사.
- 청양군 정산면 와촌리, 유영자(여, 61세), 박언년(여, 74세), 2000년 4~8월, 이완주 조사.
- 청양군 정산면 광생리, 임칠성(남, 89세), 2000년 4~8월, 이완주 조사.
- 청양군 목면 안심리, 김익수(남, 63세), 김재복(남, 67세), 권오현(남, 65세), 김용록(남, 45세), 정연왕(남, 65세), 2000년 4~8월, 이완주 조사.
- 청양군 목면 지곡리, 이규상(남, 61세), 2000년 4~8월, 이

완주 조사.

- 청양군 목면 화양리, 김갑순(남, 72세), 우영제(남, 73세), 2000년 4~8월, 이완주 조사.
- 청양군 목면 신흥리, 윤범수(남, 60세), 2000년 4~8월, 이완주 조사.
- 청양군 목면 본의리, 김천식(남, 60세), 2000년 4~8월, 이완주 조사.
- 청양군 청남면 지곡리, 김홍(남, 58세), 2000년 4~8월, 이완주 조사.
- 청양군 청남면 천내리, 소사영(남, 66세), 2000년 4~8월, 이완주 조사.
- 청양군 청남면 내직리, 김갑태(남, 73세), 2000년 4~8월, 이완주 조사.
- 청양군 남양면 구룡리, 김동만(남, 68세), 김명환(남, 65세), 2000년 4~8월, 이완주 조사.
- 청양군 남양면 대봉리, 강희배(남, 72세), 2000년 4~8월, 이완주 조사.
- 청양군 화성면 산정리, 송필현(남, 77세), 이희규(여, 68세), 이한숙(여, 74세), 2000년 4~8월, 이완주 조사.
- 청양군 화성면 농암리, 최종기(남, 77세), 2000년 4~8월, 이완주 조사.
- 청양군 대치면 농소리, 이대근(남, 66세), 2000년 4~8월, 이완주 조사.

- 청양군 화성면 매산리, 박일상(남, 68세), 2000년 4~8월, 이완주 조사.
-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강만근(여, 92세), 2000년 4~8월, 이완주 조사.
- 청양군 비봉면 녹평리, 지유순(여, 73세), 유향준(남, 69세), 2000년 4~8월, 이완주 조사.
-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최병훈(남, 74세), 2000년 4~8월, 이완주 조사.

(3) 참고문헌

- ≪내고장 청양≫, 청양군, 1981.
- 윤광봉, 〈호랑이 설화와 연희〉, ≪비교민속학≫ 14집, 비교민속학회, 1997. 5.
- 이완주, 〈청양지역 민속놀이에 대한 조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2.
-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 ≪청양의 민속≫, 청양문화원, 1994.
- 최상수, ≪한국민속놀이의 연구≫, 성문각, 1985.
- ≪칠갑문화≫ 제 11호, 청양문화원, 2001.

靑陽의 民俗演戱

인 쇄 : 2002. 11. 20.

발 행 : 2002. 11. 30.

발행처 : **靑陽文化院**(전화 : 041-943-4774)

발행인 : 안 종 일(전화 : 041-943-8889)

인쇄처 : 대명제책사(전화 : 02-924-5049)

※ 이 책은 군비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